

3.1운동 100주년 기념
성북구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자료집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



성북문화원
깊은맛·나눔·즐김

3.1운동 100주년 기념
성북구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자료집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

3.1운동 100주년 기념

성북구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자료집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

기획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백외준 · 민문기(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

이승호 · 조성윤 · 오진아 · 장지희(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원고 교정 · 교열 | 신혜민 · 고하나(성북문화원 문화교육사업팀), 노세진(성북문화원 문화기획팀)

녹취록 작성 | 인서열(고려대학교), 한승우(국민대학교)

발행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행일 |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디자인 | 권이지

퍼낸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 2019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성북구청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성북구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자료집 발간 연구용역>의 결과물입니다.

본문의 구술 자료는 긴 시간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축약, 정리하여 실은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성북구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자료집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



성북문화원
깊은맛·나눔·즐김

발간사

3.1독립선언과 만세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성북문화원은 이를 기념하여 연초부터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성북구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 연재를 필두로 독립선언서 필사 릴레이 참가, 한국독립운동사 연속강연,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거쳐간,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고마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살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추진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구민들이 소셜네트워크와 발걸음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표해 주시고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00년 성북구 지역은 어느 곳보다 뜨거웠던 공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서울의 서쪽 서대문형무소 일대가 한국인들에게 공포를 주는 공간이었다면, 서울의 동북쪽, 숲과 시내, 들판이 펼쳐져 있던 우리 성북 지역은 식민지 권력에 억눌린 한국인들의 숨통을 그나마 터 준 소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지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성북 지역은 청산리대첩의 영웅 나중소 장군이 군사기술을 익힌 곳이었으며, 항공독립운동가 최용덕 장군이 나라를 찾기 위한 지혜와 힘을 키웠던 곳입니다. 이육사 시인은 이곳에서 ‘청포도’와 ‘절정’을 써서 민족의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조소앙, 안재홍, 김의한, 정정화 지사는 해방 이후 돈암동으로 이주해 오면서 새로이 건설될 통일된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다시 헌신하였습니다. 유우석과 조화벽 지사는 비록 가난하지만 3.1운동 때 돌아가신 부모님과 동생 유관순 열사의 뜻을 계승하며 지사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꾸준히 지

켜 나갔습니다. 이은숙 지사는 지난날 자신이 뛰어들어 직접 보고 들었던 항일투쟁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 외에 많은 지사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며 성북이라는 공간에서 활동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사(志士)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굳건하게 세운 뜻을 용맹하고 지혜롭게 펼쳐 나갔던 사람을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결코 자기자신이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사들의 거룩한 마음을 이번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채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연구원들이 가슴 깊이 느끼고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들었던 어느 말보다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업은 성공한 것이라고 자평합니다. 모든 진심은 통하고, 연결되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구술채록사업이 그런 지사들의 진심을 느끼고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므로, 이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며 발전해 나가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 그 춥고 바쁜 가운데서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독립지사 후손 분들과 내 일처럼 도와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삼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새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북문화원장 조태권

목차

할아버지의 기록을 더 찾고 싶어요 _나중소의 손녀 나영자를 만나다	9
형제들 모두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대요 _이육사의 딸 이옥비를 만나다	27
몸서리치도록 딱 들렸어요 _조소앙의 손자 조인래를 만나다	61
뭔가 복합적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죠 _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사무국장 황우갑을 만나다	95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생각으로 _최용덕의 외손녀 반춘래를 만나다	133
너무 너무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지요 _유우석·조화벽의 며느리 김정애를 만나다	159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 _김의한·정정화의 아들 김자동을 만나다	187
도덕적인 기반이 없는 놈이 테러를 하면 그건 깡패지 뭐야 _이회영·이은숙의 손자, 이규창의 아들 이종철을 만나다	215

할아버지의 기록을 더 찾고 싶어요

_나중소의 손녀 나영자를 만나다

1

독립운동가

나중소(羅仲昭)

출생 : 1867.04.13. 서울 정릉동

사망 : 1928.08.18. 중국 길림성

●
;

아명은 봉길(奉吉), 본명은 영훈(泳薰)이다. 별명은 나비장군이다. 옛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릉리(지금의 성북구 정릉동) 출신으로 16세에 무과에 급제한 후 대한제국 무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대한제국 진위대 부위(副尉)로 재직 중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로 해산 당한 후 1917년 경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9년 3월 선생은 북간도 왕청현에서 서일 등 대중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정의단의 교관으로 무장 독립군을 양성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북로군정서로 개편되자 참모부장에 임명되어 사령관 김좌진을 보좌하며 부대를 이끌었다. 북로군정서군의 사관양성소 교수부장으로 300여 명의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였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 간 백운평과 천수평 등지에서 벌어진 청산리전투에서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의 백발 장교로 참여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청산리대첩 후 북간도를 거쳐 러시아 이만 지역으로 이동하여 1921년 4월 36개 독립군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대한독립단 참모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1921년 6월 자유시침변이 일어나자 선생은 북만주로 돌아왔다.

1922년 1월 안도현 군인양성소 사령관에 임명되어 국내진공작전을 추진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9개 독립군 단체들의 군사통일체로 대한독

립단을 재건하고 전 만주 독립군 단체들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24년 3월 대한군정서가 재조직되었고, 서무부장 겸 참모에 임명되었다.

1925년 3월 영안현에서 신민부가 조직되자 선생은 중앙집행위원회 참모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9월 신민부와 정의부의 연합부대에서 간도의 훈춘, 장백 및 함경도 등을 관할하는 서남로 향관(餉官)에 임명되었다. 1928년 8월 신민부 지방조직을 설치하던 중 돈화현 산중에서 숨을 거두었다.

나영자 여사는 현재 사단법인 독립유공자유족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 나중소 장군의 둘째 아들 나인상 님의 딸로, 장군의 친손녀가 된다. 종로구 구기동 독립유공자유족회 응접실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는 큰고모 나복희(나중소 장녀)로부터 전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 정릉동에 남아 있는 그 분들의 흔적, 젊은 시절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살아 오며 겪었던 어려움들, 광복아파트 거주 시절 이야기, 독립유공자유족회에서의 활동 등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단법인 독립유공자유족회 홍주현 사무국장님께도 감사를 표한다.

구술자: 나영자(나중소 장군의 친손녀, 사단법인 독립유공자유족회 이사, 1939년생)

면담자: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구술일자: 2019. 12. 26.

구술장소: 서울 종로구 구기동 독립운동유공자유족회 사무실

구술시간: 75분

구술녹취: 한승우(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재학생)

구술정리: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소개

- 나영자 이사님의 성함과 태어나신 곳, 태어나신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나영자. 이북 함경도 길주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함경도 분이었는데, 거기는 북선제지라는 종이회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거기 다니셨는데 전근을 오면서 전라도로 옮겨왔어요. 전라도 군산으로.

- 이사님 생년은 어떻게 되지요?

사실은 내가 39년생이거든요. 근데 호적에는 41년으로 돼 있어서 41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39년 10월 4일이거든요. 음력으로.

- 이사님과 나중소 장군님은 어떤 관계인가요?

저의 친할아버지.

- 아버님 성함은?

나, 인 자, 상 자.

- 어머니 성함은?

김, 남 자, 순 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삶

- 이사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내 생애를 얘기하라면 뭐,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래도 해야죠.

- 예, 예. 생각나시는 대로.

나 어린 시절에는 아주 어렸으니까 모르고, 학교가 일본 해방되고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일본말도 제대로 몰라요. 그 후에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그때는 6~7살 때일 텐데, 내가 이제 8살 때 입학을 했대요. 그래서 땡겼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애를, 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니까 맨날 그냥 임신을 하니까 그랬던가봐요. 우리가 커서 알았지. 그때는 왜 엄마가 저렇게 맨날 아픈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콩나물 사다가 뭐를 반찬할 수가 없으니까 죽을 끓여서 날 맥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땡기다가 6.25가 나니까 이제 학교는 그걸로서 끝이었죠. 그래서 더 진학도 못하고 4학년까지 땡기다가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오게 돼갖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

냥고서는 서울로 와가지고 살아야되니까 와서, 응암동으로 갔어요 그때. 그랬는데 다행히 그때로 치면은 영세민들 집 주던 혜택이 있어서 거기 와서 살았는데, 고모가 찾아오셔서 훈장을 탔다고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됐으니까 '니가 타야 된다.'고 하시면서 나한테 전해주셨어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닌 말로 집장사도 해 보고 그래도 또 꼭 위기때만 해 갖고 망하더라고 그제. 그래서 그 조그만 집을 팔아서 또 전세로 오고 또 전세로 오고 전세로 오다가 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철산리, 구로구 철산리. 시흥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그냥 그때로 치면 120만원이었는데 완전유자를 했었어요. 20년 상환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13평 아파트에 살았어요.

독립운동한 집들이 전부 거기 모여서 살았거든요. 다 가난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뭐 심지어는 광복회장 지내는 그 분들도 전부 나하고 같이 그 광복아파트라는 데 살았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한없이 고생들을 했다고요.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그렇게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때 뭐 연금이라고는 8만원인가 8천원인가 그래요.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머니까지 다섯, 나까지 여섯인데. 살 수가 없어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어서 그때 말로 커피방, 사랑방이라 해서 커피방을 했어요. 우리 유족들 상대로. 어디 가서 한담할 때도 없고 그때는 전화 하나만 있으면 다 모일 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차를 팔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81년도까지 그걸 하다가 인제 그 아파트를 팔고서 우리 동생 내가 무슨 목욕탕인지 뭐지 한다고 저 화곡동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도 한 3년 했고. 내가 책임 받고 한 3년 했고.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애들은 안 되겠다, 나는 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다행히 그래도 한글은 알으니까. 뭐 어떻게 됐든지간에 한글은 알아요. 4학년 졸업도 못 했어요

초등학교도, 그러는데도 애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차장사를 하고 목욕탕을 하고 하면서 애들을 다 대학까지 졸업 마쳤어요. 제가요. 애들은 다 막내는 인제 박사까지 다 받고 석사, 박사 받았지만, 둘은 그냥 대학교 나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여자니까 시집가서 살고 그러는데 나이 많은 어머니 혼자 모시고 그러면서, 그냥 고생하면서 살았었어요.

- 1963년에 건국훈장을 추서 받으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국가에서 해 준 거는 연금이랑 아까 그 광복아파트 정도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집을, 그때부터 내 집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참 그 어려운 고통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 지금 독립운동유공자유족회 이사로 계시는데 여기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내가 광복회라는 데서 예전에 행사를 하면은 행사에는 꼭 3.1절, 8.15 무슨 행사, 광복 2지대 뭘 지대, 그래가지고 행사 있을 때마다 다 나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90년대까지도 여기 유족회를 몰랐어요. 근데 보기는 했어요, 회장을. 행사에 다 나오니까 보기는 했어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 단체가 다 있어요. 여기는 유족회니까 김삼열 회장님이 유족회를 운영하는데, 우리 광복회는 애국지사들만 등록이 돼서 유족들은 참석을 잘 안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유족들을 다 돌봐 주고 뭐든지 행사 있으면 같이 나눠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이 하여튼 각처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생한방병원에서도 지원을 받았고, 또 한화금융그룹에서도 지원 받고, 김삼열 회장님이 우리 유족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잘 놀고, 잘 먹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심지어는 국내로 여행을 다하

다 못해서 탐사 여행을 하다 못해서 인제 해외까지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중에서 (독립운동가) 유족 대우해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다보니까, 아무튼 내가 몸들 저기가 여기밖에 없어서 유족회 이사로 있습니다.

나중소 장군의 유해

- 유족회에서 유족들 복지를 많이 신경써 주셨네요. 그러면은 할아버님이신 나중소 장군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으시면서 자라셨나요?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돌아가실 때, 거기 연못에서 3개월동안 굶주리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앞마당에다가 매장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고모(나복희)가 가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모가 불자(佛子)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도 완전히 불자예요. 집에다가 부처님 모셔놓고 할 정도로 불교에 그런 분이라서. 그런데 우리 고모가 거기서 화장을 해갖고 유해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올 때 그 재를 가지고 오셔갖고 지금도 정릉에 있어요. 정릉에 능 앞에 가려고 하면은 거기 가는 길 근처에 보국사라고 있어요. 거기 보국사를 노인들 7명이 합해서 초가집을 사가지고 대한염불회라고 해갖고 창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할아버지 위패를 모셨어요. 우리 고모가.



나중소 장군의 위패를 모셨다는 정릉2동 보국사





나중소 장군의 마님이자 나영자
이사의 큰고모 되시는 故나복희
여사(가운데)가 나온 신문 기사
(사진제공 : 나영자)

그랬던 거를 90년대 돼서 또 저기 국립묘지
에 안장하는 데 그거를 추진해서 또 하라 그러고,
독립기념관도 세우게 되니까 거기다 어록비도 세
우라 그러는데 어록비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못
했어요. 거기서 돈을 조금 대준데도 나도 그만큼
대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서 그때는. 애들 다 공부할 때니까. 그래서 그거
는 포기하고 국립묘지에는 안장식을 했죠.

며칠 전에는 또 나중에 내가 인제 나이가
먹고 언제 갈 지 모르니까 우리 가족 이름을 전부
이거를 떼어가지고 비용을 따로 내고 전부 가족
우리 증손자까지 다 올려놨어요. 며칠 전에. 나중
에는 설명도 못해주고 듣지도 못하니까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찾아오면 그런 줄 알아라 그러고, 그거까지 다 마쳐 놓은 상태예요.

- 고모 성함이 그러면은 복자, 희자……

예. 나복희.

나중소 장군과 정릉동

- 나중소 장군님 본적이 정릉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
지요?

정릉동 603번지예요. 호적상에도 603번지로 돼있거든요. 옛날에 고양군 송
인면. 정릉 왕비 능이잖아요. 거기 올라가기 전에 보국사라고 있는데 그 보국사 주

차장 밑에예요. 근데 아주 움막같아요. 기와만 올려져 있지. 그니까 옛날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밑으로 낭떠러지 집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서 계셨다는데 저희 할머니 이름은 손씨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좀 찾아라 그
랬더니 못찾겠더라고요, 나는.

나중소 장군의 부인, 밀양 손씨

- 그러면은 할머니께서는 밀양 손씨신데 장군님께서 만주에 망명하신 이후에는
정릉동에 남아 사셨나요?

예. 혼자 남아서 사셨다고. 우리 할머니는 조그만하셨대요. 그리고 인물도 좋
으셨고 궁(宮)엘 자주 드나드셨대요. 할아버지가 (무과) 급제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나중에 민비 돌아가셨을 때도 궁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모가 얘기하기
로는. 어머니가 예전에 자기를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야 상궁들
그런 사람들 알아가지고 다니셨다는 거 얘기만 들었어요.

- 그럼 이사님도 할머니를 뵈는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못 뵈죠. 할아버지도 못 뵈고.

나중소 장군의 모습과 독립군 활동

- 나중소 장군님의 인품이나 평소 생활모습 같은 거 들으신 바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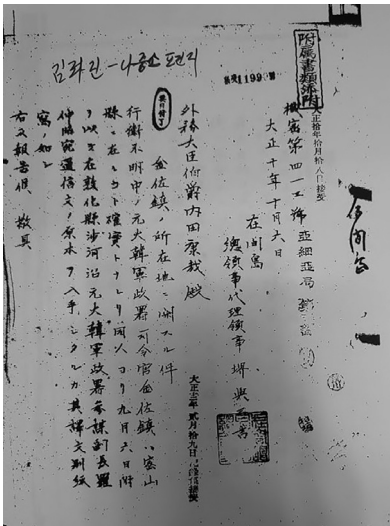
할아버지가 굉장히 체격이 키도 크고 체격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 중에 내가 제일 작아요. 우리 딸들도 아버지가 키도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

금은 인제 나이가 먹으니까 줄어갔고 한 10센티 줄어 더 작지만, 162가 됐는데 애들은 다 170이 넘어요. 여자아인데도. 그래서 큰테 할아버지가 그렇게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축지법 써서 날라댕기고.

- 장군님께서서는 1917년에 만주로 망명을 하셨는데, 망명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얘기하는데 고양군하고 파주하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때 철도 공사를 했다 그래요. 그때 땅이 많았었대요. 그걸 다 뺏어다가 철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움막에 살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라에 이바지하겠다고 그러면서 망명하셨다고 그래요. 고모가.

- 그럼 자녀분들은 같이 데리고 갔나요?



김좌진 장군이 나중소 장군에 보낸 편지 내용. 일제 정보기관에서 편지 내용을 입수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사진제공 : 나영자)

아들 둘만 데리고 갔다고 나오죠. 나중에 큰고모, 작은고모는 할아버지가 가셨으니까 갔겠죠. 그러니까 만주에서 거기서 살고. 또 큰고모도 돈화현(敦化縣)에서 살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디 시집을 가서 그쪽에 가서 살았대요. 그랬다가 나중에 나오신 거죠, 한국에.

- 망명 이후에 본국에 남은 가족들은 궁핍하게 이렇게 어렵게 사신 거죠?

어려웠죠. 그럼. 보나마나 어려웠죠. 어렵게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끈 북로군정서군. 맨 앞에 앉아 있는 이는 김좌진 장군이다. 나중소 장군은 1919년 3월 북간도 왕청현에서 독립운동단체 대한정의단 교관으로 초빙돼 무장독립군 수백명을 양성했고 같은 해 10월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북로군정서가 조직되자 사령관인 김좌진 장군을 보좌하며 부대를 이끌었다. 이듬해 10월 장군은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의 연합부대가 만주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 정예군 1천200여명을 사살한 청산리대첩에 참가해 빛나는 무공을 세웠다.

- 그러면은 만주에서 나중소 장군님께서 활동하실 때 이야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고모도 같이 지내지 않아서 모르고, 둘째 고모가 같이 할아버지하고 계셨다는데 그 고모는 내가 만나 본 적이 없고, 만주에서 안 나오셨으니까, 모르죠.

- 청산리대첩 때 김좌진 장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고모가 이갑성 씨니 오강선 씨니 뭐 이런 분들, 지금은 애국지사 분들이죠, 그분들이 순국선열도 되고, 그분들한테 다 보증을 받았더라고요. 고모가 유공자 신청할 때,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얘기 듣고 수집을 해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맡겨놔요면 못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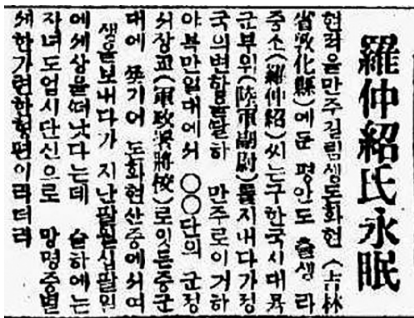
나중소 장군의 영면

- 아까 그 나중소 장군님 돌아가실 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일본군에 쫓겨 숨어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특히 할아버지가 불교공부를 했으니까 항상 중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낚시로 가장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무도 누가 밥 갖다주면 잡혀가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변장하고 낚시하면서 3개월을 그렇게 사시다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시신을 매장해준 분이 자기도 잘 아는 처지고 좋은 일 하신 분이요 하니까 그냥 앞마당에 매장했다고 해요. 고모가 그래요.

- 낚시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건가요?

예. 그대로 굶주려서. 비쩍 말라서 가셨대요. 그렇게까지만 얘기해줘서 알아요.



나중소 장군의 서거를 전하는 신문기사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에 조성한 나중소 장군 묘역

- 돈화현에서 돌아가신 거고요.

네.

- 그러면 유해는 돈화현에서 해방 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만주에서 나오시면서 거길 들렀더니 거기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를 알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알고, 돌아가셨다니까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해를 화장을 해갖고, 화장을 어떻게 했다는니 얘기는 않더라고요. 뭐 절식으로 했다는니 하든지 보통 화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갖고 그 재를 가지고 오셔서. 근데 절에도 자기 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위패 모시면서 했는데, 인제 여기 보국사에 정착하면서 거기다 했다고……. 그래서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 125번에 거기 안장되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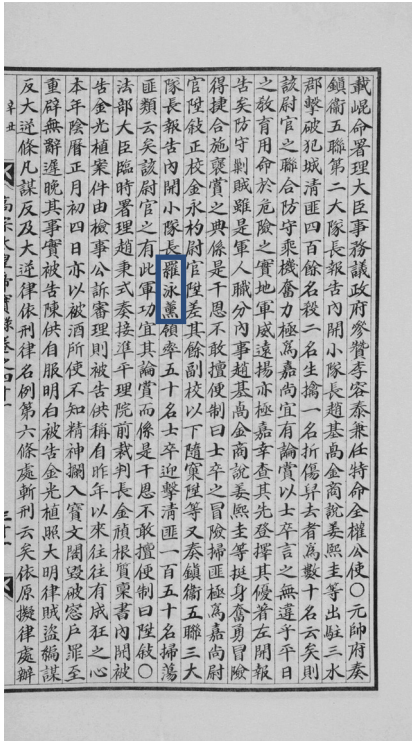
- 하나 더 여쭙볼 건데 둘째 고모가 북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고모 소식은 아예 못 들으신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둘째 고모는 할머니를 닮아서 키가 작았어요. 큰고모는 근데 막 할아버지 닮아서 컸다 그래요. 남자같이 컸대요.

나중소 장군의 기록 찾기

- 앞으로 나중소 장군께서 알려지고 그러면 저희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군님께서 알려질 때 어떤 점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알리는 것을 확실히 하려면 급제했던 것 기록하고, 이력서 쓴 것도 있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과에서



나중소(나영훈)이 대한제국 장교로 복무할 때 세운 군공(軍功)을 전하는 『고종실록』기사(제41권, 고종 38년 5월 17일 陽曆 2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아뢰기를, ‘진위 5연대 3대대장의 보고를 보니, 소대장 나영훈(羅泳薰)이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청나라 비적 150명을 맞아 격파하여 비적들을 소탕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위관이 이런 군공(軍功)을 세운 만큼 응당 보상해야 하나 은전을 구하는 일에 관계되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제책을 내리기를, ‘승서하라.’ 하였다.”

급제했던 거하고 연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꼭 찾고 싶고, 그리고 일본 이 할아버지를 수배할 때 현상금 만원을 걸었다는데 그것도 기록을 좀 찾고 싶어요. 또 고종 당시에 진위부 부사를 지냈다는데, 함경도 관찰사로 있고 했다는데 그 기록도 확실히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집안 내력도 좀 알고 싶고, 뭐 다른 건 없어요. 이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기록들이 어디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북구 정릉동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신 만큼 앞으로 열심히 나중소 장군님의 기록들을 찾아 보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중소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나영자 독립유공자유족회 이사



인터뷰 후 기념촬영

형제들 모두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대요

_이육사의 딸 이옥비를 만나다

2 독립운동가 이육사(李陸史)

출생 : 1904. 5. 18, 경북 안동

사망 : 1944. 1. 16, 중국 베이징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다. 본명은 이원록(李源綠) 또는 이원삼(李源三)인데, 원삼은 주로 집안에서만 불리던 이름이다. 이육사는 수인번호 264번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자로는 大邱 二六四, 戮史, 肉瀉를 사용하다 최종적으로는 陸史를 사용했다. 이활(李活)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였다.

어려서는 할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웠고 보문의숙에서 수학하였으며, 보문의숙을 공립으로 개편한 도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훗날 처가가 있는 영천의 백학학원에서 공부하였다. 그 후 1924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수학하였으며, 1926년에는 북경 중국대학 상과 혹은 중국대학 사회학과에 재학하였다.

1927년에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1년 레닌의 탄생일을 기해 대구에 뿌려진 격문 사건으로 예비검속되어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피의자로 구속되었다가, 그해 3월 불기소로 출소하였다. 1932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학하였고, 1933년 1기생으로 졸업하였다. 1934년 3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출신자라는 이유로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성북구와의 인연은 1939년의 일로 알려져 있다. 이육사는 은평구와 종로구 명륜동, 중구 신당동 등 서울의 여러 곳에서 머물렀다. 종암동 62번

지에는 그의 본가가 있었는데 이육사가 종암동에 머문 것은 그 때문이다. 1939년에는 「청포도」, 1940년에는 「절정」, 「광인의 태양」, 「교목」 등을 발표했다. 딸 옥비를 낳은 곳은 1941년 명륜동에 머물던 시절이다. 이후 중국으로 떠났던 이육사는 1943년 어머니와 형의 소상(小喪)을 치르기 위해 일시 귀국하였다 체포되었으며, 다시 베이징에 위치한 일본총영사관으로 이송되어 구금되었다. 1944년 1월 16일 일본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그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같이 수감되어 있다 먼저 출소한 독립운동가 이병희 선생이다.

이번에 인터뷰 한 분은 그의 따님, 이옥비 (사)이육사추모사업회 상임이사이다. 이육사는 이옥비 이사 위로 각각 아들과 딸 한 명을 두었으나 모두 일찍 사망했고, 남은 후손은 이옥비 여사가 유일하다. 이옥비 여사는 결혼 후 평범하게 활동하다가, 뒤늦게 아버지 이육사 선양사업에 뛰어들었다. 여사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많지 않지만, 어머니와 삼촌들 그리고 친지들과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인터뷰는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2월 성북문화원 직원들이 이옥비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진행한 즉석 면담의 구술 자료도 함께 실었다. 이 자료에서는 옥비라는 이름의 뜻, 유해를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한 이야기, 이육사 문학

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 육우당에서 들은 이야기

구술자: 이옥비(이육사의 따님·사단법인 이육사추모사업회 상임이사, 1941년생)

면담자: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구술일자: 2019. 11. 23.

구술장소: 경북 안동시 도산면 육우당(이육사 생가 복원 건물)

구술시간: 76분

구술녹취: 인서열(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구술정리: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소개

- 일단 이 인터뷰를 보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저는 이육사 문학관에 있는 육사 선생님 딸인 이옥비입니다.

- 이육사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여사님이 만으로 세 살 정도 됐나요?

예. 만 세 살, 우리 나이로는 4세였어요.

- 예. 그러면 이육사 선생님에 관한 여사님의 기억은 본인의 기억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던 것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누구누구를 통해서 많

은 지식을 얻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통해가지고 듣고요, 또 삼촌으로 통해 듣고, 그리고 아버지 친구들 통해 들었어요. 문단에 계신 석초(石艸) 선생님이 이야기 해주신 것과 또 이정기(李定基) 선생님이 이야기 해주신 것도 있어요. 아버지 친구 분들이 수시로 오시죠. 그러면 뭐, 너희 아버지는 어땠다 뭐, 이런 이야기. 조재만(曹再萬) 선생님도 저희 집에 연고가 있어서 오시고 이래서. 어머니 외가 쪽하고도 또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 도 자주 오시고.

- 그러면, 아버님 친구 분들은 해방 이후부터 50년대 이후까지 쪽 남쪽에 계셨던 분들이고, 삼촌은 전쟁 전에, 어릴 때 짧게 뵈었겠네요.

어릴 때, 일주일에, 한 달에 세 번, 네 번 꼭 오셨거든요. 삼형제 분이. 우리는 대구가 있고, 삼촌들은 서울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위로하려고 오시면, 뭐, 술도 가르치시고, 담배도 가르치시고. 또 제게, 아버지가 학교가 어디를 나왔냐고 물어, 그거를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런 거. 그럴 때, ‘누가 물었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연습도 해 주셨어요, 세 삼촌들이.

- 그리고 오늘 질문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범주로 나누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척 중에서 직계 형제들도 있지만, 사촌, 육촌 형제들에 관해서도 제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하겠습니다).

육사의 가족

- 첫째는 육사 선생님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여쭙 보겠습니다. 둘째는 친구분들에 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친구인 신석초 선생님을 중심으로 남쪽에 살아계신 분들이 육사 선생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육사 선생의 형제들은 또 북으로 많이 가셨기 때문에 육사와 그 형제들의 친구 분들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사 선생님의 서울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한 곳에만 사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옮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 설명하도록 하면, 할아버님 함자가 ‘가(家)’자, ‘호(鎬)’자이지 않습니까?

예, ‘가(家)’자, ‘호(鎬)’자. 직계, 바로 우리 조부시고, 우리 집안에서는 옛날에 우리 증조부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학교도, 우리 가문에 있는 학교, 보문의숙(寶文義塾)이라는 학교를 설립할 때, 앞장서가지고 일하셨죠. ‘중(中)’자 ‘직(植)’자 어른이세요.

- 기록을 보면, 할아버님 말고, 할아버님의 형제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삼촌 되시는 대구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를 지내신. ‘세’자, ‘호’자 어른. 호는 청안이었습니다. 따님도 없으시고 두 분만 계셨습니다.

- 제가 해방 이후까지 활동을 보니까. 집안 형제분 중에서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돌봤던 분 중에 ‘규’자, ‘호’자 선생님이 계시던데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규’자, ‘호’자 쓰시는 어른은 우리 아버지하고는 재종 관계예요.

- 그럼 이규호 선생님과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할아버지하고는 육촌이 되요. 그분이, 정말 많이 보살펴 주셨어요, 우리 바로 직계 어른들 중에서 굉장히 학덕이 높으신 분이예요. 호는 우송입니다.



육사의 외삼촌 허규
(사진제공 : 이육사문학관)

- 이규호 선생님은 서울에 정착을 언제 하셨나요?

아버지가 서울 갔을 때 같이 이미 서울에 있었죠. 정릉과 수유리 쪽에 계셨어요.

- 그러면, 아버님이 군관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서울에 오셨고 그때가 34년이니까, 이규호 선생님은 그 전에 오셨나요?

그 전에 먼저 오셨어요.

- 그러면 서울에 간다면, 아버님이 찾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이규호 선생님입니까?

예. 그리고 외가 쪽으로 허규(許珪) 선생님이 계셨어요. 허규 선생님도 서울에서 계셨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대구 약전골목 근처에도 계셨거든요. 우리 종조부도 거기 약전골목 근처에 계셨고요.

- 그러면 허규 선생님도 아버님 돌아가실 무렵에 많이 의지했던 분인데, 그 무렵에 어디 사셨나요?

수유리에 사셨어요.

- 그러면 이규호 선생님이랑, 허규 선생님이랑 가까운 거리에 살았던 겁니까?

그런데 알기는 알지만, 사가(査家=사돈집)의 어른이지않아요, 그래서 서로 자주 왕래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독립운동 쪽은 허규 선생님이 알려주셨지.

- 허규 선생님을 통해서도 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우리 5촌, 아버지 외사촌 동생(허규 선생 아들)이 아직 있거든요. 저보다 세 살 아래예요. 근데, 허규 어르신이 아들이 없이 딸만 있다가 아들을 낳았는데도 허규 선생님이 웃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대요. 우리 아버지를 잃은 직후에 태어났으니 그만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 넷째 삼촌, 여천 이원조 선생님이 허규 선생님 비서로 계셨는데, 허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일에 최선을 다했대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기는 이제 사랑을 안 준다 해가지고 반항을 했대요.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삼이, 원삼(源三: 이육사 시인의 다른 이름)이라고 갈나고 말썸하셨대요. 그만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신 거예요.

- 네. 그러면 아버지 형제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떠올리면 제일 기억나는 삼촌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여천 선생(이원조)이죠. 너무 잘생기기도 했고……. 그런데 삼형제가 다 멋쟁이였어요. 그리고 원일(源一). 서예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삼형제가 대구에 땀다 하면은 사가(四街)의 청년들이 다 몰렸대요. 또 우리 형제분들이 모두 해박한 지식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면 다 물리는 거예요. 물러가지고 밤새 토론하고 그러셨대요.

- 그러면 순서대로 이원조 선생님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쭙보겠습니다. 이원조 선생님의 장인이 이관용 선생이시고. 그 이관용 선생님한테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아들은 아파, 그, 서(庶)에서 낳았을 거예요. 딸 둘은 정실에게 낳았고.

- 이관용 선생님은 철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종로6가 낙산 밑에 사셨다고 하는데, 1933년 여름에 해수욕 가셨다가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예, 들었죠.

- 예. 알겠습니다. 그 때 당시 신문 기록을 보니까 이관용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족들한테 연락해야 돼가지고, 큰 사위인 이원조 선생님 응대하고 하셨다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죠.

- 이원조 선생님이 유학을 갔다 중간에 와서 결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모님 말씀하시는 ‘국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유학 중에 오셨는데, 이관용 선생님이 여천 선생님(이원조)을 너무 마음에 들어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딸이 있는데, 네가 3개월만 들고 다녀 봐라.’ 이러셨대요. 그때 그런 생각할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우리 집하고 너무 차이가 났어요. 우리는 시골의 선비 집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왕실 사람이고, 그래서 ‘아, 나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할 수 없다’ 이랬더니 ‘사람이 한 번 보고 그러면 안 된다. 한두 달만 더 들고 다녀 봐라.’ 해서 혼사가 된 거예요.

- 그러면 혹시 어른들 이야기 통해서 정인보(鄭寅普) 선생님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많이 들었죠.

- 자료에 보면, 이원조 선생님이 20년
대 말에 교남학교(嶠南學校)를 졸업
하고 일본 유학하기 전에 서울에 올라
가서 정인보 선생님한테 한문을 배웠
다는데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것도 배웠고, 원래 정인보 선
생님한테 어릴 때, 9살 이전이었어요. 글
을 써 가지고 보냈는데, '조선에도 이런
천재가 있었나'해서 서문을 달아 보냈거
든요. 그래서 그게 유명하죠.



이원기. 육사의 만형으로 많은 식구를 거느리며
동생들의 뒷바라지에 힘을 쏟았고, 그 자신도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유공자로 포상되었다.
(사진제공 : 이육사문학관)

- 이원조 선생님은 결혼하고 난 다음
에 해화동에 살다가 자하문 밖 홍제
동으로 이사하신 건가요?

홍제동으로 가죠. 우리도 그 사실은 문화촌, 거기에 가봤잖아요. 기자촌이 거
기, 언덕바지에, 제가 나기 전에 언니가 하나 태어났거든요. 언니는 거기서 태어났
어요.

- 그러면 삼촌이 해방 후 활동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들은 이야
기 중에서나.

음, 그, 6.25 때 오셨을 때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그 때는 권세가 세시더라요.

- 그때 이원조 선생님 만났던 분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천에 오셔가지고 형제끼리 만나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 그러면 여사님이랑, 어머니는 그때 대구 쪽에 있어가지고 직접 만나지는 못하셨겠네요?

그때 만나지는 못했지……. 한창 내려오다가, 인천상륙작전이 있고, 북한군이 후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없었어요.

- 왔다는 연락은 받으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피난을 가 있었거든요. 영천 쪽에.

- 이원조 선생님이 굉장히 진보적이었는데, 생활면에서는 무척 보수적이었다고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 한 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냐면 그런 게, 우리 숙모님은 굉장히 개화된 집이잖아요. 왕실이라도, 덕혜옹주 육촌 동생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러니까, 우리 숙모님이 늘 그랬어. 우리 집의 제일 멋쟁이고, 한 사람은 둘째 아주버님이라고. 하하. 그랬다고 그래요.

- 그러면 이원조 선생님은 그, 북쪽으로 가실 때 가족을 다 데리고 갔습니까?

삼촌이 먼저 가시고, 우리 숙모가 똑똑하니까 아이들 오, 육남매를 데리고 북으로 넘어갔어요.

- 그러면 이제, 다른 형제분 이야기 한 번 여쭙보겠습니다. 육사의 바로 아랫동생인 이원일 선생님입니다.

예. 항상 같이 다니셨죠. 삼형제가 대구에 오실 때도 같이 오시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집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원일)은 마룻바닥에다가 항상

물을 갖다놓고 글씨를 쓰셨대요.

- 글씨를 잘 쓰시고 한학에도 조예가 깊으시죠?

예. 조예도 깊고, 또 그거, 그림도. 난(蘭)하고, 대나무 그림이 유명해요. 저기, 하나 있을 거예요. (난 그림을 찾고) 이거는 난이죠. 이거 우리 삼촌이 그리신 건데, 대나무도 굉장히 힘차요.

- 혹시 그러면 이원일 선생님이 해방 이후에 어떤 활동했는지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뭘, 그때 넘어왔을 때, 그, 재산을 뭐라 그럴까, 등급을 매기는 거. 그런 거 하 시더라요.

-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내려오셨죠?

예. 같이.

- 그러면 이원조 선생님과 이원일 선생님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원조 삼촌은 굉장히 임기응변도 좋고요, 재치도 좋아서 좌중을 깜짝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해요. 우리 셋째 삼촌(이원일)은 굉장히, 글 쓰는 사람이라 그런가, 굉장히 정적이에요.

- 아버님하고 좀 성품이 비슷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원체 무서워가지고, 형제들도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의가 좋아도, 진짜 할 이야기는 아무도 못 한대요. 그래서 외사촌누나 있는 데 가서, 형님이 이러이러한데 그걸 좀,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면 안 되나 이야기해가지



이육사. 1941년 북경으로 떠나기 전 친구들과
사촌들에게 나누어준 사진이다.
(사진제공 : 이육사문학관)

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 예. 그러면 그, 막내삼촌, 그러니까
여섯째(이원홍)는 일찍 돌아가셨고.**

예. 화가였는데. 그 동생이 굉장히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겁을 내니까. 그래서 아
버지가 ‘그러면 네가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림이 그리고 싶다고 하셨데
요, 그때도 아마 그림을 배우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됐나 봐요. 그러니까 서병호
선생님한테 아버지가 가서 ‘우리 원홍(源

洪)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그런 능력이 되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3개월만
맡겨 놔봐’, 이래서 맡기셨대요. 근데 한 달 뒤에 어, 아버지가 이제 들르실 일이 있
어 가지고 들렀는데, ‘애가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뭐 1년도 안 돼 상을 탔는데,
형제들이 좋아서 축하해주다가 그날, 뇌일혈로 돌아가셨대요. 아깝죠, 열아홉 살에
갔으니까.

- 결혼하기 전에 돌아간 거죠?

네. 결혼하기 전에.

- 이원창 선생님은 조선일보 인천지국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국장 하셨어요.

- 그러면, 누구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순서를 모르겠고, 이제 우리 삼촌이 옛날에, 형제 분들이 다 글을 잘 쓰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삼촌이 뭐 어디 가서 글을 너무 좋았다고, 원창 삼촌이 글을 써 놓은 거, 잘 썼다고 그 정도, 셋째 아버지하고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한다니까 그랬다고……. 하하하.

- 이원창 선생님은 해방 후에 활동할 때,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조봉암 씨 비서를 했다는데 그 이야기 좀 들으셨습니까?

어,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알았죠, 어릴 때부터.

이육사의 주변 인물

- 이제 육사 선생님의 서울 시절 주변 인물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원조 삼촌이 혜화동 5-1번지에 사시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안호상 씨하고 삼촌 원조 집이 우물 하나를 반을 해 가지고 안호상 씨는 이쪽에 쓰고, 이쪽에는 우리 삼촌이 썼어요. 그때 모운숙 씨가 분마누라 쫓아내라 그러고 안호상 씨하고 살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숙모도 굉장히 신세대여서 두 분이 친하게 지내시며 불파마를 하



육사의 형제들. 왼쪽부터 이원창, 이원일, 이원조. (사진제공 : 이육사문학관)

셨나 봐요. 그런데 삼촌이 까다로우시거든요. 그거 당장 풀라고 해서 풀라고 감으면 그때는 볼파마가 더 오그라들어가지고, 수건을 쓰고 다니셨다고. 하하.

- 신석초 선생님도 명륜동이랑 혜화동에 사셨죠?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 가깝게, 아주 가깝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 그러면 혹시 어머님이나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명륜동에서 같이 살 때 있었던, 알려진 사람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집에 드나들거나, 뭐, 같은 동네 살았다거나 하셨던 분들이요.

석초 선생님은 집에서 만나지는 않으셨대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니깐.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석초 선생님한테.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시는 걸 알았나?’ 그러니까 ‘나는 물어보지를 않았단다’고…….

그리고 (두 분이)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시고, 가시면서 ‘내가 이번에 한 달 포 걸릴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왜 더 안 물어보셨나고 물어봤더니 ‘나는 나약하고 그래서, 만일 육사가 그러면, 왜경이 달려들었다 그러면, 내가 약해서 토설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걱정이 돼서, 친구를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단다’, 그러더라고요.

- 신석초 선생님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혹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말고 최근에 새로 알거나 기억나는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어, 없어요. 저는. 그 며느님이 저하고 왕래가 있거든요. 그래도 며느님도 석초 선생님도 오래 사셨잖아요. 근데 석초 선생님의 아들이 일찍 가버렸어. 그래서 책 같은 걸 마무리 짓고, 이런 걸 며느님이 직접 못했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그걸 다 했대요. 그때 시동생이 LG에 계셨대요. 내가 왜 그걸 궁금해 했냐면 아버지가 마지막으

로 난초 친 걸, 석초 선생님한테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두 번째 작품이.

- 지금 알려진 기록에 의하면 신석초 선생님이 명륜동에도 살았다 그리고, 혜화동에 살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또 새로 자료를 보니까 성북동 주소도 하나 나오는데…….

예. 그때 성북동도 살았다는 얘기는 들었었죠. 그랬는데 명륜동에도 각각 이제 뭐, 그 옛날에는 집을 막 옮겨 살고 그랬잖아요. 안정감이 없으니까.

- 아, 이야기를 듣긴 들으셨군요. 신석초 선생님 말고 아버님이 해방 전에 가장 친했다고 하신 분이 이병각(李秉珪) 선생이지 않습니까?

예. 이병각, 가장 친했다고 했는데, 친구 중에서 몸이 안 좋으니까. 아버지도 폐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병간호를 많이 하셨대요. 다른 친구들은 폐병 옮긴다고 오자마자 가버리고 그렇잖아. 그런데 따님이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육사만이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그랬다고.

- 자료를 보니까 이병각 선생님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 하는 조선중앙일보의 기자였거든요. 삼촌은 조선일보고. 이런 관계가 아버님이 신문에 투고하고 글 쓰는데 많이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음, 아니에요. 조선중앙일보는 몽양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삼촌도 다 몽양 선생님하고 교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셔도 몽양 선생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문을 써서 오잖아요. 몽양 선생님도 써 오셨대요. 근데, 그때 경찰이 들이닥친 거야. 어머니가 아궁이 밑에 고리에다가 그 옛날에 반질 고리에 담아놓은 제문들을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앞사귀에다가 불을 피운다고 피웠는데 바람이 잘 들어가죠. 그거 다 타버렸죠.

- 이육사 관련된 기록을 보니까 할아버님(이가호)이 돌아가실 때 조문객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하면서 실명이 막 거론되는데. 그 자료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천 명이 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 많이 왔어요. 그때 다 아마 형제들이 다, 경황이 좋을 때잖아요. 명예라도 좀 알려지셨고, 막 이랬기 때문에.

- 이, 자료가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그때 큰아버지(이원기)도 다 살아있을 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 그게 보니까 뭐, 이태준(李泰俊)도 왔고, 정인보, 홍명희…… 뭐 다 왔다고 그러는데요?

뭐, 다 왔어요. 근데 막상 아버지 돌아왔을 때는 많은 분이 오지는 않았죠. 기억나는 분은 조규인이란 분이예요. 어린 시절에 사진을 보는데 어떤 남자 분이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엄마,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는 한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양복을 입었네, 이상하다’, 내가 그랬더니, ‘엄마가 그 분이 창녕 조씨 무슨 집안인데 굉장히 부자여서 아마 너희 아버지 있는데 군자금을 줬을 거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은신을 위해서 파락호처럼 막 술 먹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언젠가 그 아들이 지금 교장 선생하시다 퇴직하셔서 저희한테 사진을 가져왔어요. 내가 그 어른이 혹시 와세다 대학 다니신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는 보결로 들어간 거라고. 하하.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 그렇죠. 그때는 보걸 내지는 청강생들이 많았던 시절이니까요.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틀림없이 아버지 군자금을 대신 분일 거라고, 그렇게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니깐,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 여자만 좋아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 그러면 그 친구 분들 중에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만 한 장씩을 줬다가 싶었더니 10명의 친구에게 줬대요. 그게 이제 이번에 밝혀졌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한 명도 안 나타났다, 하면서 다 자기 목숨 살려고 그랬다면서 그렇게 와서 술을 잡수시고 그렇게 서럽게,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 오히려 안 나타난 분들이 분단 사회에서, 남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육사 장례식에 갔다가 울고…… 친구가 갔는데도 그놈들이 자기 목숨 살려고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었다고 그런, 그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 장례식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쭙보는데, 장례식을 할아버님이랑 할머니이랑 큰아버님은 다 종암동 본댁에서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댁이 시골로 내려가고, 그리고 서울에는 이원조 선생님이랑, 이원일 선생님이 계셨는데 부고장을 보니까 상주는 원일, 원조, 원창인데, 호상처는 성북동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최홍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분, 우리도 알고 막 그랬는데, 그 문학계에서는 옛날에 알아주는 사람이
래요. 작은 인물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래서 뭘 정확하게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
어요.

육사의 서울살이 - 부인과 가족들의 이야기

- 그러면 그 가족관계를 좀 더 여쭙보겠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산
것보다 떨어져 산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아버님이 서대문 형무
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정착을 하시는데 같이 사신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문화춘 있을 때. 큰딸, 나보다 한 살 위거든요, 큰딸이 있을 때부터, 아버지가
합쳤죠.

- 그때, 올라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 전에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데 저녁 인사 문안. 아침에 돌아오면 문안. 딱 조양회관에 가서 주무시고 그랬
어요.

- 기록에 보면 아버님이 어머님도 불러서 가서, 되게 혼나고 그랬었다고 하는데
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때 아기를 가졌어요. 언니를 가졌을 때인데, 아기를 금
방 가지면 배가 부른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따귀를 때리
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너희들, 고발하겠다. 천황한테 고발하겠다.' 그러니
까,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임부인데, 너희들이 던지고 이렇게 하면 애가 목숨을
잃는 거,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랬는데 몰랐다고, 미안했다고, 그 때에야 그러더

래요. 그리고 풀러나서도 경찰들이 우리 어머니를 하도 찾아오니까, 몸서리가 나서, 나는 소박테기라서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체포되니까 할 수 없이 잣죽을 끓여가지고 사식을 대려고 갔더니, ‘당신, 여기 왜 왔냐고, 소박테기가.’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어떤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남편이 위급할 때는 오는 법이다.’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육사의 부인 안일양 여사
(사진제공 : 이육사문학관)

- 어머님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사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부터 어머님이 주로 생계를 책임지셨잖아요? 육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계속 밖으로 도셨으니까. 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셨나요?

하숙 생활, 샅바느질. 우리 어머니가 열두 가지는 더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 집이 열한 칸이었거든요? 방이.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다, 미장일도, 연탄 아궁이도 다 우리 어머니가 손수 하셨어요.

- 육사 선생님이 재동에 한 몇 년을 사셨던 것 같은데. 어머님도 아버님이 재동에 사실 때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까?

음, 왜냐하면 재동에 그제, 안동 김씨들이 득세하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동 말고 또 살았던 곳으로 알려진 데가 흥제동, 신당동 등인데요.

신당동 때는 우리 식구들이 다 안 갔을 때였을 거예요.

- 혼자 사실 때였죠? 이야기 들은 건 없나요?

그런 건 잘 몰라요, 제가.

- 기록에는 신당동에 한 38년, 39년 정도까지 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 그러면 신당동에 혼자 사시다가, 홍제동 갈 때 어머니랑 같이 사셨고. 그 때 언니 하나 태어났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집도, 함경도 아주 갑부가 그 집을 자기 아들을 맡기려고 사주셨대요.

- 홍제동 말씀이시죠?

예, 예.

- 여사님이 어디 다른 데 인터뷰 하신 것을 보니까 몇 번째 집,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요?

예, 일곱째 집. 아홉 채가 있었는데 일곱째 집인가 여덟째 집이었다고 들었어요.

- 당시는 다 양옥이었죠?

양옥. 그때는 양옥으로 지었죠. 문화주택이라는 신식 건물이었어요. 경치는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돌인가를 우리 집에다 맡겨놓았대요. 아버지는 ‘나는 가르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림자만 옆에 있어도 교육이 된다.’ 그랬대요.

- 그러면 거기 사시다가 명륜동으로 이사한 건가요?

명륜동이, 이제 제가 났을 때. 41년도죠.

- 그러면 명륜동에 살 때, 골목이라든가, 집 풍경이라든가 혹시 이런 거 들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 창경원 돌담 있는 데였어요. 돌담이 가까웠고 한옥이라는 것이 기억나요.

왜냐하면 한옥은 돌담이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그마한데도, 한옥에 있으면 경찰들이 와서 지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경찰들을 피해 학교 앞에 가도 빙빙 둘러갔어요. 경찰서 앞을 안 지나가려고.

- 거기 집이 있고, 저도 지면을 찾아서 보니 구조가 뒤에는 창덕궁 높은 담이고, 앞 쪽으로 성균관이 보이는 자리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봄이 되면, 벚꽃이 이제 바람 벚꽃이 날아와 가지고 우리 대청마루하고 뗏돌에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우리 어머니는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 그러면 서울에서의 기억은 제일 지금 많이 남아있는 곳은 명륜동이세요?

음. 명륜동이에요. 저는 명륜동이에요. 근데 언젠가 제가 한 7년 전에 가니까, 그 집 문이 열려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갔어요. ‘실례합니다’, 소리도 안 하고. 근데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보니까, 우리 옛날에 살던 집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 여사님이 태어나시기 전이긴 한데, 혹시 종암동 시절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별로 들은 것은 없는데…… 그 집이 폐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멋도 모르고 식구가 많고 그, 한옥이 굉장히 커서 사려고 보니까 돈이 싸더라요.

- 그래서 싸게 샀다는 거죠?

어, 싸게 샀대. 그런데 어떤 스님이 오시더니, 동티가 났다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동티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가서,

어머니가 그랬대요.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야, 사랑에서 하시는 일을 어찌 아녀자가 관여를 하냐고, 가만 놔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안동으로 모실 때, 보니까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할아버지 두개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100m 넘어서 이렇게 하니깐 우측으로 기울어져, 아파 물이 지나간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때 우리가 장소를 조금 옮겼으면 어떨까, 식구들이 괜찮았을까…….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들은 적이 있어요.

인간 이육사

- 혹시 아버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음,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던 부고를 받던 날이 우리, 외가에 행사가 있었어요.

- 그러면,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서울에 계실 때 아닙니까?

서울에 있었죠. 다 내려왔던 거지. 잔치라서 웅성웅성하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어머니가 머리를 풀고 그러면서 곡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른이 울면 나도 따라 울잖아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울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모르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죠, 서울로 가니 벌써 우리 다섯째 삼촌은 시신을 운구하려고 간 뒤였어요.

- 많은 인터뷰에서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때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규호 할아버지한테 저를 맡기고 간 거예요. 너무 어리



육사의 시신을 수습한 이병희의 수감 당시 사진(1937년).
(사진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생각에 '다시는 남편이 못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규호 할아버지는 동아일보 출입기자고 세계정세를 잘 아시니까 '지금 한창 일본이 막바지인데 육사를 조선에서 북경으로 이송하는 거는 좋지 않은 징조다,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한 번 만나게 해주자',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저를 데리고 청량리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동대문경찰서에서 아버지를 마중해서 오셨어요. 아버지가 그, 포승줄에 뽐뽐 묶여 있고, 얼굴에는 밀짚으로 된 용수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저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기억나는 것 같아요.

- 예. 아.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은 그, 정확하게 맞춘 게, 기억이 나는데, 장소라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북경으로 가야 된다면, 기차를 타야 된다면 청량리에서 탈 수가 없어요.

그, 아버님 일화 중에서 아버님 성격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삼촌이랑 성격이 많이 다르셨다고 했는데…….

예. 우리 삼촌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우리 아버지는 말썸이 좀 없는데. 형제들 모두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대요. 그래서 직접, 우애가 그렇게 좋으면서도, 형님,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못했대요.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는데, 둘째 아들이 들어오면 옷깃이 여며진다고, 그럴 정도니까. 형제들이 다 그랬죠.

-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님을 포함해서 어머니, 그리고 이원조 선생님을 포함한 육사선생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을까요?



안동 육우당에서 아버지 이육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육비 여사(오른쪽)

좌와 우, 독립운동할 때는 그런 것 없이 조국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국이 반으로 나누어지면서 갈려졌죠. 정말 좋은 세월이 오면 그런 걸 떠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독립 운동할 때에는 좌와 우가 없었듯이.

예전에 김학철 선생님 아들을 만났는데, 한국에 나가 살려고 해도 다 죽이려 그러니까, 못 살아서 다 북으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아픈 일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 와서 모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옥비 여사와의 첫 만남

구술자: 이옥비(이육사의 따님·사단법인 이육사추모사업회 상임이사, 1941년생)

면담자: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구술일자: 2015. 12. 18.

구술장소: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성북문화원 원장실

구술시간: 30분

구술정리: 민문기(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원)

- 먼저 이육사 선생님께서 언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들 전부가 처음 대구에서 성북동으로 올라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큰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다 같이. 그때가 1938~39년 쯤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다 돌아가셨죠.

- 그럼 이육사 선생님도 함께 지내셨던 건가요?

아니예요. 따로 나와서 지내셨어요. 아버지(이육사)는 먼저 문화촌에 가서 사셨어요. 그때 첫 딸을 낳았는데, 거기서 첫 딸이 안타깝게 백일도 안 되어 돌아가셨죠. 아파가지고. 거기서는 근데 호적도 안 올리고 지내서 살았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 뒤에 명륜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태어난 거예요.



이옥비 여사. 중국 난징의 제3기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터에서 찍은
사진이다. 한성여고 김태빈 선생님이 촬영했다.

- 그럼 분가해서 문화촌에 갔다가 명
륜동으로 가신 거군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 독립운
동하시니까 많이 왔다갔다하셨어요.

- 그렇다면 이육사 선생님의 다른 형
제분들은 어떻게 되셨는지요.

형, 그러니까 큰아버지는 아버지
보다 더 앞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둘째시고, 셋째 이원일 어른, 넷째 이원
조 어른. 이 분들은 다 월북하셨어요. 셋
째는 호가 수산이라고 서예가로 유명했
어요. 넷째는 여천이라해서 평론가로 또
유명했죠, 덕혜옹주의 육촌 동생하고 결

혼하셨고, 다섯째 이원창 어른은 당시 조선일보 인천지국장도 하셨었는데, 해주에
형님들 어디계신지 수소문하러 가셨다가 영영 소식이 끊겼죠. 나중에 알고보니 폭
격 당해서 사망하셨다고. 막내 이원홍 어른은 스무 살도 안 돼 일찍 돌아가셨고요.

- 이육사 선생님께서는 순국하시고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셨잖아요? 그 뒤에
이장된 것이 60년대였나요?

정확히 1962년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 그럼 묘지번호나 묘의 위치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모르겠어요. 위치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산소, 할아버지 산소, 큰아버지,

아버지, 다 같이 했었어요, 넷을.

- 여사님께서서는 지금은 어디에서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육사 선생님 고향의 생가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저는 지금 안동에 살고있습니다. 안동 이육사문학관 옆 목재 고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동에 있던 생가는 일가가 전부 대구로 올라올 때,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집안 어른께 팔았다고 들었어요. 대구 남산동의 생가는 지금 찾아보니까 2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집은 이미 다 없어졌고, 아버지 흔적마저 다 없어질 상황이라 큰일났다 싶었죠. 그때 어떤 고마운 분께서 대구시장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구시랑 협의를 해서, 지금 아파트가 올라갈 자리라 그 곳을 보존하는 건 어렵고, 대신 부근에 근대문화거리라고 이상화 시인 생가, 이런 곳들이 쭉 모여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저야 너무 좋았죠.

- 이번에는 다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육사 선생님의 부인, 그러니까 여사님의 어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한 생활가예요. 그 당시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하던 분이니까 저희는 밥도 굶고, 아버지가 한 번도 돈을 제대로 갓다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하숙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건어물도 팔고, 미곡도 팔고. 제가 알기론 아마 군수품도 취급했었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여장부셨어요. 몸이 자그마한데, 강단이 있으셨죠.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 다 키워놓으시고 1984년 6월 10일날 돌아가셨죠.

- 그럼 어머니와 여사님의 생활은 좀 어떠셨나요.

생활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저희들도 직장생활을 하니까. 저는 어머니를

평생 모셨거든요. 양자로 들어온 동생이 있고, 며느리도 참 착했지만 그래도 부담
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제사가 있으면 (동생집으로) 내려가시고 그랬
죠.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일반 고부지간이 아니에요. 서로 생명을 나눌 수 있
는 그런 대단한 사이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부잣집 출신인데, 옛날엔 딸 공부시키
면 팔자세진다고 해서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공부를 배운적이 없
는데, 할머니한테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몇 번 각오를 했
는데 할머니 덕분에 살았다고 했지요. 나중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나서 이대로 죽
어야 되겠구나 하고 3일 간을 굶었는데, 제가 옆에서 엄마 배고프니까 밥해먹자 이
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살았다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 성함하신 옥비라는 이름은 이육사 선생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것으로 알고있는
데 어떤 뜻이 담겨있는 건지요?**

기름질 옥(沃) 자에 아닐 비(非) 자를 썼어요. 기름이 아니진단, 이렇게 이야
기를 하시면서 기름지지 말라, 부유하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고 담백한 삶을 살라
고 하신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사시던 삶을 저한테 무게를 얹어주신
거예요.

- 지금 그렇다면 이육사 선생님 기리는 문화제 등은 안동에서 하고 계신가요?

네, 안동에서. 아버지 기일인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꼭꼭 있어요. 아버지 생일은 음력이라 날이 매년 바뀌니까 따로 하진 않고요. 그러
니 성북문화원에서 저희 아버지 관련된 행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생신날 맞추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 2016년에는 이육사 문학관을 어떻게 가꾸어갈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육사 문학관은 영상실 수용 65명 기준으로 지었어요, 시골에서. 근데 지금은 1년에 거의 4만명이 오거든요. 도저히 수용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확장을 하면서 또 1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저녁에 주무시고 갈 수 있는 콘도식 시설도 생각 중이고요. 또 북카페, 식당도 만들고, 다 겸비한 곳으로 고쳐갈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 정말 기대되네요. 공사가 마무리 되면 꼭 한 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곳에서 이육사 선생님의 향취를 느끼며 이옥비 여사님의 생생한 말씀 또 한 번 듣고 싶네요. 오늘 못 다하신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요. 먼 곳까지 오셔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몸서리치도록 딱 들렸어요

_조소앙의 손자 조인래를 만나다

3 독립운동가

조소앙(趙素昂)

출생 : 1887. 4. 10, 경기 교하

사망 : 1958. 9. 10, 평양(추정)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이며 교육가이다. 본명은 조용은(趙鏞殷)이며 잘 알려진 소앙은 그의 호이자 필명이다.

1902년 성균관에 입학한 조소앙은 1904년 성균관을 수료하고 1906년 일본으로 유학 메이지 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으며, 그곳에서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를 창립하고, 경술국치 때에는 ‘한일합방 성토문’을 작성하고 비상대회 소집을 꾀하려다 발각되어 고초를 겪었다. 1911년 조선유학생 친목회를 창립하고 회장이 되었다.

1915년 상해로 망명해 박달학원 설립에 참여하고 1917년 주권불멸론, 주권민유론, 최고기관 창조의필요성, 만국평화대비를 주창한 대동단결선언을 기초, 인쇄 배포하였다.

1918년 무오년 길림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기초 발표하였으며 2.8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국호와 의정원, 의정원법,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기초하고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임시헌장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정임을 천명하고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김규식과 함께 파리에 가서 팔묵할만한 외교적 성과를 올렸으며, 상해로 돌아온 후에도 임시정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30년에는 이동녕, 이시영, 김구, 안창호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창당했고, 그의 사상인 ‘삼균주의’를 기반으로 한 ‘태극기 민족혁명론’을

제창했다. 1934년에는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는 삼균주의를 국시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을 채택하였다. 이후에도 임시정부에서 임시 정부외무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해방 후에는 귀국하여 김구와 함께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반탁투쟁 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1948년 4월 남북협 상에도 참여했다. 12월에는 방응모, 백홍균, 조시원 등과 사회당을 결성하여 당수가 되었다. 성북구와의 인연을 맺은 것은 바로 해방 후 귀국을 한 이후이다. 1950년 5월 30일 총선 당시 성북구에서 출마하여 34,000여 표로 조병옥을 이기고 당선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국 최다 득표였으니 당시 그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다른 명망가들과 함께 집에 감금되었다 납북되었다.

북한에서도 활동을 이어가서 1956년 7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최고위원을 역임하였으나 1958년 9월 ‘엄항섭 사건’에 항의하여 단식투쟁을 벌이다 병을 얻어 9월 10일에 별세했다. 1970년 평양 신미리에 있는 애국 열사릉으로 이장되었다.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은 조소앙 선생의 손자인 조인래 조소앙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다. (이하 조인래 회장) 그는 양주에 조소앙 기념관이 들어선 2016년부터 생업을 접고 조소앙 선생 기념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소앙 선생이 작성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 성북구 국회의원 출마 당시의 명함 및 전단지 등 다양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이번 대담 역시 그가 제공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공화정 100년 전시회 민주공화정 서랍 : 눈 먼 자들이 등불을 들다' 전시가 진행된 서울시건축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구술자: 조인래(조소앙의 두번째 동생 조용한의 손자

·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사무총장, 1962년생)

면담자: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구술일자: 2019. 11. 26.

구술장소: 서울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민주공화정 100년 전시회 '민주공화정 서랍' 전시장)

구술시간: 55분

구술녹취: 한승우(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재학생)

구술정리: 조성윤(성북문화원 성북마을기록아카이브팀 연구원)

소개

-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자란 곳은 용산입니다. 대학에서는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학회 일에 관여했어요. 주로 어른들 심부름도 하고, 처음에는 삼균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개괄적인 것만 알지 깊이는 몰랐죠.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5년부터 학회 일을 본격적으로 맡다가 2016년도에 양주시에 기념관을 건립했어요. 9년에 걸쳐서. 그리고 2017년 12월 19

일 대동단결 100주년 기념식을 겸해서 조소앙 선생 기념사업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지금 삼균학회와 조소앙 기념사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무총장님께서 언제 태어나셨고, 또 조소앙 선생님을 뵈는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6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뵈는 적은 없죠. 주로 전해 들은 이야기, 왜냐면 평장히 집안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육형제입니다. 저희 당숙들이 많다 보니까 집안 어른들로부터 기억나는 대로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 왔죠.

- 조소앙 선생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조소앙 선생의 형제가 육 형제인데 거기에서 넷째인 동생¹⁾의 자손입니다. 소앙 할아버지가 손(孫)이 없기에 제가 집안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 집안 어른들이 함께 모이시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시제(時祭)도 있고, 또 한 번씩 소앙 할아버지 학술회의가 매년 2월 1일에 있습니다. 또 기제사라든지 집안 행사 있을 때 모입니다. 선산이 양주에 있습니다. 남편 황방리에 있는데, 거기에 본가가 있고요. 거기서 모이게 되면 얘기도 하고, 여름에 한 번씩 여러 일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또 며칠씩 묵으면서 전해 듣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죠.

- 조소앙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오영선 여사님도 만나신 적은 없으시지요?

없죠. 62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나 뵈지는 못했죠.

1) 조용한(趙鏞漢, 1894-1935).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조소앙 선생 기념사업회 소개

-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신 취지와 연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념사업회 설립 전에 삼군학회가 1975년도에 설립되었어요. 내년 되면 45주년이죠. 그러다가 기념관이 2016년도에 설립되고 나서 바로 기념사업회가 발족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학회가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사업회를 대체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래도 따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념사업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2017년도에 기념사업회를 발족했습니다. 저희 일가가 열네 분이 서훈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조소앙과 그 일가에 대한 국위선양, 정신 등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념사업회가 결정된 지는 한 3년 되었죠.

-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전시회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민주공화정 100년 전시회 ‘민주공화정 서랍’의 추진 배경과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공화정 100년, 또 올해 3.1운동 100년이 됩니다. 다들 ‘운동’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저는 혁명이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정체가, 임시정부가 수립된 게 100년인데



조소앙 선생

대한민국 임시 헌장(大韓民國 臨時 憲章)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 1919년 4월 11일 공포

요, 사실은 그 전에 2.8독립선언서 100년도 있고 또 최초의 독립선언서인 무오독립선언서, 일명 대한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그 100주년도 올해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 어느 나라도 표방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개헌해 왔고 임정에서도 5차 개헌을 했었고 87년도에 또 마지막 개헌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은 민주공화국이라는 1조항입니다. 그 민주공화정을 만들기 위한 열정, 다소 거칠고 건조했지만 독립의 열망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고자 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만들어낸 것이 민주공화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조소앙 할아버지고, 그래서 올해 100주년 마지막 행사가 민주공화정의 씨앗을 좀 널리 좀 국민들한테 알리자는 취지에서 유물도 공개하고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지방 전시를 기획하고, 내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소앙 선생의 가족 관계와 유년시절

- 조소앙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지방, 그리고 조소앙 선생님의 아버님, 할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으신 바가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함안 조씨인데 대대로 충신과 선비의 가문으로서 국난을 극복하는 데

일조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조소앙의 아버님은 저한테 증조부님이 되시죠. 조정규(趙禎奎), 호가 이화제(理化齊) 그리고 부인되시는 저의 증조할머니가 박필양(朴必陽), 반남 박씨입니다. 소앙 선생은 6남 1녀 중에 둘째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신 곳은 지금 교하, 지금 파주 쪽에서 태어나셨고요. 파주에서 다섯 살 때까지 거기서 저의 고조할아버지, 그러니까 소앙 선생의 할아버지(조성룡)가 되시는 분이죠.²⁾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내시던 아주 검속하고 청렴한 선비였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어렸을 때 사서삼경 등 한학을 배우고, 다섯 살 이후에는 양주로 이사를 합니다. 양주에서 나머지 형제분들이 태어나셨습니다. 생가는 파주 교하 쪽이고 본가는 양주가 되겠습니다.

- 양주에 지금 기념관이 있는 장소가 자라신 곳이죠?

예. 양주에서 한 10년 자라고 성균관에 입학하시면서 서울로 오시게 됐죠.

- 조소앙 선생님의 본명이 조용은(趙鏞殷)이시고, 용 자 돌림의 형제 분들 성함이 하(夏), 은(殷), 주(周)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증조할아버지(조정규)께서 아마 예견을 했던 거 같아요. 그분은 굉장히 개화 되셨던 분이 아닌가 합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다 보니까 바깥에 벼슬길을 안 나가고 봉지기를 했습니다. 능지گی요. 굉장히 개화됐었기 때문에 큰 아드님, 그러니까 용 자, 하 자.(조용하) 소앙의 형님이 되는 거죠. 그분이 초기 외교관이었습니다. 불란서(프랑스) 외교관, 그다음에 독일 참사관 겸임하셨다가 을사늑약 때 우리

2) 조성룡(趙性龍).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동일 인명은 검색되지 않고, 함안 조씨 이자 파주 거주자 조성덕(趙性德, 1949-?)이 등록되어 있으나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주권이 박탈이 당하니까 다시 들어오셔서 군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방 군수 생활을 하시는데 지방 군수 생활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수 생활을 합니다. 자꾸 발각되니까 그 이후로 상해로 망명을 했다가 하와이로 가신 거죠. 소앙을 그렇게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조용하라는 큰형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면 어린 소앙에게 국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눴었고, 또 소앙의 일본 유학 시절에 형이, 그 당시에는 독일 쪽이 모든 문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책을 동생한테 보내주기도 합니다. 자기 봉급이 1000원이면 700원은 동생한테 투자합니다. 용돈을 포함해서. 그 정도로 아끼고 물심양면으로 소앙에 대한 애착심, 형제애가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 소앙 선생이 자라실 때 집안의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파주 이쪽이 저희 조 가 일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이 궁핍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고조할아버지(조성룡)가 워낙 선비였기 때문에 그 검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소앙의 형제와 그 가족들의 독립운동 활동

- 소앙 선생의 형님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동생 분들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사무총장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주세요.

그 밑에 셋째 할아버지는 용 자, 주 자(조용주) 되시는데, 소앙 할아버지가 상해 가셨을 때 같이 동참도 하시고, 또 많은 일을 합니다. 한인애국단도 만들고, 외교단도 만들어서 소앙이 유럽에 갔을 때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삼평사(三平社)를 만들어서 책도 저술하고, 또 전주에 내려가서 학교 교장을 맡으면서 배일사상을 교육



조소앙의 삼균주의

하셨습니다. 그런 험난한 길을 걸으셨던 분입니다. 또 넷째인 조용한이라는 할아버지는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상해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다섯째 조용진이라는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형제 중에 선산을 지킬 수밖에 없는 역할이셨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한 분 있습니다. 조용재라는 할머니도 역시 상해로 망명해서 독립운동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막내 동생인 조용원³⁾이라는 할아버지도 망명해서 군관학교를 다니고 거기 법대를 나오셔서 임정의 요인으로서 한독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따님, 막내 고모(조순옥)⁴⁾ 같은 경우는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독립군으로서 활동하시고 그 사위인 안춘생⁵⁾, 고모부도 같이 독립군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비단 형제들뿐이 아니라 그

3) 조시원(趙時元, 1904-1982):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본명 조용원(趙鏞元).

4) 조순옥(趙順玉, 1923-1973):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조시원의 딸.

5) 안춘생(安椿生, 1912-2011):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조순옥의 남편.

부인 되시는 분들도 한국여성동맹에 가입하시고 부인애국단에도 가입하셔서 활동 하죠. 일가 전체가, 3대가 같이 독립운동을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증조할머니, 할아버지(박필양, 조정규)가 1925년 이때 상해로 망명했습니다. 풍찬노숙 속에 증경까지 같이 대장정을 하셨어요. 조금 늦으셨겠죠. 연세가 있다 보니 항상 뒤쳐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끝까지 따라가서 중경에서 기강(綦江, 치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 늦은 시기에 증조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중국으로 망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기에 소양 할아버지, 큰할아버지는 상해를 거쳐 하와이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둘째인 소양 할아버지가 상해에 망명하니까 큰 자식만 데려간 거죠. 막내 자식은 나이가 어리니까 걸어야 갈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커야 갈 수 있는데, 크기 전까지는 증조할머니가 돌보고, 또 여기 남아 있던 셋째 할아버지, 넷째 할아버지가 가솔을 돌봐가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그때 망명들을 가는 거죠. 그리고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팀, 한 팀 가족끼리 가서 망명하게 된 거죠.

- 임시정부에서 같이 생활하셨나요?

그렇죠. 임시정부, 25년 때니깐 그때부터 같이 생활하시고 그 이후에 한 27~8년도에 먼저 항주 쪽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주를 소양 할아버지가 예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주에 미리 가 계시고, 결국은 1932년도에 우리가 항주로 가게 되잖아요.

- 증조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중국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유해는 어떻게 모셔오셨나요?

92년도인가요? 그 유해를 그 당시에는 문화대혁명 때문에 묘가 다 없었습니다. 다 없어졌었는데, 그 묘를 비석을 얹어 놓고 그걸 받으로 만들어서, 그걸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다, 후손이. 그 당시에 조소앙이라는 분의 부모님의 묘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잘 관리가 돼서 정확하게는 못 찾았으나 그래도 한 2, 3회 가서 그 주변을 파 보니까 비석이 나오고 유해를 발굴해서 그것으로 굉장히 큰 배려를 해줬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배려해 줘서 화장을 시켜서 오게 된 거죠. 뉴스에도 그 당시에는 많이 나오고 그랬죠.⁶⁾ 그래서 다행스럽게 유해를 찾아왔습니다.

조소앙 선생의 평소 성품

- 조소앙 선생의 성품과 평소 생활하시는 모습은 어땠나요?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셨는데, 하지만 그 온화함 속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할 때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집안에 한 번 화를 낸 적이 없을 정도지만 자기의 독립운동이나 자기가 가고자 하는 혁명의 길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구도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깝게 지낸 독립운동가들

- 소앙 선생님께서 친하게 지내시던 독립운동가들이 누구였는지 전해 들으신 바

6) 관련 기사『동아일보』1993. 12. 7. 31면「조소앙선생 부모유해 곧 송환」

가 있으신가요?

임정을 같이 지냈던 분들은 다 친했다고 볼 수가 있죠. 26년, 27년을 같이 했던 분들이 누가 한 분이래도 다 동지였기 때문에. 그래도 특히 홍진(洪震)⁷⁾ 선생을 가장 서로 아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도 전시가 돼 있지만, 홍진 선생이 약사(略史)를 쓰시다가 끝내 다 쓰지 못하고, 쓰면 눈물이 나고 자꾸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다 쓰지 못했다고 해요. 홍진 선생님 비석이 뒤에 빈 이유가 그걸 다 완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어있다고 해요. 지금 인천박물관에 비석이 있으며 홍진 선생님 약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 해방 이후에는 단정 수립 등 문제로 임정이 불행하게 갈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까지 자주 교류했던 분들이 계시는지요?

그 당시에는 임정 요인들이 환국을 해서 같이 움직였죠. 한독당에 계속 있었죠. 1949년 그러니까 50년대 초에 남북협상이 결렬되고 오셔서 사회당을 창당하게 되죠. 왜냐면 이미 저쪽에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우리가 정부의 하나가 돼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돈의문 전시장 바로 옆에 경교장이 있지만, 한독당을 만드신 분이요,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이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나 하나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한독당은 그냥 두고 홀홀단신 나와서 사회당을 창당을 해서 2대 국회에 출마한 거죠.

7) 홍진(1877-1946):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법무총장, 외무총장, 한국독립당 중앙감찰위원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1945년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을 앞두고 찍은 사진. 김구(앞줄 왼쪽 다섯번째) 선생 오른쪽 뒤로 조소앙 선생이 보인다.

성북구 동소문동 소재 조소앙 선생 자택

- 조소앙 선생님의 사시던 집이 지금 동소문동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쪽으로 해방 후에 오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라고 들으셨습니까?

맨 처음에 해방되고는 호텔에 계셨죠. 호텔에 계셨다가 그때는 적산가옥, 한미호텔인가 그다음에 적산가옥이라 그래서 임정 요인들한테 집들을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어디에 했었냐면 일가가 많다 보니까 회현동에 계시다가 그다음에 소앙 할아버지 쪽은 명륜동(돈암동)에 집을 하나 마련하셔서 거기로 들어가신 거죠. 지금 남아 있는 집이.

- 가족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같이 사시게 된 건가요?

많은 분들이. 왜냐면 해방공간 속에서 워낙 많은 손님을 맞다 보니까 며느리도 전 동원해서 손님들 맞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거도 하고 손님도 맞이해야 하고. 어느 한 분이라고 지칭할 순 없고 모든 일가의 며느리들이 거기 가서 활동하시고 그랬었죠. 또 거기 가서 공부들도 하고 그랬죠.

- 동소문동 집이 있던 위치를 보면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돈암장과도 거리가 가까운데, 혹시 이승만과의 교류는 당시에 어땠나요?

교류는 있었겠죠.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동서로 축이 되는 거죠. 경교장과 돈암장. 이렇게 해서 동서의 축의 정치사가 움직여지는데, 교류도 했었고 적잖은 실망감도 많이 받으셨고 그런 아픈 시기가 있었겠죠. 동지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져서 그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 그럼 혹시 돈암동 집에 이렇게 가족들이 사시면서 있었던 이야기, 일화를 혹시

들으신 것들이 있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죠. 돈암동에서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중에는 가장 혼란기에 많은 정객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가 6.25 때 납북된 인사들이 거기 몰렸다가 거기서 납북된 아주 뜻깊은 장소입니다. 마지막 본 할머니하고의 생활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때는 매일



광복 후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한 조소앙 선생의 주민등록표. 주소지는 돈암동 445의 1이다.
(조소앙기념관 소장)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장교들이 지키고 있다가 화장실도 쫓아다닐 정도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나무의자에 기대서 잠도 안 자고 보초를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량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기였고, 그러던 중에 보리를 좀 얻어오면 그걸로 죽을 쑤어서 드시고, 그것도 없으면은 조로 죽을 하시는데 상당히, 연세가 60 넘으셨는데 조로 죽을 먹는 건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죠. 까칠거릴 수도 있고 잘 안 넘어갈 수밖에 없는 데도 그걸 기꺼이 또 드시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하고 대화는 나갔다 온다고, 나갔다 오면은 죽을 끓여놓을 테니까 보리 죽을 드시라고 해서 한 그릇을 드시고 나가서 생이별이 된 거죠.

- 저희가 듣기로는 다른 여러 지사들을 소앙 선생 댁으로 불렀다고 하던데…….

부른 게 아니라 6.25가 터지니까 서울 사수 결의대회를 했어요. 그때 국회에서 했는데 중앙청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커를 가니까 신익희 선생님도 계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었던 정부청사.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건물로 세워진 건물로(1926년 완공)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 의해 군정청으로 사용



해방 뒤 1947년 회갑을 맞아 조소앙(왼쪽) 선생이 부인 오영선(오른쪽) 지사와 돈암동 자택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다.

서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수도 결의 사수를 국회 의원들이 거기서 했답니다. 남아서 하기로, 여야하고 무소속이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그리고 돈암동에 돌아가셨는데, 가보니까 정치인들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문인, 언론인 할 거 없이 몰려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리고 피난을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진, 운전사가 안 오고, 또 이상 없다, 이상 없다, 그렇게 계속, 나중에 증언 듣기로는 스피커에 녹음시켜서 안

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했다가 새벽 되니까, 25일 새벽이니까 26일 정도 되죠. 그때 탱크가 서울 시내를 입성했고, 그때 살짝 몸을 피했었는데 프락치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감금될 수밖에 없었죠.

- 그러면 북한군 점령 하에서는 감금 생활을 겪으셨나요?

그렇죠. 감금 생활하면서 그냥 집에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조를 짜서 부역을 하게끔 했어요. 그니까 1조, 2조 해가지고 부역을 하고 또 데려놓으면 가둬

되면서 중앙청(capitol hall)이라 불리게 되었다. 198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철거가 시작되어 1996년에 완전히 철거되었다. (두산백과 참고)

놓고, 또 아침에 데리고 나가서 부역시키고 데려오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아마 많은 인사들이 남북,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나뉘었겠죠. 나뉘어서 (북송)하고, 마지막 모시기 작전 해가지고 김일성이 아마 회의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모시기 작전 해서 남아 있던 김규식 선생, 조항구 선생, 엄항섭 이런 분들이, 이광수 그렇게 해서 돈암동으로 다 몰렸다가 거기서 남북되신 거죠.

남북 과정과 그 이후

- 그러면 남북되신 게 9월쯤인가요?

그렇죠. 마지막 가시기 전에 서류 잘 보관하라고 한 글씨가 있습니다.

- 그때 가족과의 인사는?

생이별이었죠. 인사가 아까 다녀오겠다고 해서 나가셨는데, 죽 끓여놓을 데니까 드시라고 그러고 할머니가 해 놔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깐 오셔서 그걸 드시고 나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이별이 된 거죠.

- 할머니께서도 그때 가신 걸 보고 오랜 뒤에 돌아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전혀 그런 눈치를 못 챘던 거죠. 금방 돌아오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그게 생이별이 된 거죠.

- 저희가 전에 김자동 선생님 인터뷰에서 듣기로는 북한군이 서울에 있는, 그 방면에 있는 독립지사들을 소양 선생님 댁에서 회의가 있다고 다 불러모았다고 합니다.

회의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군데로 모으다 보니까 할아버지 댁으로, 돈암

동으로 다 모이게 한 거죠. 거기가 대명사니까 그쪽으로 다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쪽은 경교장이 있었고 저쪽에는 돈암장.

- 북한에 평양에 가시게 된 건 언제 아시게 된 겁니까?

서울 수복이 되고 안 들어오시니까 소문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죠.

- 북한에 계신다는 소식은, 어떻게 계시는지, 생사를 알 수 있었나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 소양 선생님 남북 이후에 생활은 어떠셨는지 할머니한테 들으신 게 있으신지…….

할머니도 뭐 집안이 난리가 났죠. 왜냐면 큰 어른이 남북되셨으니까. 왜냐면 나머지 분들은 다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남아 계신 분이 막내 할아버지(조시원) 한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할머니들이 남아 계셨어요. 형제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 마지막 그분이, 집안에 가장 큰 어른이 남북됐으니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이승만 정권의 많은 탄압이 있었죠. 왜냐면 국제간첩단으로 꾸미고, 암살단도 꾸미고, 별의별 짓을 많이 했죠. 또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국시가 반공이다 보니까 남북인사에 대한 거를 또 폄하시키고, 그러다 보니 생활하는 게 평탄치가 않았죠. 남들처럼 취업하기도 힘들고, 왜냐면 사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⁹⁾

9) 관련 기사『동아일보』1959. 5. 1. 조간 3면「자살정보와 조소앙씨집」 “그이가 ‘빨갱이’라고 이 사회에서는 아들까지도 누명을 씌워 누가 취직이나 일자리를 어디 마련해줄지까? 하고 오 여사는 말하면서 아들은 벌써 몇 해를 두고 실직 중이라 가정생활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계는 우리 숙모님들이나 여자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
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다니고, 군에 가신 분들은 군에
가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서 생계를 꾸리는 수밖에 없었죠.

- 소양 선생님께서 1958년에 북한
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소식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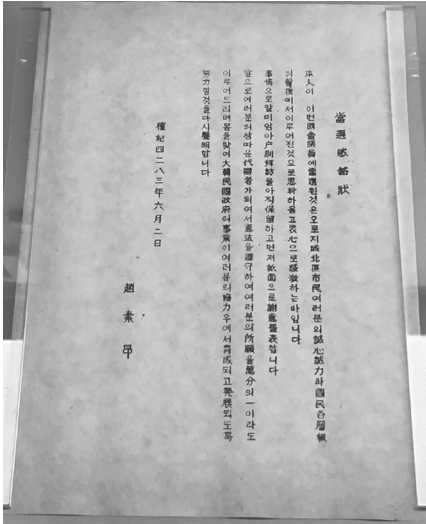
58년도에 뉴스, 신문에 얘기가
나왔고, 또 58년도에 이북에 발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근데 생사의 길은 알 수 없죠. 그때는 ‘아, 그러면 시신을 모셔올 수도 있겠다’, 이러
게 기다렸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사망에 대한 원인은 자살했다는 것 외에는 알 수
없었어요. 또 투신했다, 별의별 설이 많았는데 아마 자살하신 걸로...¹⁰⁾ 못 건졌
죠. 왜냐면 많은 동지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거기서 58
년 9월 10일이라는 그런 비석이 있기 때문에 그날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
리가 장사를 치른 것도 아니고, 시신을 본 것도 아니고, 또 듣고 러시아 문서에서 나
오고 뭐 이런 문서를 가지고 추측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증언을 가지고 토대로



「나의 출마 이유와 그리고 정견」 조소양 선생이
1950년 5월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출마 이유와 자신이 추진할
정책 등을 9가지로 나누어 1950년 3월에 발표한
글이다. (조소양기념관 소장)

10) 관련 기사『동아일보』1959. 5. 2. 석간 3면 “조소양 씨 자살 확인—조 검사 담 각 방면 정보
수집 결과”



국회의원 당선 사례문(1950. 6. 2.). 1950년 5월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성북구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된 후 '유권자의 참다운 대변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조소앙기념관 소장)

삼아서 거기서 돌아가셨고 그렇게 계속 애국열사릉에 있다는 것만 고증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사실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도 사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 지금까지도 북쪽에서 소망 선생 님에 대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유가족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가 전혀 없는 거네요.

전혀 없죠.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왜 독립운동사 자체가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주체사상 자체가 잘

못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대도 안 하고.

- 남북이 화해 분위기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전혀 이런 정보들이 오간 게 없었나요?

그렇죠. 물론 비공식적으로 그쪽 사이트에서 본 것도 간략히 있고, 왜냐면 여기사서 훈을 주니까 이북에서도 조국평화통일상인가를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정을 안 했고 양쪽 남한이나 북한에서도 버림받았고, 또 같이 인정을 해버리고 아주 묘한 그런 사이죠.

대한민국장 추서

- 1989년에 소양 선생께서 대한민국장을 받으셨는데요, 그 전까지는 소양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이나 그런 것들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나요?

훈만 못 받은 거지, 사실은 인정을 했죠. 왜냐면 마지막 임정 요인들도 80년대까지 존재했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5년도에 삼균학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75년이면 정확하게 6.25가 58년, 한 30년, 생사를 알 수 없으니까 더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학회를 조직했는데, 회원이 초기에 한 3000명 정도, 대학 교수들, 또 고등학교 교장들, 또 해방공간 속에 삼균주의학생청년동맹이란 게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때는 뭐 서슬퍼런 유신시절인데 학회를 만들고, 또 문집을 만들고, 그동안 있었던 자료들을 만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그래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학회를 통해서 많은 것이 규명되고 그렇게 일조를 한 거죠, 독립운동사에.

- 대한민국장이 전국훈장 중에 가장 높은 서훈이지 않습니까. 그게 훈 되고 나서 저 달라진 게 있거나 차이가 생긴 게 혹시라도 느끼신 게 있으신지요?

달라진 건 없죠. 이미 그걸로 인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물론 생활하는데 좀 보탬은 되죠. 그렇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형제분들이 한 가족에 형제가 사남매도 있고 오남매도 있잖아요. 그 2~300만원 나온 거 가지고 그게 혜택이 되겠어요? 물론 그걸 바라보고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죠. 굉장히 좀 거기에 혜택을 보고 한다는 건 그냥 사탕 하나 입에 물려 준 거. 그렇다고 또 전혀 안 주는 것보다 좀 낫고, 또 예우라서 해서 그걸 해 주는 거고...

- 따로 기념사업이나 이런 국가에서 해준 건 없나요?

없습니다, 예. 그거는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 해주는 게 없죠. 단지 무슨 행사했을 때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그것도 결국은 정부 지원금하고 자비하고 같이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조소앙 선생이 떠난 이후의 동소문동 자택

- 소앙 선생님의 유가족 분들은 돈암동 집에 언제까지 사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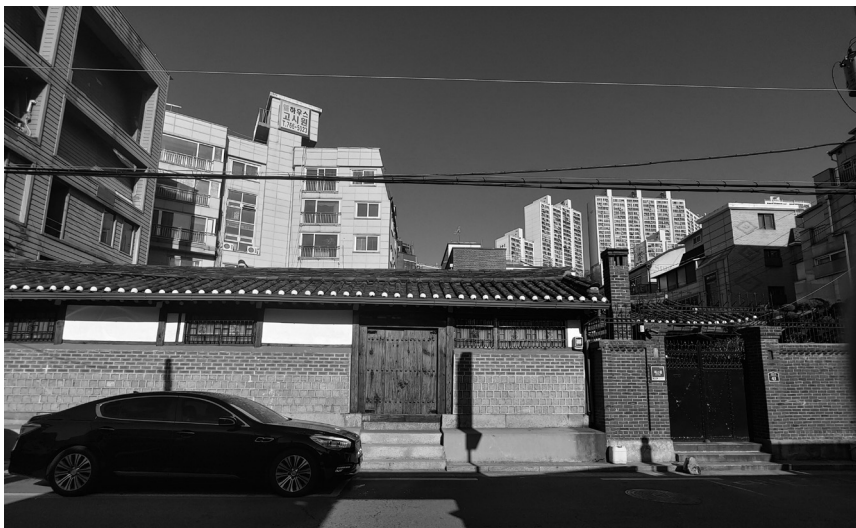
68년 정도까지요.

- 그때 총장님께서 어릴 때 한 번 놀러 많이 가고 그러셨나요?

거기는 못 가봤죠. 다른 그 이후로 면목동으로 이사 가서 면목동에는 제가 자주 갔었고, 어릴 때부터 갔었고, 좋아했었고, 왜냐면 손녀딸들만 있다 보니까, 손자가 없으니까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죠. 왜냐면 여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부업을 같이 할 수밖에. 기술을 거들러면 임정 때도 그랬고, 또 해방돼서도 그게 이어져서. 그러면 다들 일어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숙모님들이. 영어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취업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과자를, 그 당시엔 귀한 과자인데도 잘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 최근에 그러면은 소앙 선생님께서 사시던 돈암동 집을 가보신 적은 있으신지.

저는 거길 참 자주 갑니다, 사실은. 자주 가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일가에서 그 집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저만 압니다. 그래서 2016년 겨울에 내가 그 집이 있는데 거기 풋말이라도 좀 하나 해놔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여기가 근현대사에 중요한 장소다, 남북된 요인들이 여



해방 후 조소앙 선생이 살던 돈암동(현 동소문동) 집

기서부터 출발해서 가셨다, 그래서 그걸 하나 표지석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 찾아가, 그때 김영배 청장님 찾아가서, 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후손이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대답을 해줄까요? 대신 제가 그 집을 왜 그렇게 증축도 안 하나면 유언으로 남겨놔기 때문에. 그 집 전 아바님인가, 하시는 분이 이 집은 누가 살던 분이니 증축조차 하지 말고 기증을 해라, 그러는 소리를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구청이 좀 나서주면은 좋지 않겠냐, 대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다음에 연락을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구청에서. 굉장히 좀 섭섭한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때 문서도 있고, 제가 사진 찍은 거로 해서 첨부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다 제공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일이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어인 일인지 약간 뭐...

- 그러면 거기 집의 구조라든지 알고 계신지요?

그런 건 알죠.



평양 애국열사릉에 조성된 조소앙
선생 묘역

- 그런 건 안 바뀌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앞에만 조금 변했죠.

- 그리고 거기 저희 그쪽 앞에 인제 버스정류장
이 조소앙 활동터라고 3.1 운동 100주년이라
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100주년 위원이고, 서해성 감
독하고 같이 한 서울시 100주년 사업 중에 하나
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해 나가는 과정 중 하나가
소앙의 활동터, 임정 활동터 뭐 계속 만들어 나가
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마 정거장도 만들어서,
안국역에 독립운동 테마역으로 만들고.

본명 '조용은'과 호 '소앙'

-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조소앙 기념관에 들렸습니다. 근데 남기신 신분증에
성함이 '조소앙'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지금 있습니다.

- 본래 본명은 용 자, 은 자신데 소앙이라는 호를 이름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1927년도에 소 자가 자주 바뀌어요. 양 자도 바뀌고, 지금 있는 율 소(素) 자,
오를 양(昂) 자를 계속 쓴 거는 인제 한 1925년도 이때부터 쓰고, 물론 한살림이라는
호도 쓰기도 하셨고, 임시정부의 대외문건들이 다 조소앙으로 나갔습니다. 또 영문
으로도 소앙 해가지고 루체른에서 독립 승인 받을 때도 소앙이라 하고, 그러다 보니



‘조소앙 활동 터’임을 표시한 버스정류장

까 조소앙이 하나의 대명사가 된 거죠. 저희도 여러 시민들한테 질문을 한 번 던져봤어요. 조소앙, 소앙, 조용은. 근데 소앙도 잘 모르고, 조용은은 더 모르고, 조소앙 그러면 알더라고요. 그래서 기념관 이름도 조소앙 기념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기념사업회의 앞으로 계획

- 기념사업회가 발족한 지 3년인데 앞으로 기념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예정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무상학교를 지금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야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거를 하나 만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상대학교, 그다음에 삼균주의 건국강령에 대한 정신, 굉장한 유산을 남겨놓은 거죠. 왜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인 철학을 하나 만들어왔기 때문에, 삼균주의. 거기에 석, 박사를 한 사람이 1200명이 넘습니다. 단일 학문 가지고는 경제학 박사가 나오죠, 또 정치학 박사

가 나오죠, 교육학 박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그 근간은 임시정부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진을 하고,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무총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조소앙 선생께서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균주의죠. 또 그 삼균주의라는 게 우리 건국강령에 나오죠. 최고의 공이라고. 역사적 근거를 “수미균평위, 흥방보태평(首尾均平位, 興邦保太平)이라”, 이것은 최고의 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니까 이미 우리는 단군사상을 잘 알죠. “이화세계, 홍익인간(理化世界, 弘益人間).”¹¹⁾ 그니까 이미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런 걸 토대로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국가가 형성됐던 거예요, 고조선 때. 근데 “수미균평위, 흥방보태평” 그런 건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신지(神志)가 쓴 비사에 나오지만, 그게 우리 건국 강령에 명시가 됩니다. 그것을 삼균제도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건 몰라도 또 많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쓴 헌법이고, 또 우리 민주에 관련된 것을 이미 1919년 때 표방했던 거고, 그 어느 나라도 사실은 군국주의에서 시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의 대가를 흘리고 몇 백 년이 걸려서 이룩했지만 우리는 10년 안에 그걸 만들어낸

11) 대한민국건국강령 제1장 총칙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머리와 꼬리가 고르고 평평하게 자리하여야 나라가 흥하고 태평함을 보전할 수 있다)」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과 이화세계(理化世界: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임”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조인래 조소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유산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소앙 선생님의 뜻이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 문화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물 정리와 육성 복원

- 조소앙 선생께서 남기신 유품이나 문서들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따로따로 보관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400점 정도 됩니다. 워낙 많은 것들이 분실돼서 그걸 찾고 모으고 하는 작업도 적잖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놓은 게 한 400점 되고, 그다음에 기념관에 지금 회암사지(檜巖寺址), 양주시에 또 한 900점 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한 거는 한 1300~400점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지금 흩어져

있는 것까지 다하면 엄청난 양이 나오겠죠.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등록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조만간에 문화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단행본에 실린 사진을 보이며) 돈암동 자택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건 회갑 때 찍은 거. 여기 같이 부부가 찍은 사진도 있고요. 이거 회갑 때 찍은 거. 일단 많은 사진이 유실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가지고 다 봤던 사진인데 어느 날 가져가서 안 돌려주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없어서, 유품 정리를 내가 다 했는데 사진이 갑자기 빠진 거예요. 다 스캔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 사진은 제가 또 원본이 있어요. 문화재로 아마 등록이 된 거.

- 이 사진 원본이 조소앙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던 거죠?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가 많죠. 여기 근정전 앞에서 찍은 거.

-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음성이 남아 있더라고요.¹²⁾

음성은 제가 복원한 겁니다. 이 사진도 지금 없어져서 제가 복원한 겁니다.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있는 독립운동가 없을 거예요. 지금 ‘소리, 역사에 답다’전(展)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중이고, 너무 버퍼링이 심하니까. 2018년 작년에 60주기 추모제를 처음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국가에서 했어요. 그때 한 1년에 걸쳐서 그거를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만들어 나갔어요. 유명한 사람이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몸서리치도록 딱 들렸어요. 잡음을 싹 건어내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듣는 사람들이 등골이 오싹해져서 어떤 프로듀

12) 1946년 첫 3.1절 기념식에서 조소앙이 연설한 육성 음원. 2019년 2월 27일에 공개되었다.

서는 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 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음성이, 대단한 음성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나를 불태워 죽이십시오.’ 어떤 독립운동가가 반성했습니까. 국민한테 사과 한마디 안 했었습니다. 그게 정치사예요. 해방공간 속에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와해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암살도 당하고, 유일하게 대국민 사과를 한 거예요.

-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였나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단두대로 보내고 형제, 부모, 언니를 암살단으로 해서 내 보내고, 본인이, 그니까 거기 보면 나의 독립군이라 그러지 우리 독립군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독립군에 얼마큼 관련돼 있고, 그니까 그런 자료가 지금 있어요. 독립군에. 당시에 다 쓰고 편지를 다 했던 건데.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작전 기획, 다 지필 문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게 근거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우리의 독립군, 우리의 군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군대를 앞세워서, 내가 이렇게 사지로 몰아서,’ 그 대신 통일을 못 지키면은 나를 불태워 죽이시오, 거기 또 삼균주의가 담겨있죠.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아이마다 대학까지 졸업시키겠다고.¹³⁾

그렇게 말씀하신 독립운동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작업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놀란 거예요. 왜냐, 글만 보고 음성은 안 들었는데 몸서리치게 또렷이 들리니까요. 본인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고향 땅에서는 못 돌아가시고 이북에. 참 가슴 아픈 거죠.

3대가 정말 가슴 아픈, 제가 4대니까 3대까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내년에 훈을 올려 드리겠지만, 할아버지들, 당숙들. 그러니까 3대죠. 증조할아버지 3대. 증

13) 조소앙 육성 음원 내용.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

조항아버지의 손자들. 손자며느리까지. 또 사위까지. 자기가 실천한 거예요. 왜냐면 대한독립선언서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육탄혈전(肉彈血戰)을 해라, 일가(一家)를 희생하라고 돼 있어요. 내가 표본이 안 되면 그걸 썼겠어요? ‘너는 네 가족을 아끼면서 일가를 희생하래? 그러면 안 되지.’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형제들이. 실천한 거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분들은 목숨은 아예 안중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목숨은 안중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목숨은 그냥 스페어로 가지고 다니는 거야. 언제든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몇이나 있겠어요? 내가 언제 죽을 지도 몰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그걸 실천을 하고 또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내가 새벽에 별을 보면 무지 많더라고. 다 아마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다 별이 된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초롱초롱한지, 내가 근시가 있고 노안이 있는데 새벽에 하늘을 보면 왜 이렇게 초롱초롱한지. 야, 그래서 올해 100년이라서 별들 되신 분들이 많구나……. 그분들은 자기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지. 어떻게 이룩한 나라고 어떻게 만든 독립이라는 거를, 그분들은 목숨이라는 거를 바쳤는데 나는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할 정도로. 우린 얼마나 진보된 삶을 살아요. 편안하고 잘 먹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조죽을 드셨다는 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60이 넘었는데, 그 임정 하면서도 나물이라도 해서 죽을 끓여 드시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시면서 갈아서 생죽. 뭘가 반찬도 없고. 그거를 할아버지한테 드린 부인이나, 그걸 마주하고 있는 본인이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 말고도 에피소드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굉장했던 분들이예요. 백색테러 했을 때도 눈 한 번 깜빡 안 했던 양반들이예요. 백색테러단이 있었거든, 해방 이후에. 그럼 올 테면 오라고. 술 가져오라고 해서. 술 안 드시면서. 조항구 선생하고 둘이 딱 앉으시고. 꿈쩍을 못해, 그 기에. 좌익 애들 총 들고 와 가지고 경찰들 혼비백산했는데도 ‘아니 내가 왜놈한테 안 죽으면 다행이지, 내가 조

선놈한테 죽는데 뭐가 아깝냐.’ 그니까 좌익 애들이 보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에 놀리는…… 그냥 풍찬노숙이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신 같아요. 이런 애 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예요.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뭔가 복합적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죠

_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사무국장 황우갑을 만나다

4 독립운동가

안재홍(安在鴻)

출생 : 1891. 12. 30, 경기 평택

사망 : 1965. 3. 1, 평남 평양

·
;

호는 민세(民世). 안재홍은 아버지 윤섭(允燮)과 어머니 남양홍씨 사이에 8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집에서 한학을 익히다가 1907년 서울에 있는 황성기독교청년회 중학부에 입학, 이상재·남궁억·윤치호 등의 지도 아래 감화를 받았다. 1910년 한일합병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東京]에 있는 아오야마 학원(青山學院)에서 어학을 공부하고 1911년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경학부에 입학, 1914년 졸업했다. 1915년 중앙고등보통학교에 학감으로 있었고, 1917년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교육부 간사를 지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해 5월 비밀조직인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서 총무로 활약하다가 검거되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했다. 1924년 3월 『시대일보』 논설기자로 언론에 첫발을 디딘 후 같은 해 9월 조선일보사로 자리를 옮겨 주필 겸 이사가 되었고, 1926년 9월부터는 주필 겸 발행인이 되었다. 1927년 신간회 총무간사를 맡아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벌여 2차례에 걸쳐 옥고를 치른 뒤 1929년 1월 조선일보사 부사장을 거쳐 1931년 5월 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이른바 재만(在滿)동포구호의연금 유용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935년 5월부터 『조선일보』의 객원으로 <민세필담 民世筆談>을 집필했다. 그러던 중 1936년 6월 난징[南京]군관학교에 두 청년의

밀파 입학을 알선한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1938년 5월 흥업(興業) 구락부 사건으로 연루되어 구금되기도 했다. 그는 1919년 이후 20여년 동안 9번에 걸친 투옥으로 7년 3개월간의 옥고를 치뤄야 했고, 1942년 12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경남도 흥원경찰서에 수감되었다. 8·15해방 후 건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되었지만 곧 사퇴했고, 그해 9월 24일 국민당을 창당하고 당수가 되었다. 1946년 2월 26일에는 <한성일보>를 창간하여 발행인 겸 사장이 되었다. 같은 해 12월 미군정 과도정부 입법의원을 거쳐 1947년 민정장관을 맡으면서 잠시 신문사를 떠났다가 1950년 5월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으며, 곧바로 제2대 총선에 출마하여 고향인 평택에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 납북되었다.

『시대일보』를 시작으로 언론에 몸담은 그는 해박한 지식과 사려 깊은 안목, 날카로운 필치로 1920~30년대에 대중을 깨우치고 독립정신을 고취시켰으며, 8·15해방 후에는 민주독립국가를 구현하고자 언론과 정계를 뛰어다닌 대표적인 대논객(大論客)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新民족주의 이론을 전개하여 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성취하여 민족을 구성하는 여러 사회계층 상호간의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외적으로는 타민족에 대하여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려는 민족사관을 주장했다. 저서로는 『조선상고사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한민족의 기본노선』 등이 있다.

안재홍은 김부례와 재혼한 직후인 1941년부터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는 1950년까지 돈암동(현 동선동2가) 산 11-152의 주택에 거주했다. 돈암동 시절 안재홍은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에 매진하였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수감되어 고초를 겪었으며, 8.15 해방 직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했고 1947년 미군정 민정장관직에 취임하여 통일정부 수립과 남한 내 민정 수습에 힘썼다. 인근에 거주했던 이승만, 조소앙 등과 밀접하게 교류하였음은 물론이다. 1949년에는 돈암동에 설립한 중앙농림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여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기도 했다.

안재홍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사)안재홍기념사업회 사무국장 황우갑 님이다. 안재홍과 마찬가지로 평택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1990년대 안재홍에 관해 관심을 가진 후로 자료 수집과 연구에 전념했다. 2001년에는 평택에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사무국장으로 봉사하며 안재홍의 삶과 사상을 알리는 데 힘써오고 있다. 2019년 12월 11일(수) 오후, 평택에 있는 기념사업회를 찾아 황우갑 사무국장을 만났다. 안재홍의 삶의 자취와 복잡다단한 업적과 저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안재홍의 돈암동 시절로 범위를 좁혀 질문을 했다. 1시간 넘게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혼란의 시대, 돈암동에 머물며,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진로를 제시했던 안재홍의 선각자적 면모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구술자: 황우갑(사단법인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사무국장, 1964년생)

면담자: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구술일자: 2019. 11. 26.

구술장소: 경기 평택시 송탄로90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사무실

구술시간: 67분

구술녹취: 인서열(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구술정리: 오진아(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연구원)

소개

- 선생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안재흥 선생님 고향인 평택에서 태어나서 쪽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야학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문화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 연세, 그러니까 태어나신 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현재 64년생이니까, 지금 55세죠.

- 사무국장님께서 안재홍 선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언제부터였는지요?

제가 학생 때 고대 국문과 나왔거든요. 역사나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 당시에 송건호 선생님 때문에 책을 통해서 안재홍 선생의 이름은 들었는데, 이 분이 평택이 고향이라는 사실은 되게 늦게 알았어요. 97년도인가 시대일보(時代日報)라고 하는 일제 때 신문사의 본사가 정읍에 있어서 방문했었어요. 거기에 보천교(普天敎)를 만드신 차경석의 손자 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제가 평택에서 왔다고 하니깐, 그분이 안재홍이라는 분이 평택 분이라고 해서 그 때 안 거예요. 그 후에 돌아와서 기념사업회를 제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에 대하여

- 기념사업회에 대한 구상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안재홍 선생이 평택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를 해서 99년도에 서울대학교 한영우(韓永愚) 교수님을 모시고 발기인 대회를 하고, 2000년도에 창립했어요. 제가 어쨌든 창립부터 지금까지 봉사자예요. 하하.

- 200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건가요?

예. 2000년 10월. 창립은 99년 3월 2일부터 추모식을 시작하면서 하고, 1년 준비해서 그 당시에 김선기 평택시장이 초대 위원장, 즉 회장으로 취임하셨어요. 그리고 과거처 장관 하셨던 김진현씨가 회장 하시다가, 최근에 강지원 변호사가 회장을 맡으셔서 쪽 활동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평택에서 안재홍 선생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기념사업회가 생기고 나섭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 전까지는 실제 납북 당하셨지만, 월북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서…… 그러다가 89년도에 이분이 훈장 받으면서 복권은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인식이 안 좋았죠. 근데 나이 8~90살 정도 되신 분들은 다 알고요, 유명했다는 걸. 그리고 쪽 자료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지금은 부정적 인식이 없어졌죠.

- 그러면 기념사업회에 계시면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기념 사업회가 자체 역사를 갖고 있는 거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한 20년 동안 했던 거를 쪽 분야별로 해서 책으로 냈거든요. 추모식부터 전시회, 기념관 건립, 안재홍 민세상 시상식, 청소년 역사학교…… 또 한 달에 한 번씩 조찬포럼도 열어요. 12년째 하고 있고 150회가 넘었어요. 학술대회도 많이 했고, 책도 올해 9권째 나오고, 학술대회도 한 30번 했어요. 이 분은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지역에 있는 기념사업회 중에 굉장히 지원도 많이 받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족들과도 관계도 제일 좋죠.

- 안재홍기념사업회가 처음에 발기했을 때 자문위원으로 박완서 선생님께서 참가하셨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저기 때문에 그렇죠, 안혜초(안재홍의 손녀) 씨가 시인이예요. 지금은 동대문구문학회 회장도 하시고요. 그래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문인이예요. 문인이 다 보니까 이분이 주로 유명한 시인들을 소개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시는 문인 가운데 민세 아는 분을 명단에 넣어주신 거죠.

안재홍의 성장 배경

- 안재홍 선생께서 평택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 집안, 그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지 가문적 배경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안윤섭이고, 할아버지가 안상규. 둘째 아들이 안재홍이죠. 첫째는 형님이 이제 안재봉, 안재홍, 그 밑에가 안재학이라고 나중에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막내가 안재직 씨고요, 남자는 4형제고 여자 형제가 몇 명 있는데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나 그쪽 집안이 의학 쪽의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 혜민원 주사 같은 일을 하신 거 같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양반은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평택이 간척지예요, 그러니까 땅이 간척되면서 그때쯤 내려온 것 같아요. 원래 안씨 마을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오랫동안 사신 것은 아니고 할아



민세 안재홍의 생가(경기도기념물 제135호,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646)
(사진제공 :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버지 정도에 내려와서 여기서 아버지가 농업을 한 거죠. 대신에 교육열이 있으니까 첫째는, 큰아들은 그냥 농사를 짓게 하고, 둘째아들 안재홍하고, 셋째아들 안재학은 이제 일본하고 독일에 유학을 보내요.

-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는 있으셨겠네요.

예. 원래 진흥의숙이라고, 울포리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안재홍이 별로 싫어졌다고 그래서 수원에 있는 학교를 잠깐 들렀다가 서울 YMCA로 가요. 지금 황성기독교청년학관. 오늘날 성동고등학교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그러고 보면, 되게 교육열이 높았던 사람이지요.

안재홍의 평소 모습

- 안재홍 선생의 유족들이 말씀하셨던 안재홍 선생님의 평소 생활 모습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들은 얘기들은 몇 가지 없지만, 부인한테도 하대하지 않고 경어를 썼다는 거, 부인이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일어나서 예를 갖추는 그런 스타일이셨다고 해요. 원래 술, 담배는 안 했고요. 20대 초반부터 아예 일본에 가 가지고 자기 친구들이었던 김병로라든가, 송진우, 김성수 그렇게 다 친구들인데, 같이 금연회를 만들어서 평생을 술, 담배를 안 하는 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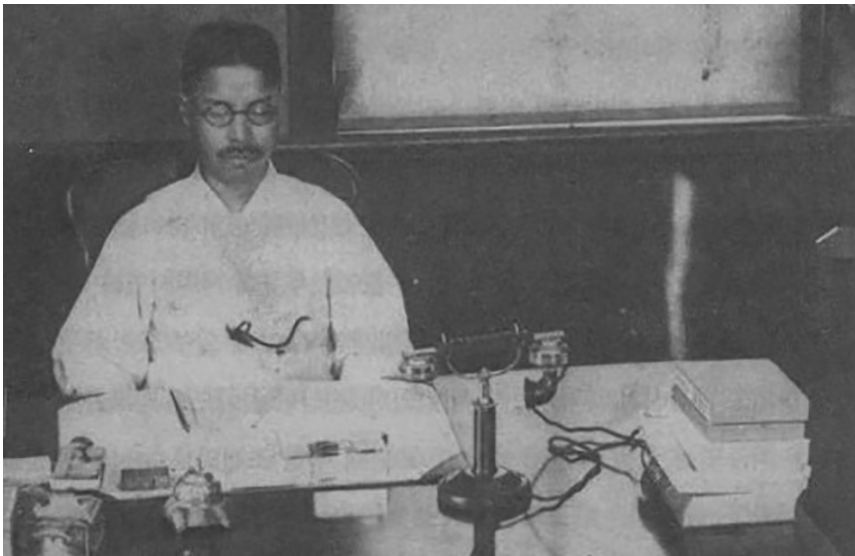
민세 안재홍(1927년 2월 15일, 신간회 창립 후 찍은 사진)
(사진제공 :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고 해요. 그런 습관이 있었고…… 음식도 특별하게 미식을 하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했던 거라고 하면 부인이 해 줬던 곰탕, 닭곰탕 이런 것 정도였다고 해요.

돈암동 시절

- 안재홍 선생이 1941년에 재혼하시고 나서 돈암동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8년도 4월달에 첫 부인 이정순 씨가 여기(평동)서 사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41년도에 김부레 여사하고 재혼을 하시는데 김부레 여사의 오빠 김종량(金宗亮) 씨라고 있어요. 김종량은 그 당시 부동산 업



조선일보사 부사장실에서 집무 중인 민세 안재홍(1929년 8월). 그는 1931년 조선일보 제6대 사장에 취임한다. (사진제공 :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자였는데 김종량 씨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서울에서 북촌을 만든 정세권(鄭世權)이에요. 정세권 선생이 또 민세랑 친해요. 정세권 선생이 북촌을 건설해서 그 돈으로 신간회, 조선일보, 조선어학회를 돕고, 같이 감옥도 가요. 근데 그 김종량이랑 정세권이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 부동산을 하고…… 그 분이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분(김종량)이 해방 이후 한성일보 사주(社主)가 돼요. 안재홍 선생이 사장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김종량씨가 이 신문사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집을 이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민정장관 시절 서울 돈암장에서 부인 김부례 여사, 경비대원과 함께.
(사진제공 :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 평동 집에서 돈암동으로 오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분이 41년도에 돈암동으로 가시긴 했지만, 바로 감옥 가거든요. 41년도 12월 달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봄에 나오신 다음에는 이제 말까지 서울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기(평택)에 내려와서 여기서 계시다가 해방되고 나서 다시 서울 올라가신 거죠.

- 그때 가족들은 돈암동에 있고, 안재홍 선생만 고향으로 내려와서 계셨던 건가요?

김부례 여사는 서울에 계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저기(가족)들은, 거기서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외부와 내부의 주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밖에서 들어오는 여기는 들어오고 안 나가요. 살기 좋아가지고 자기만 부지런하면 그것보다도 들어오면 안 나가더라고 사람들이.

-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확인했었는데 돈암동 집 앞에서 경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집이 양옥인 것 같았는데 그게 어떤 형태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영준이라는 분이 거기서 안재홍 선생이 민정장관 시절에 자기네가 밖에 경비를 서 있고 그러면 두 분이 꼭 자기를 챙겨주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집 구조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해방 이후에 손녀 되는 안혜초 시인, 오빠 안영찬 이런 분들이 해방 이후에 장관 시절에나 사장할 때 가서 세배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 정도나 알지 제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 일제의 감시가 심해서 활동은 많이 어려웠나 봅니다.

예. 일제 말에는, 이문원 독립기념관장 얘기로는, 그 근처에 여관 있어요. 여관을 몇 군데 돌아가면서 묵으셨다고 그래요. 적어도 1년 정도는 피신은 아니고, 검거되는 상황은 아닌데, 좀 감시를 피해서 숙소를 자주 옮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이문원)가 7살 때 자기 아버지(이승복)랑 두 분이 어디 여관에 있으면 자기가 몰래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해방 전까지는 편안하게 지내신 것은 아닌가 보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해방 다음 날 이 분이 해방 연설을 하는데 그 사진 보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까칠해요. 안재홍은 오전에는 휘문중학에 가서 연설을 하고요, 오후 3시에 경성방송국에 가서 해방연설 방송을 해요. 그때 사진이 남긴 다 남아있는데 그 모습 보게 되면 굉장히 수척한 모습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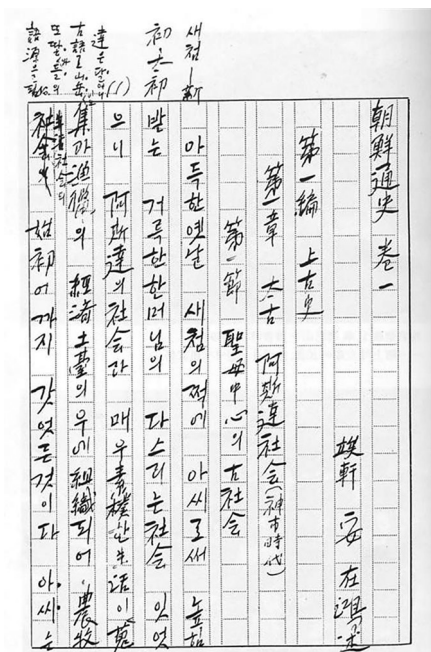
- 안재홍 선생의 돈암동 시절은 1941년부터 1950년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일어난 사건 중에서 안재홍 선생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시절에 해방되고 나서 서울에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돈암동에 계속 계시면서 책이 나오죠. 이분이 쓰셨던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책도 45년 9월인가 타고하고, 그 뒤에 『한민족의 기본진로』라는 책도 나오거든요. 『한민족의 기본진로』 그런 것들도 아마 돈암동에서 주로 집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돈암동 시절에 이분이 독도에 조사대를 파견해요. 47년도 8월에 이분이 독도에다가 독도, 울릉도를 학술조사 하는 걸 파견해서, 독도가 오늘날 이렇게 보존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거죠. 또 48년도인가? 이 분이 대한 올림픽 후원회 회장을 맡지요. 복권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당시에 우리 올림픽 대표 팀이 런던에 가서 경기를 했지요. 이제 첫, 저기를(올림픽 참가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아시고. 나머지는 정치 활동이죠. 민정장관 할 적이라든가, 한성일보 운영이라든가, 신생회 활동, 농림대학 운영이라든가 딱 그게 돈암동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중앙농림대학

- 안재홍 선생께서 돈암동에 중앙농림대학을 세운 계기가 무엇입니까?

원래 안재홍이 성인문해 교육을 하셨어요. 한 2012년도엔가 이기영이라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분이 내가 서울에 중앙농림대학에 안재홍 학장 있



민세 안재홍의 필적으로 1941년『조선통사』초고의 첫머리이다. (사진제공 :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던 학교의 졸업생인데, 이 분 기록에는 그게 없다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작년에 했었어요. 이분이 ‘그 당시 돈 암동에 고려대학교가 보이는 데에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는 농한기 때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농번기 때는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초급대학으로 운영됐었고, 대부분 그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과하고 실습과가 있어서 개척과 학생들은 저쪽에 남미까지 가서 개척, 개간사업도 한 학교였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학교가 용인으로 내려와요. 제가 용인문화원 통해

서 알아봤는데 지금 그 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60년대 초쯤에 4년제로 승격된대요. 4년제 농업학교가 되었다가 60년대 초에 국민대학교로 통합이 되었대요. 지금 자료도 나와 있고,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런 넓은 부지를 사들여서 대학을 세울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양반(안재홍)이 한 게 아니죠. 실제 저기(운영자)는 주세중(朱世中)이라고 올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학장이 사실 운영한 거지. 이 분(안재홍)이 농업에 대해서 일제 때부터 농민 대상으로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써요. 조선일보에 보면 해방 후에 실제 여러 가지 예산도 세우고 그런 글을 내요. 그걸 구체화한 거



일제감시대상기록카드(1938년 작성). 안재홍은 1919년 12월 29일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활동으로 일경에 검거되어 첫 옥고를 치른 것을 비롯하여 모두 아홉 차례 옥중생활을 하였다. (사진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예요. 뜻이 맞았던, 마침 주세중이라는 농촌 계몽운동가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50년도 5월 선거 때도 민세는 평택에서 출마를 하고, 부학장이었던 주세중 씨는 울진 이 고향이니까 울진에서 출마를 해요. 그 다음에 바로 6.25가 나니까 학교 운영이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졸업하신 그 분도 학도병으로 본인이 참전했다가 와서 보니까 학교가 엉망이 되어 있었다고 하셨고 그러다가 추슬러서 용인으로 일부 사람들이 내려갔나 보더라고요.

해방 이후의 활동

- 안재홍의 해방 이후 활동의 지향점을 정리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해방되고 나서 건준에 참여했다가 탈퇴를 하시고, 그 뒤에 국민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다가 45년 말에 신탁통치가 되니까, 전국에 46년 초부터 신탁통치, 전국 반대운동도 하시고, 거기(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쭉 활동을 같이 해요. 그렇게 하다가 47년도 1월에 민정장관이 되면서 주로 47년부터 48년 8월 15일 전까지 민정장관으로 독도에 조사대를 파견한 다든가, 미군정 아래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셨어요. 그 전에 한성일보를 만들었다



1945년 해방 다음날 서울 휘문중학교에 모인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민세 안재홍
(사진제공 :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가, 장관 할 때 사임하시고 다시 한성일보 돌아와서 활동하다가, 그 뒤에 이제 준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생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이게 그 신간회랑 연관되는 건데, 신생회 활동을 하시면서, 그때 농림대학도 세우게 되고, 50년에 선거에 나갔다가 남북된 거죠. 그리고 이분의 지향점 자체는 기본적으로 좌우합작이잖아요. 우파의 이론가로서 꾸준하게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주의자하고도 통일해 나가는 의지를 꾸준하게 내보이세요, 좌우합작 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게 『해방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김기협



미군정청 민정장관 취임식에서 이승만, 김구와 함께 앉아 있는 민세 안재홍(맨 오른쪽)
(사진제공: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이라는 분이 10권짜리로 해방된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매일 일기를 쓰는 식으로 쓰셨어요. 거기에 자기가 가상의 인터뷰를 해요. 그 인터뷰가 ‘안재홍에게 묻는다’예요. 그만큼 워낙 글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시기의 여러 가지 정치 입장들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안재홍이다 보니까, 그 10권 중에 1권 정도가 ‘안재홍에게 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이지만 나름대로 그 시기의 안재홍의 활동들을 볼 수 있는 게 그 책이죠.

- 안재홍 선생께서 미군정청으로부터 민정장관 직을 수락하신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그것은 사실 정치학자들이 더 저보다 잘 아는 건데. 기본적으로 민정장관 직을 수락했을 때, 미군정에서도 안재홍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 당시 일제



미군정청 민정장관실에서, 민세는 민정장관 시절에도 검소한 생활로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사진제공 :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때 제1류의 독립운동 지도자였고 많이 감옥을 갔었다고 평가했어요. 이분이 그때로서는 미군정의 동의하에서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겠다는 것을 전제로 참여하게 된 거죠.

- 해방 후 한성일보라는 신문사를 운영하셨는데 그 위치나 남아있는 신문자료가 있습니까?

신문은 남아있는데 한성일보 관련되어 있는 저도 책은 봤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언론인 가운데 한 2년 전인가, 서울에 있는 주요 언론사의 원래 있던 터, 이런 거 연구해서 100군데인가 확인해서 책을 낸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마 나와 있고, 현재 이분이 했던 옛날에 YMCA 뒤쪽에 있는 조선일보 겸 그 뒤에 조선중앙회, 여운형이 했던 그 신문사(조선중앙일보)는 현재 남아있지요. 한

성일보 신문은 아마 국회에도 일부 남아있고, 지난번에 DB화 작업하신 분들도 말씀해주셨는데, 많은 분량은 아닌데, 그 시절에 신문 같은 게 남아있더라고요.

- 그때 신문사를 내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 양반이 평생을 직업 언론인이셨잖아요. 그런데 32년도인가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35년도 말까지 글을 써요. 조만식이 그 뒤에 회장을 하잖아요. 조만식이 친구예요.

민세는 와세다, 조만식은 나이가 8살

위인데, 메이지 대학을 나왔거든요. 돌아와서 또 같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장을 맡긴 방응모가 친했던 사람이 조만식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한테 글쓰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3년 반을 글을 쓰죠. 35년도 말까지인가, 글을 쓰다가 36년도에 다시 감옥 가면서 그 뒤부터는 글이 없어요. 해방 이후에 다시 자기 저기(의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언론이 중요한 거니까. 김종량이라는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한성일보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김종량이 실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은 잘 안 됐대요. 근근이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5대 일간지이긴 하지만. 이 양반이 또 중간에 장관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사정)들도 그렇고.



강화도 마니산 침성단에서. 민세는 1930년대 조선학운동을 주도하며 일제에 의해 왜곡된 단군과 고대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사진제공 :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 아드님 안정용 선생께서 신문사 운영에 관여를 하셨나요?

아니. 관계없죠. 그 아들은 보성전문 상과 나와 가지고 원래 일제 때 정인보 선생이 도와줘서 아버지가 감옥에 있을 때니까 유한양행에 취업했다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다가 해방 후에도 서울에 민우사라는 출판사를 만 들어서 아버지 책을 내줘요. 『조선상고사감』이라든가. 이분 책은 그 아들(안정용)이 출판사 하면서 내는데, 자기는 그 뒤에 한때 맥주 이런 거 효모, 효소, 공급하는 거를 영등포에서 그걸 했대네요. 그래서 아들은 그쪽(신문사)이랑 관계가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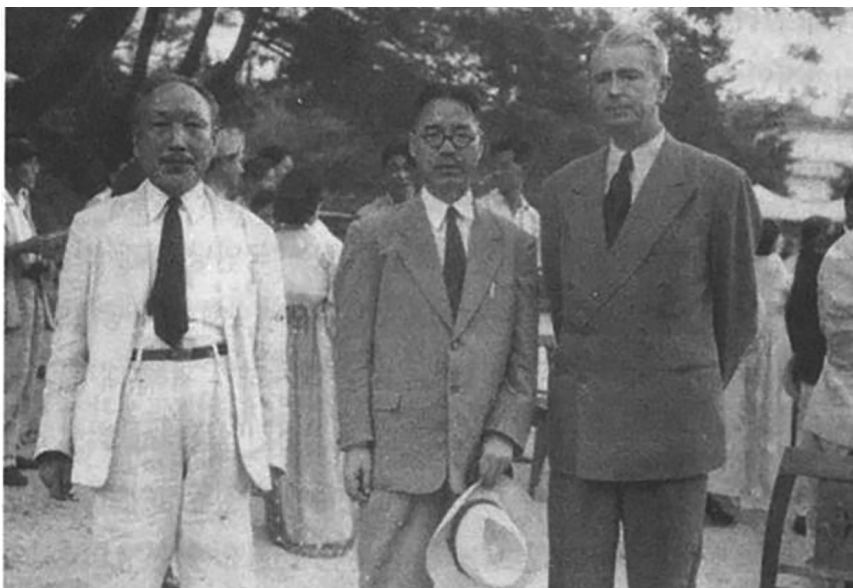
- 안재홍 선생께서 돈암동 시절에 발간한 저작 중에 가장 중요한 저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한민족의 기본진로』, 『조선상고사감』은 이미 원고 자체는 그때 나와요. 47년도인가, 그때 나오는데 이미 일제 때 쓴 책이고, 『한민족의 기본진로』랑 그런 거는 그 때(돈암동 시절에) 쓰신 거니까요.

남북

- 안재홍 선생님께서 1950년에 남북이 되셨는데, 남북된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정상이라고 2011년도에 여기서 살아있었어요. 그 남편이 엄기영이라고, 한성일보 예전에 기자였죠, 민세가 한성일보에 있을 때. 두 분 결혼식도 민세가 해 줘요. 이정상이라는 사람은 원래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었거든요. 안재홍의 중앙학교 시절에 제자예요. 근데 41년도엔가 이 분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딸을 해방되고 나서 이정상이 서울대 영문과 학생이었을 때, 데려다가 같이 보살피면서 결혼까지 시켜줘요. 근데 이 분이 민세



창경궁에서 조소앙 선생과 함께. 훗날 함께 남북된 두 사람은 각각 '삼균주의', '신민족주의'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며 좌우합작과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사진제공 :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가 전쟁 나고, 서울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 시기에 집을 들락날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요. 그래서 남북된 사실을 알게 됐고, 원래 민세가 월북할 사람은 전혀 아닌 거죠. 고향이 남쪽이고 자기 가족들도 다 여기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강다리가 폭파되면서 2대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갇힌 거잖아요, 끌고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거기 연금되어 있다가 9월 즈음에 지금의 남산 옆에 있는 후암동 쪽에 다 모여서 끌려갈 때, 이정상 씨가 그걸 봤다고 증언을 남겼어요.

- 김자동 선생님께 듣기로는 김부례 여사님께서 피난을 못 간 게 아니라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돌아오실까 봐,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얘기는 못 듣고요. 안재홍 선생 부인이 이정상 집에 왔었다고요. 좀 피신을 시키려고. 근데 그때가 신혼 때였는데 방이 하나인 데다가, 다른 집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부례 여사가 들어와서 보더니만, ‘여기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서 다른 데 아마 친지 집에 알아보시러 다녔다 이런 얘기를 이미 증언으로 남겨놓았어요.

- 그때 말씀하신 게 14후퇴 때 북한에서 누가 내려왔는데 안재홍 집에 들렀다가 정정화(鄭靖和) 여사가 그쪽에 가서 남편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택에 있는 두릉리 집이 있는데 나중에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 집을 인민군 사령부로 썼어요. 근데 불태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동네에 사셨던, 옛날 서강대학교 부총장 하셨던 최창섭 교수님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면 인민군들이 있던 것을 자기가 동네에서 본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북 이후

- 김부례 여사님께서 이제 언제까지 돈암동에 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 10월 달에 창립됐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면 1999년 11월 중순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1970년대 이후에는 돈암동 떠나 미아리로 이사하셨다가 80년대 중반 이후 잠실에 작은 아파트에 사셨어요. 거기서 돌아가셨답니다.

- 그렇다면 택이 현재 남아있나요.

아니죠. 그 뒤에 아파트를 지었다고 그러던데요. 번지수는 남아있는데.

- 번지수는 나중에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선집에 보면, 번지수가 있어요. 한 3년 전엔가 어떤 분이 저희한테 그림을

3장을 갖다가 다시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광명 사시는 원 씨 성을 가진 분인데, 자기가 30년 전에 돈암동에서 그분(김부례 여사) 집에서 하숙을 했대요. 김부례 여사가 하숙 처 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 때 김 여사가 안재홍 선생님, 관계 되는 글하고 선물 받은 거 한 서너 편 정도를 표구를 해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받아서 표구를 나중에 하려고 했다가 까먹고 나중에 표구를 하게 됐는데, 그 뒤에,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생각이 나서 이걸 주인한테 돌려 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업회에서 와서 가져가시라고, 3점이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 있지요. 자기 거는 아니고 남한테 받은 그런 글과 민세가 받은 옛날 동양 화나 뭐 이런 거예요.

- 이제 남북이 되셨으면, 집으로서는 이제 가장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 때 김 부례 여사님께서 그 이후의 생계를 위해 하숙을 치셨다는데 다른 가족분들은 생계를 어떻게 꾸리셨나요.

왜냐하면 김부례 여사는 둘째 부인이잖아요. 둘째 부인이다 보니까, 이쪽 가족 하고는 사실 관계가 거의 끊겨요. 그래서 그 분은 그냥 그 분대로 알아서 사시는 거고, 이쪽에 안정용 씨나 안민용 씨 가족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생계를 꾸려야 되는데, 이 분들도 큰아들이었던 안정용씨가 정치를 하는 바람에 또 재산을 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집안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정용 씨 부인 김순경 씨가 일본어 강사 같은 거 하고 이래서, 근근이 애들 키워서 그나마 대학 졸업시키고 사회 나와서 괜찮은 직장 다닌다고 해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대요. 조선일보에서 74년도에 김순경 씨 인터뷰 하는 것 보면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 김부례 선생님은 김부례 선생님대로 어려웠고, 여긴 여기대로 어려웠나 보군요.

그렇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50년대까지는 괜찮았대요. 큰 아들이 그래도 사업도 하고 이래갖고……. 근데 그걸 혁신계 (활동) 하면서 다 쓴 거예요. 남산 1호 터널 넘어가면 바로 기독교방송도 있고 그 근처에 교회 하나 있어요. 그 부근에 원래 3층짜리인가 빌딩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안정용 씨가 계속 정치하면서 하나씩 팔고, 출판사 팔고 해서 이제 다 쭉그러들어서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그것도 안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안재홍 선생이 납북되었으니까, 계속 여러 가지 압박들이 오게 되고, 특히 70년대 들어와서는 이사 다닐 때마다 늘, 체크하고 이러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 연좌제 있을 때라 힘들게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 안재홍 선생님의 유족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황을 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안재홍씨) 세대하고 그 다음 세대는 다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안정용, 안민용, 안서용 씨는 다 돌아가셨고, 그 밑에 자손들이 안정용 씨 자손들이 손자, 손녀가 있죠. 안혜초 씨라든가, 안혜옥 씨, 안영찬 씨, 안영진 씨, 안영운 씨 해서 그 분들은 저희 이사로 몇 분 들어와 있어요. 저희 사업회 이사로 지금은 안영진, 안영운씨 두 분이 지금 들어와 있고, 둘째 안민용 씨는 5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되시는 안영돈 씨가 저희 부회장으로 계세요. 그래서 저희랑 다 긴밀하게 지내요. 사업회의 이사로 들어와 있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납북하신 이후에 안재홍 선생에 관한 소식은 남쪽에 있는 가족들이 좀 들을 수가 있었나요?

들을 수가 없었고, 유족들 얘기가 50년대 후반에 한 번 할아버지, 그분이 북한



1965년 평양에서 영면한 민세 안재홍을 위해 서울 진명여고 삼일당에서 열린 유해 없는 추도식
(사진제공 :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에 가서는 예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었던 홍명희나 중앙학교 제자가 김원봉(金元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그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 뭐 이런분들이 그 나름대로는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또 사실 이 사람은 남북이긴 하지만 모셔가기죠. 정확하게 북한의 입장에서서는 예우를 해서 모셔오라고 한 거지, 끌고 가라고 뭐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는 정치활동보다는 평화통일촉진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게 기록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 그러면, 이제 65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3월 1일날 북한이 공식 발표했죠. 저희가 장례식 자료도 다 갖고 있는데 보면 그 때 우리나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최두선(崔斗善)씨가 친구예요, 와세다 친구라서 북한에다가 유해 송환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처음에는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평양 삼석특설묘역에 조성된 민세 안재홍 묘역. 사진의 인물은 손자 안영찬(왼쪽)과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서영훈(오른쪽)이다. (사진제공 :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뒤에는 결국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와요.

- 최두선 선생님 집도 성북동에 있었습니까.

아, 그래요? 원래 그 분의 형하고도 친했지요. 최남선하고도 원래 초기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 최두선이 총리로 있었을 때 었나요?

그 당시에는 적십자사 총재였어요. 그 당시 문서 보면 총재 최두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그쪽으로 통해서 보낸 문서가 있는데, 회신이 안 오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다가 그게 안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돌아가셨을 때 영결식이 돈암동에서 진행되었고, 추도식이 3·1강당에서 진행되

었다고 하던데요?

예. 진명여고에서 했었죠. 관련된 사진이 몇 개 남아있죠. 민세와 돈암동이 관계된 사진은 46년도인가? 성신여대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가족사진. 민세 딸 안서용씨가 결혼할 때 가족끼리만 했거든요, 결혼식 사진이 지금 남아있어요. 저희 책에 있어요.

사상과 저작활동

- 저희가 신문 자료에서 확인했는데 안재홍 선생의 돈암동 집 마루에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고 써 놓은 커다란 액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재홍이 단군 연구의 대가였어요. 이 분이 종교가 원래 기독교였는데 나중에 함께 일했던 유근(柳瑾)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대종교로 바뀌요. 중앙학교 교감을 하고 YMCA 간사 하고 나서 그 때 내려올 때 즈음에 대종교로 바뀌서 활동들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지인들이 조소앙(趙素昂)이나 안재홍이나 정인보(鄭寅普)나 김좌진(金佐鎭)이나 다 대종교 사람들 아녘니까. 본인이 일제시대 때에 서른세 번 정도 답사를 다니거든요. 주로 단군 유적을 많이 찾아다녀요. 구월산, 백두산, 광주 무등산, 이런 데 가신 이유가 일제가 일선동조 때문이에요. 단군 유적에 대하여 본인이 책을 내잖아요. 『조선상고사감(朝鮮上古史鑑)』라는 책 자체가 주로 단군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이분이 45년도 12월에 홍익인간을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국가 교육이념을 안재홍이 만들어요.

- 안재홍 선생님이 쓰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는 이제 말 그대로 이분이 일제 때부터 얘기했던,

소위 ‘단한 민족주의’, 남을 지배하고 빼앗는 이런 일제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긍심도 가지면서 다른 민족과 소통하는 형태의 민족주의를 얘기해요. 그걸 일제 때 이분이 원래 ‘민세주의’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십 대 때 ‘민세’라는 말은 ‘민중의 세상’으로 지었다가, 30년대 들어와서 이분이 뜻을 조금 바꿔서 ‘민족에서 세계로’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해요. 30년대 중반 즈음에, 이제 조선일보에 글을 쓰죠. 그러면서 ‘민세주의’가 자연스럽게 민족과 세계, 세계와 민족이 어울려 나가는 걸 제시했는데 이거를 해방 이후에 정치 이념으로 정리한 게 ‘신민족주의’예요. 수리철학이라고 ‘1, 2, 3, 4, 5, 6, 7, 8, 9, 10, 백, 천, 만, 억’ 그거를 우리말, 순 한글을 가지고 풀어 가지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정치이념이에요. 해방 후 소위 우리나라의 국가건설론이라고 하죠. 조소앙의 삼균주의,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그 다음에 또 배성룡(裴成龍),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도 사회주의, 자본주의, 중도 입장에서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글로 어떻게 체제를 갖춰 나가야 하는지 주장했어요. 안재홍 선생의 사상이 거의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헌 헌법에 상당 부분 이 분의 사상이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 안재홍 선생님의 저작 중에서 수필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행문 같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나오는데요. 열네 번 정도를 가서 글(기행문)이 엄청 많아요. 단행본으로 나온 거는 백두산이죠. 『백두산등척기』가 아예 단행본으로 나오거든요. 전국 각지에 안 가본 산이 없고,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글이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한 번 가면 60일씩 가거든요. 이 양반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답사를 갔다 와요. 조선학운동은 34년도에 하는데, 그때도 한 60일 동안 정인보하고, 박한영(朴漢永)이라고 스님 있어요. 셋이 60일 동안 남쪽을 갔다 오셨죠.

- 이런 저작들을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책으로 발간한 것이 있나요.

『백두산등척기』는 저희가 지난 번에 정민 교수한테 부탁해서 풀어 갖고 하나 냈고요. 2010년에 냈고, 다른 것들도, 또 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묶으면 별 이야기도 하나의 책이 되거든요. 이분이 원래 일제 때 유학 가서 별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별의 나라 조선’이라고 본인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별 이야기를 이렇게 묶으셨대요. 아직 단행본으로는 안 나왔는데 글이 거의 하나(한 권이) 돼요.



부인 김부레 여사.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 3월 1일 민세 안재홍에게 건국공로훈장 대통령령장을 추서했다. (사진제공 :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 관심 분야가 굉장히 광범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재홍 선생님이 대한농구협회 초대 회장도 지내세요. 그 다음에 경평전. 축구, 경평전 만든 사람 아니에요? 올해가 90주년인데 29년도 10월 8일에 동대문 앞에, 서울에 휘문중학에서 하는데, 그 때 평양에는 자기 친구였던 조만식이 관서체육회장을 하거든요. 둘이 옛날에 신간회도 했고, 물산장려회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식은 원래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안재홍 사상의 영향

- 안재홍 선생께서 남북이 돼서 남한에서는 선생님의 사상이나 저작에 대해서 전

혀 이렇게, 알려질 수가 없었나봐요.

그게 아는 사람들 중에 김지하(金芝河)라든가,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의 조동일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민세 선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학문적인 바탕에서 굉장히 민세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민세가 우리 것을 지켜 가면서 남의 것을 수용하지는 시각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자랄 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구상(具常) 시인도 반공주의자는 아니시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세대에 오면서 잊혀졌어요. 아들도 더군다나 여기(평택)서 60년대 중반 즈음에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지고, 또 3선 개헌 반대운동을 하고 이래서, 박 대통령이란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는 안정용 씨 부인 말로는 박 대통령이 입당해서 같이 정치 하자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안재홍 선집이 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관우(千寬宇) 선생이 그 당시 유신 반대운동 하다가 연금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제시대 말에, 45년도 전후에 학생이었을 때, 민세를 만난 적이 있대요. 서울에 막 이렇게 전전하고 있을 때 민세를 만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이제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실학을 정리하는 데 천관우가 큰 역할을 하는데……. 일제 때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에 대한 자료집을 정리한 게 안재홍이잖아요. 다산 선생의 전집을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서 정인보랑 같이 인쇄본으로 내서, 다산을 연구할 수 있게 한 것이 있어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신채호 선생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제 민세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었고, 김부례 여사가 찾아와서 해 달라 그래가지고 책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게 돼요. 그걸 지식산업사의 김경희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요청을 해서 80년대 초에 책이 나

은 거죠. 78년도에 창비에서 연보가 먼저 나오고, 책들은 따로 나와요.

- 전집이 나오면서 학계나 지성계에 일으킨 파장이 혹시 있었나요?

예, 있었죠. 80년대 이후부터 학생운동권에서 안재홍의 비타협이라고 하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민족주의에 있어서 개방성 같은 것들에 대한 평가가 그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침 그 때 김부레 여사가 어려웠대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가, 국민대학교 조동걸 교수하고 신용하 선생이 청와대의 김학준 당시 대변인한테 김경희 이사장이랑 같이 가서 요청을 했대요. 김부레 씨가 어려운 상황인데 병원도 다니고 그래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김학준 씨가 뭘 도와드려야 되느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민세 선생을 복권시켜주면, 연금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대요. 그때 조소앙 선생과 같이 3월 1일날 복권이 된 거죠.

- 국제관계나 국내 문제에 있어서 안재홍 선생의 사상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서울대학교 하영선 교수님이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역사 속의 젊은 그들』 거기 보면 다산 정약용(丁若鏞)부터 박지원(朴趾源), 쭉 나와요. 거기 안재홍도 들어가 있어요. 자기 친구였던 김양수(金良洙)랑 같이. 뭔가 복합적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죠. 우리 내부의 강·약점, 외부의 강·약점을 함께 엮어보는 복합적인 사고라는 건 굉장히 지금도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 인물과의 관계

- 안재홍 선생과 친분이 있었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국내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친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정인보예요. 개인적인 자기 글에서 자기가 정말 친했던 사람은 정인보고, 그 다음에 홍명희(洪命憲)라든가. 신간회(新幹會)를 같이 만들었던 홍명희. 조선일보 영업부장을 했던 이승복이라고, 예산 사람인데 그 집안은 이남규부터 4대가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유명한 분이거든요. 수당 이남규 선생님 집안 이승복 씨가 친구예요. 굉장히 친했지요. 사진으로는 조소앙 선생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한 대여섯 장 사진이 같이 있는 걸 보면…….

- 안재홍 선생님이 돈암동 계실 때 이웃으로 계신 분들이 조소앙, 조병옥(趙炳玉), 이런 선생님들이었거든요. 혹시 조소앙 선생님과 관계랄까,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까?

조소앙 선생에 대해서는 사진자료 같은 거 보면 두 분이 강화도도 같이 가시고, 강화도 마니산에서 찍은 것도 한 두어 장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둘이 창경궁, 그때 당시 창경원에서 그 미군 중장이 있어요. 웨드마이어 소장 그 사람이랑 셋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한독당에 있을 때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런 걸 보면 가장 해방 이후에는 제일 긴밀하게 만났고, 실제, 이문원 선생님 얘기도 민세가 표면에 많이 나서고, 자기 아버지 이승복 씨는 좀 뒤에서 활동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의 친구예요. 보이지 않는 막후에서 활동한 게 이승복 씨인데 그 아드님 얘기도 조소앙 씨랑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친했다, 자기 아버지와 그 두 분이 가깝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 만났던 기억이 많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노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긴밀했고, 남북도 같이 당하잖아요?

- 조병옥 박사도, 돈암동 전차 종점 근처에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병옥 선생하고는 해방 전에는 자료 보니까 '조선사정조사연구회'인가? 거기에, 25년도에 같이 참여하셨다고 해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연구모임이죠. 또 신간회도 같이 해요. 신간회도 같은 창립위원이잖아요. 민세가 주도했지만 해방 후에는 썩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민세가 민정장관, 그 분이 경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제 그게 표출되는 대표적인 게 4·3 때예요. 민세도 제주도에 내려가서 조병옥이랑 제주 현지인이랑 둘이 막 욕하고 막 싸우니까 민세가 그 자리에서 그걸 말리기도 하고,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해방 이후의 정치 노선이나 활동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거지. 민정장관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이 있었던 자리도 아니었거든요.

- 송진우 선생하고도 사이가 어떠셨나요?

송진우는 친구인데……. 그때는 동아일보, 이쪽(안재홍)은 조선일보. 근데 그래도 자료 보게 되면 송진우가 조선일보 사장 시절에 와서 공동 취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이가 안 좋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또 둘이 친구였으니까. 김구(金九) 선생은 안재홍 선생님한테 이제 네 번 정도 망명을 요청했다는 게 나와요. 근데 본인이 여러 여건상 망명은 어려웠고, 자기 뜻도 국내에 남아서 활동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그 뒤에는 감옥 갔다 오기만 하고, 정신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번 정도 망명을 요청했었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원래 이승만(李承晩)이랑 가까워서 홍업구락부라는 사건도 관련되어 있고, 또 일본 유학 시절에 이승만이 방문했을 때 그 사진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어쨌든 이 분이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사이가 좀 안 좋다고 그래야 하나? 그래서 전문 연구자들, 역사 하는 분들 쪽에서는 민세가 별로 누구 욕하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되게 비판적인 발언이나 이런 거를 보면 해방이후 사이가 틀어졌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김구에 대해서는 안재홍이 상당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도 김구 있을 때도 이 분이 한독당에서 제명도 당해요. 민정장관 하면서 한독당이 자기 당(국민당)을 합방시켰다가 제명도 당하고, 남북협상은 반대했지만 그래도 김구에 대해서는 글이나 자료들이 좀 높게 평가를 해요.

- 이승만 선생하고의 관계는 어땠는지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민세는 차선책으로 단정(단독정부)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었죠. 나중에 가서 여러 정황을 보니까 할 수 없이 일단은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세워서 남한에서의 동포를 제대로 민중으로 만든 다음에 북한 쪽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시각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단독된 정부를 당장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거죠. 이승만은 처음부터 단독정부를 목표로 지향했던 거고, 민세는 그렇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민세는 기본적으로 임정봉대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송진우하고 갈라서는 이유도, 처음부터 민세는 임정을 연리, 보강해서라도 우리가 통일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시각이었던 거고요. 송진우는 표면적으로는 임정봉대를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한민당 중심으로 꾸몄던 거다 보니까, 둘이 갈라서게 돼요, 이승만도 그쪽과 당연히 가깝기 때문에…….

- 박한영 스님이랑도 친하셨나요?

박한영 스님하고도 친했죠. 20년대에 최남선이 『심춘순례(尋春巡禮)』라고 하는 남도 기행문을 쓸 때, 박한영이 수행해줘서 가요. 이번에 민세가 갈 때는 셋이 해서 가고, 나중에 민세는 이순신 쪽을 쓰고, 정인보는 그 앞쪽에 이제 자기 글을 동아일보에 싣고, 민세는 뒤쪽의 내용을 썼죠. 이순신을 좋아했거든요.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다산하고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은 자기 고향에서, 산 앞에 조그만 야산 을

라가면 이순신 묘 있는 데가 보이거든요. 이순신 묘가 아산 음봉에 있기때문에. 늘 보여서, 개인적으로도 이순신 사진이 제일 많아요. 이순신 때문에 통영 갔던 것, 묘소에 가서 찍은 거, 이런 게 많아요. 이순신을 되게 존경했어요. 일제 때 이순신 현창 운동을 동아일보가 하지만, 사실은 민세가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친구였던 위당이 동아일보에 참여하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요. 그런데 사실은 일제 때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실제 이순신 현창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려고 했고 애쓴 사람이 민세라는 게 나오죠. 글도 많이 나눠주고. 조선일보에다가도 이순신 답사기 같은 거. 역사유적들을 많이 다녀서 글도 쓰고, 취미가 등산이에요. 걷기랑 등산하기.

안재홍과 평택

- 평택에서 안재홍 선생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또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안재홍 선생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동네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분이 일제 때 30년대 중반에 낙향해서 여러 가지 글 쓰시고 공부하시던 얘기, 애들 가르치던 얘기, 이런 것을 많이 기억하시거나 50년도에 여기서 5.10 선거 때 나와서 출마하셔서 했던 그런 기억들을 주로 갖고 계시고 계세요. 또 낙향해서도 꽤 사셨기 때문에... 서울 평동에 집이 경교장 바로 맞은편 강북삼성병원 그 안에 원래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돈암동으로 가신 거죠.

- 평택에 있는 생가는 그러면, 다시 지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죠. 원래 있었던 집이에요. 보수만 한 거고, 정확하게는 생가가 아니라, 생가는 그 옆에 따로 그 터가 남아있고, 그 일부 건물이 현재 있는 고택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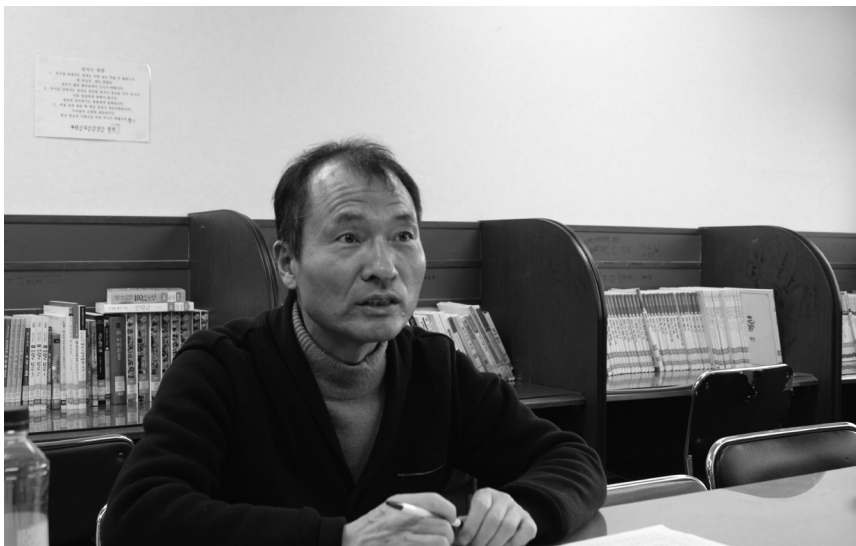
안재홍의 유산

- 안재홍 선생님이 남긴 유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은 유품들이 신문 쪼가리 뭐 이런 것들이예요. 일제 때 유품들이 거니까. 그것도 사라지고, 남은 거는 독립기념관에 일부가 지금 보관되어 있고, 고대에 이제 한 200점 정도가 가 있어요. 저희가 고대에다가 기증을 했죠. 기증해 주고 책을 저희에게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 당시에 기념관이 없으니까요. 주변에서 반대했는데, 기념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누가 가져가거나 분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우리가 모사해서 쓰더라도 한 군데 모아두어야 한다’라고 해서 결국에 고대에 그걸 다 기증해 가지고, 책도 내 주고 지금 나머지 일부가 국가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죠. 고대에서 최광식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고려대박물관장으로) 있을 때 기증해서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것은 아니지만,



천안독립기념관에 건립된 민세 안재홍 어록비. (사진제공 :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민세 안재홍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사무국장 황우갑 님

나중에 전시하거나 할 때는 갖다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박물관을 당장 지을 것도 아니고, 기념관에서 수장고관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갖다 주고, 우리가 그때그때 받아서 쓰고 몇 번 빌려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 안재홍 선생께서 이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사무국장님께서
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재홍 선생은 특이하게도 우리 민족의 과거에 대한 역사를 연구도 하고, 자기 현재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고민도 하지만, 또 미래의 비전을 많이 제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통합’이라든가 우리 내부의 갈등, 일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타협을 추구하지만, 민족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이 시대에는 생각해 볼만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민세주의’라고 하는 것, 있

조. 안재홍이 ‘열린 민족주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개방 사회, 다문화 사회에서 다른 민족을 포용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마지막으로 말씀해주고 싶다 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성북구에서 평택은 이런거 안 하는데. 하하하. 평택은 저희가 하니까 이렇게 안 하는데 민세랑 관계있던 김교신(金敎臣), 김규식(金奎植), 김마리아, 뭐, 여기 이원록(李源祿=李陸史), 조병옥, 조소앙, 뭐 이런 분들은 다 민세랑 관계가 있는 분들인데. 사실 사람들이 이분을 잘 몰라요. 저희가 기념 사업회 할 때, ‘이 분이 꼭 책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책(교과서)에 나와요. 고등학교 책에는 이 분이 등장하죠. 건준이라든가, 조선학운동 등에 나오죠, 지금은. 남북되면서 옛날 60년대에 달력에 보면 이렇게, 100명 나오는 거 보면 민세가 있다가 그게 사라지고 지금은 저기 했는데, 아마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이러면 아마 어떤 사람들이 과연 통일의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했는지를 할 때, 이 분이 좀 재평가 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글 쓰면서 느꼈던 게, 인생에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남기면 후세에 도움 된다는 거예요.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박사가 3명이거든요. 역사학 쪽에 하나, 정치학에 하나, 제가 교육학인데, 아마 앞으로 문학도 하나 나오고, 여러 분야로 연구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워낙 글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행복해요.

- 오늘 긴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생각으로

_최용덕의 외손녀 반춘래를 만나다

5

독립운동가

최용덕(崔用德)

출생 : 1898. 9. 19, 서울 성북동

사망 : 1969. 8. 15, 서울 대방동

·
;

최용덕은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관료였다.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 제2대 공군참모총장, 체신부장관, 주중국(대만)대사 등을 역임했다.

1898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성북동 265번지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항일운동에 뜻을 두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1918년 중국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국육군에서 소대장과 중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19년에는 상해, 북경, 봉천, 안동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다. 1920년 중국공군군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22년에는 중국수상비행대 대장에 올랐다. 1923년에는 중국공군지휘부참모장 겸 공군기지사령관, 1925년에는 중국공군기지학교장이 될 만큼 중국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1940년 중국육군대학을 졸업한 그는 이후 한국임시정부에서 군무부 항공건설위원회 주임, 광복군총사령부총무처장, 참모처장, 사령관 등을 역임하였다. 1946년 한국으로 귀국한 그는 한국항공건설협회회장에 선출되었다. 중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1948년 5월 14일 다시 육군소위로 임관하였으나, 곧 육군항공기지부대장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바로 다음날인 8월 16일 초대 국방부 차관이 되었다.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14일, 공군 준장이 되며 공군사관학교장을 맡았으며, 1952년

5월 19일에는 소장으로 승진하며 제2대 공군참모총장이 되었다. 1953년 1월 중장으로 진급하였으며, 1954년 12월 1일 공군참모총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참모총장 고문 등을 역임하다 1956년 11월 1일 전역했다.

퇴임 이후인 1960년 6월 2일에는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의 체신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나 당시 복잡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 8월 22일에 물러났다. 1961년 6월에는 주중(현재의 대만) 대사로 임명되었는데, 당시 대만의 주석이던 장개석과의 친밀한 관계가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2년 8월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 하였으며, 이후 집필활동과 신문 기고 등의 활동을 이어오다, 1969년 8월 15일 향년 72세를 일기로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 461의 5번지, 동료들이 지어준 21평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본 구술자료는 최용덕 장군의 외손녀인 반춘래 씨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최용덕 장군은 중국에 있던 1928년 4월, 30살의 나이로 당시 18살인 호요동(胡耀東)과 결혼했다. 훗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최용덕은 부인에게 호용국(胡用國)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최용덕이 중국(대만)대사 시절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고 그곳에서 1남 1녀를 출산했다. 아들은 계속 대만에서 생활했으며, 딸은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자 할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들

어왔다. 그 딸이 바로 반춘래 씨이다. 반춘래 씨가 태어나던 해에 최용덕 장군이 사망했으므로 장군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없으나, 평소 할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현재 반춘래 씨는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공군사관학교 내에 건립한 최용덕 장군의 동상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한국에 들렀다.

구술자: 반춘래(최용덕의 외손녀, 1969년생)

면담자: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구술일자: 2019. 11. 20.

구술장소: 서울 용산구 노보텔엠배서더 호텔 1층 로비

구술시간: 62분

구술녹취: 한승우(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재학생)

구술정리: 조성윤(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연구원)

소개

- 일단 선생님께서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태어나고 자라신 곳이 어딘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태어났고요. 아버님은 대만분이에요.

- 어머니 성함은?

최, 보자, 옥자.

- 자라신 곳은 어디신가요?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와서 여기(한국)서 컸어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병중에 계셔서 저를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를 데려왔죠, 할머니가. 그리고 할머니도 혼자여서 또 적적하시고, 한국에 왔을 때 할아버지가 좀 편찮으셨어요. 고혈압 증세가 있으시고, 제가 태어나니깐 대만에서 저를 데려와서 대방동 그 집에서 같이….

- 할아버지 계시던 집에서 계속 같이 할머니와 함께 사셨나요?

예. 그리고 그 해에 할아버지가 8월 15일에 돌아가셨고, 제가 태어난 해에.

- 그러면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시겠네요.

전혀 없죠. 제 기억에는 할머니밖에 없고,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밖에 없죠.

- 저번에 신문기사를 찾아봤는데, 거기 보면 ‘최용덕 장군의 유산은 임종 직전 외손녀의 우유를 사주고 남은 주머니 속의 240원이 전부였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예, 들었어요. 신문에서 보고 저희 할머니도 얘기하셨어요. 항상 자기 월급을 다 남에게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근데 할머니가 정말 내조를 잘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나 그런 건 안 하고 할아버지가 항상 ‘이 돈은 누가 와서 찾아갈 거고, 누구 집에 쌀을 보내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할머니는 그런 식으로 하셨죠.

- 그러면 선생님께선 지금 어디 살고 계시나요?

스페인에 있어요.

- 혹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여쭙봐도 될까요?

무역.

- 스페인은 언제 가게 되신 건가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캐나다에 잠깐 공부하러 갔었어요. 거기에서 있다가 스페인 친구들을 좀 알고 그래서, 스페인을 좀 알고 싶어서 갔다가 스페인이 괜찮을 것 같아서 머물렀어요.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고, 일을 시작했죠.

최용덕 장군과 호용국 여사의 결혼, 할머니 이야기 ①

- 선생님께서 가깝게 지내시던 분부터 여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 되시는 호용국(胡用國) 여사님은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1910년에 바오딩(保定)¹⁾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 원래 이름이 호요동(胡耀東)이었어요, 중국에서. 근데 한국에서는 이름을 바꾸셨어요. 호용국(胡用國)이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름을 호요동, 하면은 발음이 여기(한국)서 조금 이상하니까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나라) 국 자까지 집어넣으셔서 호용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다 주셨어요.

- 한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쓸 용자, 나라 국자. 뜻이 있게. 할아버지가 나라를 사랑하니까.

1)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중부에 있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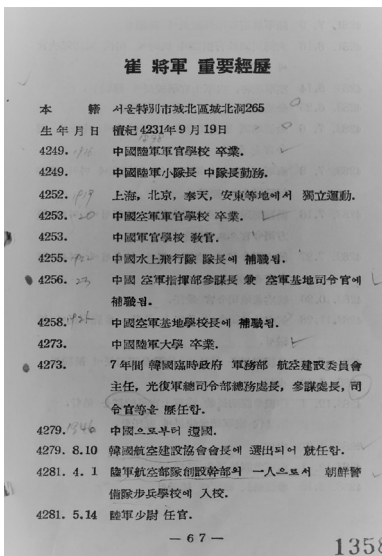
- 같은 글자(용用)를 넣으셔서 지으신 거네요.

네, 그리고 나라 국자.

-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바오딩에서 태어나 자라시고, 거기서 할아버지를 만나신 건가요?

만나신 게 재밌어요. 할머니의 형부 분도 공군에 계신 분이셨어요. 할아버지 하고 절친한 친구 분이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잠깐 처제 집에, 장인, 장모님 집에 뭘 가지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따라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할머니가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건너가시던 걸 보시고 할아버지가 찍으신 거죠. 할아버지가 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아버님한테 ‘혹시 아가씨 만나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아, 없는데 뭐 좋은 사람 있냐’ 했더니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오셨대요. 그래서 (외할머니의 아버지께서) ‘아, 좋은 사람 누구 있냐’ 그랬더니 ‘찾았다’고, 자기(최용덕). 흐흐흐……. 자기라고. 근데 바로 말씀하지 않고 후에 가서. 아무래도 그때는 외국 사람이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으로서 외국 사위를 들이는 게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고), 한국에서 왔다는 거 알고 큰사위한테 물어본 거죠. 이 사람 어떻냐고. 그러니까 큰사위가 그래요. 인간성 좋고,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공군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순식간에 되시고, 할



최용덕 장군 중요 경력(1956년 작성). 본적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65로 나와 있다. (사진제공 :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머니는 할아버지가 무서웠죠, 12살이나 차이 나는데. 그땐 군인이니까 할머니 말씀으로는 군복 입고 까무잡잡해서 왔는데, 할머니는 18, 19살이니까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무섭죠. 무서우니까 시집 안 간다고 그랬다가 할아버지가 설득해서 하게 됐죠. 시집갈 때 할아버지한테 제안을 하셨대요. 할머니가 공부하시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남자가 먼저 학교를 가야 하니까. 동생 데리고 학교 다녔을 때 항상 창문 바깥에서 좀 듣고, 공부하시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제의를 했대요. 제가 시집을 가는데 학교 보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고, 학교 보내주셔서 전문대까지 나오셨어요. 늦은 나이에 열 몇 살에 국민학교 들어가고, 시험 쳐서 계속.

- 전문대에서는 어떤 걸 배우셨나요?

교육과인데, 무용하고 체육 쪽 하셨어요.

- 그럼 선생님이 되실 수 있는 과정을 밟으신 거죠?

네. 중국에서는 선생님이 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 뭐죠? 디프로마(diploma, 졸업증서) 같은 거. 졸업증을 전쟁 중에 (저의) 엄마보고 들라고 하고 같이 가는데 엄마가 힘들시다고, 어리니까 들고 가기 힘들니까 버리고 와서 그걸 참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오셨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 그럼 선생님께서 강단에 서보시지는 못하시구요.

여기(한국)에서는 못하고 중국에서는 체육하고 무용 가르치셨다고 하셨어요.

- 그럼 할머니 슬하에 자녀 분은 한 분이신가요?

어머니 한 분이시고요. 후에 애가 하나 생겼는데 유산되었다고……. 마음 아프죠.

-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군인으로서 자주 나가 계셔서 할머니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나가 있으면 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항상 비행기를 타시니까. 비행기가 그때는 고장도 잘 나고 좋은 비행기도 아니니까 걱정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은 무슨 비행기 쇼 보고 그러는데 그게 떨어지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막 심장이 조마조마하고…….

-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언제 돌아가신 건가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83세에 돌아가셨어요. 1994년.



중국에서 활약하는 비행사 최용덕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동아일보』 1927년 10월 2일)

- 그럼 대방동 관사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나요?

거기 사실 적에 암으로, 직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 5개월 만에. 여름에 입원하시고 겨울에 돌아가셨거든요.

- 그럼 아까 했던 질문을 이어서 드리면, 계속 밖에 나가시고 직장도 계속 옮겨 다니시고, 생계나 이런 것들은 어떠셨다고 들으신 게 있나요?

할아버지가 월급을 타오시면 딱 나눠서 할머니한테 이거는 생활비 그리고 나머지는 내(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써야 하는 돈이라고 하시니까 저희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할아버지 하시는 대로 따르셨대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돈을 주신 대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이거 돈을 받아갈 테니까 돈을 전달해라.’ 해서 전달해서 드리고, ‘어느 집에 쌀을



중화민국 공군 복장의 최용덕 장군과
부인 호용국 여사

보내라.’ 하면 또 그대로 하시고, 친척들한테도, 형제 분이 네 분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셋째세요. 근데 전쟁 때 다 돌아가셨대요. 한 분은 옛날 관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북한으로 잡혀가시고, 첫째 형님인지 둘째 형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잡혀가셔서 집안에 과부하고 애들만 남아서 저희 할아버지가 친척 분들도 다 도와드리고 그러셨다고.

- 완전히 다 생계를 다 책임지신 거네요. 가족들 생계를.

예. 그리고 저희 할머니 쪽에도 동생이 두 분 계세요. 언니는 일찍 돌아가시

고 동생 두 분이 있는데, 그 동생 두 분도 장개석 님이 공군에서 근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장교까지 하셨을 거예요, 둘째 동생도. 그리고 큰동생은 비행기 엔지니어 하시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 그럼 다 대만 쪽에서 활동하신 건가요?

중국에 있다가 장개석 님이 대만으로 가실 때 같이 갔는데, 할아버지도 가실 수 있었어요. 장개석 님이 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근데 할아버지는 나는 내 나라 구하러, 내 나라를 위해서 그쪽으로 가겠다 해서 이쪽으로 오셨어요.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분이시니까 한국어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낯선 나라에 오기가 그렇잖아요. 그때 그래서 아무 말씀은 안하시고 당신만 믿고 한국에 가겠다고, 당신 뜻이 그러시니까. 할머니는 대만에 가면 동생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말도 통하고 더 편하고 그런데, 할아버지 뜻대로, 믿으시고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서의 생활과 대방동 집, 할머니 이야기 ②

- 한국에 오셔서 어떻게 지냈셨나요? 할머니께서 한국어를 나중에 좀 하시긴 하셨겠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오셨는데 할아버지한테 ‘저 한국어 배우겠습니다, 한국어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뭐 배울 필요가 있냐. 여기 군인들 다 있고 다 도와주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그래도 나는 배우고 싶다, 그래서 독학하셨어요, 한국어를. 안 가르쳐줘서 독학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가 좀 서툴긴 하셨어요. 그래도 읽고 뭐 그런 건 다 하시고.

- 선생님 보시기에는 할머니의 성격이 어떠셨나요?

성격이 되게 차분하시고, 조용하시고, 제가 할머니하고 있으면서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참고 할아버지랑 그렇게 사셨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랑 살면서 화내시는 거를 못 봤어요.

- 다른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였나요?

예. 못 봤어요. 저한테도 그냥 얘기하시고, 저하고는 정말 친구, 한편은 친구고 엄마고, 정말 따뜻하신 분이시고 조용하시고.

- 그럼 평소 집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뜨개질 하시고, 제가 어리니까 저 돌봐주시고, 그리고 동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거. 그때 대방동 살 적이니까 마당이 있었거든요. 제가 병아리 사서 오면 병아리도 길렀고.

- 그러면 사시던 그 집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아니요. 그게 사연이 좀 있어요. 신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 네.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장군님 몇 분 하고 공군에 계신 분들이 모금을 해서 집을 드린 건데, 그때는 할머니도 언어를 잘 못하시니까 옛날에는 군에서 다 일 처리를 해주셔서 믿고 다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때일 거예요. 그때 공군에서 갑자기 오셔서 나가셔야 한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내 집인데 왜 나가냐’ 그래서 신문을 할머니가 마침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대만신문, 한국신문.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서 ‘선물 받은 건데, 내 집인데 왜 나가냐’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가

셔서 공군에서 아마 그거를 찾아봤겠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아마 삼군이 다
군 재산이 함께 되는 시기였는데 그게 아마 같이 휩쓸려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러
고 나서 그게 이미 그렇게 된 상황에서 아마도 그거를 따로 주기가 어렵게 돼서 그
냥 할머니가 계실 동안 사시라고, 법적으로 소송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기기는 했어
요, 한 번. 이겼는데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나라하고 싸우는 거니까, 첫 번째는 운이
좋아서 이겼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만약에 지게 되면은 내

가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
러더라고요. 왜냐면 할머니 돌아가시
고 내가 또 계속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겁도 나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때 애가 있었어요. 애가 갓난
아기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여
기까지 와서 몇 개월 동안 있기도 그
렇고, 그래서 그냥 마무리를 했죠.

**- 그 집 자체도 지금은 안 남아있는
거겠네요.**

예, 그 대신에 제가 그때 그랬어
요. 집을 반납하는 대신에, 거기가 아
무래도 의미 있는 땅이고, 의미 있는
집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할아버님이 그 전에 사람들
을 도와줬으니까, 의미 있는 집이니까
뭔가를 남겨둬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중국 중앙항공학교 졸업생 명부인 동학록에 수록된
사진(1935) (사진제공 :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거기예다가 비석이라든지 뭐 하나를
세워달라 그래서 거기 세웠어요.

- 공군에서는 계속 최용덕 장군님
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거기가 의미 있는 자리니까
뭔가 하나라도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고 제가 그때 제의를 했죠. 저 같은 경
우에는 그때 제가 집을 만약에 받을
수 있었으면, 마당이 참 컸어요. 그래
서 한곳에다가는 조그마한 박물관을,
외국 같은 경우는 태어난 곳에다가 그
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옆에다가 (박물관을) 하고 싶
었어요.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보건 안
보건 간에 거기 그 사람이 살던 지역
에, 태어난 곳에 그거를 해놓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게 없어서 그
래서 비석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공사십훈(空士十訓)

1.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
2. 청렴결백(清廉潔白)하라.
3.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4.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5.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6.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7.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8.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9.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10.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최용덕 장군이 공군사관학교 교장
재임시(1950~1952) 제정한 공사십훈. 이밖에
장군은 통일된 공군의 모습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군가'를 포함하여 초기 공군의 여러 군가를
작사하고 '공군의 전통'이라는 구호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할아버지의 평소 모습

- 할머니께서는 평소에 할아버님 얘기를 많이 해주셨나요?

그냥 나라 사랑하신 분이고, 항상 바깥에 계시고, 바쁘신 분이셨고, 그 다음에
할머니를 되게 따뜻하게. 열두 살 차이가 나니까 자기를 한편으론 딸같이, 부인같

이 자기를 참 아껴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여자들이 일어나서 밥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일어나지 말라고, 자기가 혼자 다 챙겨서 할테니까 할머니보고 더 자라고, 자기가 다 하든지 밖에 나가서 먹을 테니까 피곤하게 일어나지 마시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죠. 따뜻하신…….

- 무척 자상한 분이셨네요.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 장군님 하면 약간 딱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어렵고. 그런데 그러시진 않았나 보네요.

어머니한테는 좀 딱딱하셨던 것 같아요. 엄격하시고, 할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잘하셨대요. 전국 1위까지 하시고, 옛날에 서울에서 유명한 여자중학교를 나오셔서. 웬만한 괜찮은 분들이 다 가셨던 학교더라고요. 거기에 서도 전국 1위를 하셔서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국가장학생으로. 그래서 미국에 가셨는데, 어머니는 안 가신다고, 할아버지는 가야 한다고 그래서, 엄격하게……. 할머니 말로는 엄마가 울면서 가기 싫다고, 혼자 가기 싫다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라 그랬으니까 가야 한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최용덕 장군과 성북구

- 저희가 온 이유 중 하나가 할아버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이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이거든요. 혹시 어디에서 혹시 태어나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던 있으신지요?

들어만 봤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죠.

- 성북동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예, 저희 할머니한테. 왜냐면 저희가 뭐 (증명서) 떼러 가면 할머니랑 꼭 성북동에 가서 서류를 떼고 그랬었거든요, 동사무소에. 그 기억이 나요. 되게 멀게 느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라서.

- 거기가 본적지였던 거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최용덕 장군이 중국으로 간 계기

- 할아버님의 연혁을 보면 한 12살 땡가요? 그때 중국으로 가시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17살 때 중국으로 가셨죠. 제가 할머니한테 듣기로는 할아버지가 일본 군인이 되기 싫어서 가셨다고 해요. 그때는 젊은 사람들을 잡아가서…….

- 징집 같은 건가요?

예, 그냥 일본 군인으로 시켰잖아요. 그래서 일본 군인이 되기 싫고, 일본 군인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을 죽여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중국으로 가신 거죠.

- 중국으로 어떻게 가셨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뭘 타고 가셨거나…….

그런 거는 못 들었어요. 힘들게 가셨다고만……. 거기에서 혼자서, 가족 없이.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중국에 있으면서 할아버지가 중국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로 알고, 잊지 않고

자기도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중국분들도 뭐 도와주고 그러셨어요. 어려웠을 적에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줬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할아버지 최용덕 장군의 이야기

- 할머니께 들은 얘기 말고 다른 주변 분들한테 할아버님 얘기 들으신 건 혹시 있으세요?



공군참모총장 재임시
(사진제공 :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옛날에 책 쓰신다고 그랬을 적에 장지량(張志良)²⁾ 장군님도 뵈고, 다른 장군님도 뵈고 인사드리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조금 들었죠.

-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니까 최 장군님, 할아버님이 없으셨으면은 장개석 님한테 그때 여기 한국으로 들어왔을 적에 그렇게 해서 중국에 보조를 받고 나라를 구하셨

2) 장지량(張志良, 1924년 12월 15일~2015년 2월 2일)은 대한민국의 군인, 외교관, 정치가이다. 대한민국 공군 창설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제9대 공군참모총장과 제10대 국회의원과 성우회 회장과 자유민주연합 외교안보행정특임위원을 지냈다.

을 때 그분이 없으셨으면은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할아버지가 장개석 님하고 우애가 좋으셨으니까.

- 할아버님께서 한국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중국군에서 참모장까지 이렇게 지내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중국군에서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건지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나라 사랑하시는 분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목표가 뚜렷하셨겠죠.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지 그 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 와서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 주변 분들은 할아버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른 동료들한테는 어떠셨는지…….

제가 들은 거는 어려운 동료들 있으면 항상 도와주고, 심지어는 자기 동료가 지나가는데 신발이 헐어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주셨다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항상 뭐 밥 먹었냐 물어보고, 안 먹었으면 가서 밥 먹어라……. 아마 자기가 중국에서 어렵게 그거(생활고)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신 것 같아요.

- 그럼 할아버지에 대한 중국에서의 평가, 그런 평가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할머니의 형부분이 얘기한 게, 정말 동료들한테도 잘하고 중국에서까지. 그러고 일 열심히 하고 인정 받은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 하긴 그때 장개석과 친분이 있을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셨던 분이
셨겠네요.

네. 중국 대사로 대만에 일하러 가실 때도 장개석 님하고 송 여사님도 기뻐하
셨다고 해요. 할머니도 가도 아시고, 친구분이니까 가끔 가다 집에 초대해서 식사
하고 그러면은 할머니가 그냥 우스개 얘기로, 가서 밥 먹어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무서웠대요. 왜냐면 장개석 님이 앉은 자리에 셰퍼드 개 두 마리가 있다고 그러시
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데도 동작 하나 잘못하면 개가 짖을까 봐. 그러면서 농담
하시고 그러면서 그럴 정도로…….

- 서로 댁에 초청하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셨나 봐요.

예, 그 집에 가서 가끔 식사하셨다고 들었어요.

- 그럼 한 2년 정도 대사로 가 계신 건가요?

그때가 2년 간인가 3년 간인가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할머니가) 그
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뒤에서 조용히, 한국말로 하면 뭐죠? 바가지도
안 긁고 열심히 뒤에서 내조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 돈 나눠 주는데 거기
에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편하게 그런 거를 하시지 않았을
까…….

- 책에서 읽으니 할아버지께서 나가실 때 할머니께서 마음에 걸리는 말씀 하시면,
할아버님께서 비행기 타시다가 사고 나실까봐 안 좋은 말씀은 안 하셨다고 하시
던데요?

예, 그거는 불안하셨다고 해요. 여기(한국) 와서 만약에 무슨 일 나면은 어떻
겠어요. 혼자서. 타지에서.

할머니 이야기 ③

- 할아버님이 (반춘래) 선생님이 태어나신 해에 돌아가셨으니가 꼭 할머니와 사셨는데 그때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셨는지요?

그때 보훈청에서 연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생활을 했죠.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있을 적에도 그렇고, 되게 검소하시고 아끼시고 저축하시고 그러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할아버지가 생활비 딱 나눠주면은 그거 가지고 생활비 하면서 그러면서도 돈을 모으시고, 돈을 모으셔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집 장만하시고,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애

기는 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보증 같은 거 서서 다 차압을 당한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집에서 두 번인가 쫓겨나고, 근데 다행히 할머니가 목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단칸방도 구하고, 그리고 또다시 시작하고, 중국에서도 집 하고 땅도 할머니가 또 모아서 사시고 그러셨어요.



말년에 최용덕 장군과 호용국 여사가 살던 집.
서울 대방동 우주마루아파트 단지 내 공군중앙성당
옆에 최용덕 장군의 옛 집터임을 알리는 비석이
있다.

- 참, 할아버님만큼 할머니이 대단하시네요.

할머니가 대단하세요.

- 그러니까 아마 (할아버님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할머니 참 대단하신 분이셨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전쟁 때 도망가는데 엄마랑 둘

이서도 갔고, 도망 다니시잖아요.

- 할머니는 6.25전쟁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들으셨나요?

예. 할아버지는 전쟁 가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서. 그래서 짐 들고 도망가시는데 한 번은 북한군한테 잡혔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디 있냐고, 깜깜한 데서 딱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한국어를 잘 못 하셨잖아요. 근데 알아듣기는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좀 피를 쓰셨대요. 아예 모르는 걸로. 그래서 거기서 통역관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통역관을 찾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못 찾아서 답답하니까 남편 어디 있어, 대라고 계속……. 그래도 못 알아듣는 척을 해서 알았다고, 집에 가라 그래서 살아서 돌아왔어요.

- 큰일 날 뻔하셨네요.

할머니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고. 알아듣기는 들었는데 아예 한국말을 못 하는 척을 해서, 그래서 살아남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그러셨대요. 그때(전쟁 때)는 돈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니까 금을 모으셨나 봐요. 금반지 같은 거. 그리고 전쟁 때 가서 쌀을 사긴, 채소를 사긴. (제) 엄마가 어리니까 밥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금을 갖고 가서 그걸 사서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억은 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이 다음에 전쟁이 나면 돈 가치가 없으니까 금을 모아 놓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고서 전쟁 당시에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총 맞고 쓰러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거 보고 그러셨는데, 참 놀랐다고. 그러면서 헌 집 같은 데 들어가서 숨어있고, 할아버지 오는 거 기다리셨대요. 군인들 보면 할아버지 어딴는지 물어보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합장묘

- 그러면 할머니 묘역은 어디에 있나요?

할아버지랑 그 같은 데, 국립묘지에 합장되어 계세요.

- 그러면 이번에 한국 들어오셔서 또 묘지에 다녀오셨어요?

예. 첫날에 도착했을 때 들르고, 항상 도착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다녀와요. 어저께 처음으로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화장(火葬)하는 그 의식. 그게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거기 사관학교에도,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화장하는 걸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처음 봤어요. 어저께. 옛날에는 화장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나는 화장할 거다. 깨끗하게 화장할 거다.' 그래서 재밌는 얘긴데,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화장하면 아프지 않냐. 너가 화장하면 나도 화장할 텐데 그럼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죽은 사람이 뭐가 아프냐.'고……. 어저께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화장했어요.

- 어떤 종교적 신념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저희 할머니는 종교적인 게 있었고요. 할아버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 할머니님은 종교가 뭐였나요?

그때 교회에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랑 교회에 다니고.

- 그럼 평생 신자로 지내신 건가요?

원래는 아니었다가, 신자가 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되게 믿으셨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외손녀가 바라는 사람들의 기억 속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 마지막으로 할아버님과 할머니가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는지, 손녀 입장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조 정말 많이 해 드렸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청렴결백하신 분, 깨끗하신 분이 라고. 그게 아주 중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런 분이 아마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 까 그게 기억나요.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할아버지가 군인이셨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한대요. 그런 게 많잖아요. 부탁하고 뭐(뇌물) 갖다 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받고, 할머니한테도 그런 거 받지 말라 그리고, 어떤 분은 오셔서 '저희 아들이 38선에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오면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신 아들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자식도 중요하다고. 그 자리를 메꾸려면 다른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거절하셨다고.

할아버지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중국 가서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니깐 저는 지금 이 사회도 그런 식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그런 부분도 받으면서. 그러면은 사람들도 그게 오고 가고 돌고 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사랑도 주고받고.

- 할아버님께서는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돼서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으신지요?

제가 그런 건 못 들었고요. 할아버지가 정말 나라 사랑해서, 나라가 잃었다는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최용덕 장군의 외손녀 반춘래 님(왼쪽)

거에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나라를 잃어버린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지키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셨다고.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생각으로, 나라가 중요하고 나라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셨대요.

-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 도움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할아버님에 관한, 독립운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부족하단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분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분인지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지요

_유우석 · 조화벽의 며느리 김정애를 만나다

5 독립운동가

유우석(柳愚錫) · 조화벽(趙和璧)

출생 : 1899. 5. 7, 충남 천안

출생 : 1895. 10. 17, 강원 양양

사망 : 1968. 5. 28, 서울 성북

사망 : 1975. 9. 3, 서울 성북

·
;

유우석은 일제강점기 충남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유관순의 오빠이다. 1919년 3월 12일과 15일에 걸쳐 공주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자극받은 영명학교 교사 김관회(金寬會)·이규상(李圭商)·현언동(玄彦東)과 졸업생 김사현(金士賢), 재학생 오익표(吳翼杓)·안성호(安聖鎬) 및 목사 현석칠(玄錫七) 등이 3월 24일 밤 9시경, 영명학교 사택에 모여 4월 1일의 공주읍 장날을 이용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때 학생대표로서 참여해, 3월 30일 김관회로부터 학생동원과 독립선언서의 등사를 부탁받은 영명학교 조수 김수철(金洙喆)의 집에서 노명우(盧明愚)·강윤(姜允)·윤봉균(尹鳳均) 등과 만나 독립만세운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튿날 오후 3시경 이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독립선언서 1,000여 매를 등사하고 대형 태극기 4개를 만들었다.

4월 1일 오후 2시, 다른 학생대표들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장터에서 군중에게 나누어 주고 그 선두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독립만세운동은 일제의 강력하고 신속한 제지로 좌절되었다. 결국 비교적 소규모로 전개되었을 뿐이고, 유우석은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잡혔다.

한편, 같은 날 아우내(並川) 장터의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했던 유우석의 아버지 유중권(柳重權)과 어머니 이씨(李氏)가 현장에서 순국하고 동생 유관순도 잡혀 유우석의 가정은 파멸될 지경이었다. 공주검사국으

로 송치되어 동생 유관순을 잠시 만나기도 했으나, 결국 이 해 8월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1923년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재학 중 조국수호회를 조직해 활동하다가 구금되었다. 1927년에는 원산청년회(元山靑年會)를 조직, 활동하다가 일본경찰에 잡혀 함흥 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받는 등 계속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4년 양양·강릉에서 설악회(雪岳會)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구속되었다.

한편, 유우석의 부인은 강원도 양양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던 조화벽(趙和璧)으로 가족 모두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애국가족이다. 1982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1895년 10월 17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의 감리교 전도사의 무남독녀로 태어난 조화벽은 1910년 원산성경학교, 1912년 원산 루씨여학교를 거쳐 개성 호수돈으로 진학해 거기서 3·1운동을 맞았다. 그는 개성 3·1운동에 참여하고 선언서 한 장을 버선 속에 감춰 고향 양양의 대포항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숨겨온 선언서는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양양 3.1운동을 촉발했다.

그 후 한동안 산중에 피신했다가 학교로 돌아가 1919년 개성 호수돈여학교 고등과를 마쳤다. 그해 가을 공주 영명여학교 교사로 파송돼 가르치

던 중 고아가 된 유관순의 두 동생을 황인식(黃仁植) 교감이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을 친동생처럼 돌보아 주기 시작했다. 남편 유우석의 옥바라지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유우석과의 결혼은 개성에서 함께 만세운동을 하고 유관순과 같은 감방 생활을 했던 어윤희가 권유해 이뤄졌다. 1923년(호적에는 1925년 4월 14일) 유우석과 혼인했을때 조화벽은 4살 연상이었다.

1932년 가난한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 원산에서 고향 양양으로 와 정명학원(貞明學園)을 설립, 농촌계몽 교육에 헌신했다. 정명학원은 1944년 폐교될 때까지 600여 명을 졸업시켰다. 그는 가난속에서도 어려운 사람에게 쌀도 퍼주고 무엇이든 나눠주기를 즐겼다. 그러나 자신은 근검절약에 철저한 생활을 했다. 또한 전신불수가 된 어머니를 12년 간 지극정성으로 모셔 효녀로서도 이름이 알려졌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건국운동을 일으키다가 소련군의 박해를 받고 월남해 1975년 9월 3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79세로 생애를 바칠 때까지 신앙으로 생활했다. 1982년 대통령 표창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김정애 여사는 독립운동가 유우석 조화벽의 맏며느리이다. 1959년 유우석의 장남 유제충과 결혼한 그녀는 정릉동 604-16번지의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시아버지는 평소 말씀이 없으셨지만 시어머니 조

화벽으로부터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들었다고 한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3.1여성동지회 발전에 헌신하고 회장직을 맡아 여성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고 알리는 데 힘썼다. 2016년에는 두 시부모님이 남긴 유품을 국립여성사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증품 중에는 조화벽 지사가 개성에서 양양까지 독립선언서를 운반하는 데 사용했던 가방도 있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2019년 11월 19일(화) 오후, 탑골공원 부근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김정애 여사를 만났다.

구술자: 김정애(유우석·조화벽 지사의 며느님, 3.1여성동지회 전 회장, 현 명예회장, 1936년생)

면담자: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구술일자: 2019. 11. 19.

구술장소: 서울 중구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사무실

구술시간: 81분

구술녹취: 인서열(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녹취정리: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소개

- 먼저 회장님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쪽 서울에서 살았어요. 6.25전쟁 때 대구에 피난을 가서 대구여중 다니고, 효성고등학교에 잠시 다니다가 서울에 복교해서, 경기여자 중·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쪽 활동한 거는 주로 3.1여성동지회. 회장을 세 번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은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 노릇을 했죠. 3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틀어박혀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직장에 나가 있을 때 손님들이 오시고 그런 것

을 다 모른다고요. 그렇지만, 대강 듣고 아는 거지.

정릉집에서의 신혼생활

- 부군이셨던 유제충 선생님과 어떻게 만나 결혼하셨습니까?

우리 오빠가 시의원,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랬을 때 운동원 중에 한 분이 저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죠. 저희 남편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두 번 했잖아요. 그런데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때 당시에는 자유당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야 될 시기인데 그 분은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또 한 번은 뭐, 독립노동당. 독립노동당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 때 시대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죠.

- 결혼하신 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59년도.

- 결혼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 신혼집은 어디로 처음 장만하셨나요?

처음에는 을지로의 어느 빌딩의 3층인가, 거기서 잠시, 한 달도 안 살았나, 아무튼 그러고는 정릉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 집은,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주 얇은 벽으로 된, 형편없는 집이었죠.

- 그러면 정릉 집으로 오셔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함께, 그러면 같이 사신 거네요.

예, 함께 살았죠.

-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로 출퇴근하시고…….

네. 그랬죠.

- 시부모님을 뵈을 때, 유우석 선생님이나 조화벽 선생님의 첫인상? 느껴지는 집안 분위기, 이런 게 지금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요?

저희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님은 상당히 엄격하신 분이예요, 성격이. 저희 시아버님도, 별로 웃으시는 걸 못 봤어요. 저희 시어머님께서도, 성격이 상당히 활발했던 분이신데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는 고혈압이 있어서 말씀이 좀 얼얼하시더라고요. 성격도 두 분이 다 강하신 분이예요.

그런데 생활은 상당히 검소했어요. 검소라는 게 청빈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저희 시아버님이 아마 시할머니, 시할아버지의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결혼하실 때 그러면 시아버님의 동생 되시는 분이 유관순 열사라는 걸 알고 결혼을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영화 봤잖아요. 영화 보면 열렬한 애국지사로서의 유관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박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 집에서 찬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을 우리 할머니가 보시더니, 안색이 안 좋다고, 건강이 나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눈에는 그게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죠, 네.

- 결혼하셨을 때 정릉 집에 사셨던 가족 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둘.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막내 동생이 다른 집으로 양자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양자로 갔으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



유우석·조화벽 가족이 살던 정릉 집(2013년 촬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128(옛주소는 정릉동 604-16번지)에 있었으나 지금은 이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서 사진 속의 집은 온데간데 없다.

는 모두 따로 살았겠죠. 그런데 그 숙부님이, 우리는 밤낮 숙부라고 그러지만 그분은 호적상으로 보면 17촌쯤 되는, 그런 집으로 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자녀들 가운데 아들 하나를 저희 집에 맡기고 다른 데로 재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정 조카딸도 있었어요.

- 그러면 식구가 총 6명이었겠네요? 그러면 방은 몇 개 정도?

방은 두 개지.

- 딱 두 개 있던 전가요?

네. 근데 부엌 옆에 기다란 거,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방이 둘에, 부엌, 마루 하나. 그리고 구석에 아마 한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었지 않나?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 가지고 그 집을 조금 개조했어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을 개조해 가지고 벽돌로 좀 쌓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루에 전부 이렇게 문을 해서 달고, 또 방을 하나 조금 들이고, 그렇게 해서 벽돌집이 됐는데, 아주 조그만 규모죠.

- 저희가 만든 책이 있는데, 한 번 사진을 한 번 그 주소지에 가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한 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

아, 그거 알아요. 그거 본 일이 있어요. 네. 하하.

- 그러면 그 집이 맞습니까?

네. 하하하. 그거는 고친 후에요. 고치기 전에는 아주 형편없는 집이었죠.

- 지금은 이 집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네?



조화벽 지사 가족(앞줄 : 손자 덕상과 조화벽 지사,
뒷줄 : 왼쪽부터 아들 유제충, 조카 유제한, 며느리 김정애)

- 여기가 이제, 이 집을 다 허물고 아파트가 들어서서.

지금은, 없더라고요.

- 저희도 지금 아쉬워요. 2013년까지는 그래도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떠난 것이 82년이었어요. 82년에 여기 압구정동으로 왔지요.

유관순 열사

- 3.1절만 되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추도식을 집에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시아버님은, 우리가 가난하지 않느냐. 음식을 차리고, 뭘 한다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묵념을 하자. 그렇게 아주, 원칙을 정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셨어요. 우리야 뭐 할 말이 없지요, 뭐.



유관순 열사

- 하하.

유관순 열사뿐이에요?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도 그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세 분을 제사지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 그러면 어떤 날짜에 추도식을 하셨나요?

4월 1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3월 1일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유관순 열사는 9월 28일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 그러면 유우석 선생님께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해주셨나요?

평소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조금 고집이 세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냥 보리방아를 찧잖아요. 그러면 다섯, 여섯 살밖에 안 된 관순이가, 엄마를 도와서 보리방아를 찧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좀 놀라운 얘기죠.

또 동생들이 싸우고 들어와 가지고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고 징징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관순 열사는 동생에게 자세히 묻는데, 어떻게 돼서 싸움이 됐느냐. 그걸 다 자세히 묻고 나서, ‘그건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너희 맞아도 싸다.’ 그러면서, 하하하, 그렇게 하셨대요.

- 하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분명하셨네요.

네. 누나가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더니 ‘그건 너희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편을 들지 않았대요.

- 또 일화 중에, 그러면 시아버님과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공주 법원인가? 거기서 이렇게 잠깐 만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만났다고 그러대요. 거기 뜰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때에 비로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거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오빠는 그거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안 거죠.

- 그럼 서로 그 말씀만 전하고 다시 헤어지셨나요?

그거 뭐, 지나치지 그, 무슨 얘기를 할 틈이 없었잖아요.

- 그리고 이후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면회 가서 만나셨다고…….

우리 시아버님은 배재학교 학생 시절이죠. 세 분이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김현경 선생은 막 요구했죠. 이게 암만 해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출옥을 시켜주라고 애원을 했지만 (형무소에서) 안 된다고 딱 자르더라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면 죽으면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시아버님한테 ‘오빠, 나는 암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후회는 안 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했으니까요.’고 얘기했대요.

우리 시아버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칠십 평생을 살아도 못할 일을 너는 해냈다, 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현경 선생이 이제 유관순 열사의 손을 만져봤잖아요. 손을 만져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피가 묻어나올 정도였대요. 그때 방광이 손상되어 있었으니까 피가 전부 썩는 거죠.

유우석과 조화벽의 만남

- 그 후에 조화벽 선생님께서 유관순 열사의 동생분들을 거두셔서 돌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께서, 그 저, 호수돈(好壽敦) 여학교 다닐 때, 비밀결사도 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실 때에 독립선언서를 버선속 있는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트렁크에 감춰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양에 만세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죠. 그래서 그 기독교 청년들의 세력이 그때 뭉친 거예요. 당시에 양양에 보수 세력도 있고 기독교 청년 세력도 있었는데 3.1운동을 통해서 그것이 화합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께서 태극기도 만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누설

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만세를 부르지 못하도록 했고, 우리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사촌동생 조연벽, 또 호수돈 친구 김정숙. 그 세 분이 양구라는 곳에 피신을 갔어요. 그러다가 검거선봉이 어느 정도 찾아들자, 다시 개성으로 갔어요.

개성으로 가서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공주 소학교 선생님이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황인식 교감이라는 그 분 댁에 기숙을 했는데, 조그만 소년들이 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유인석, 유관석이면 유우석 선생의 동생이고, 유관순의 동생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형이 아주 불쌍하게 감옥에 있다니까 또 옥바라지도 했겠죠.



독립운동가 조화벽 지사가 개성에서 강원 양양으로 갈 때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서 운반했던 가죽가방으로 2016년 4월 김정에 여사가 고양 국립여성사전시관에 기증한 것이다.

- 조화벽 지사님과 유우석 지사님이 결혼 하시게 된 게 유우석 선생님의 프러포즈 때문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더러 누님, 누님 하다가 나중에 결혼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그때에 나이가 스물여덟인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결혼할 생각을 별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아버님하고 나이가 4살 차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동생들도 있고.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동생을 하나 더 얻는다는……. 하하.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어윤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그, 전도부인인데, 정말 독립운동가거든요. 개성에서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그분은 유관순 열사하고 같은 감방에

계시다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유관순 열사가 가끔 우는데, 왜 우느냐고 물으면 별안간에 고아가 된 어린 동생들이 불쌍해서 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꼭 하시니까, 불쌍한 그 집안, 그런 걸 생각하고, 의협심이 생기신 거죠. 불쌍한 애국지사의 가정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걸로 해서…… 그리고 우리 시아버님이 굉장히 미남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뭐, 좋아지셨겠지요. 하하.



백노 유우석

- 결혼식은 따로 올리셨나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식을 밤에 하셨대요. 개성에서는 밤에 하는 풍습이 있나 봐요.

- 개성에서 하시고. 그러면 개성에서 조금 사시다가 나중에 그러면 양양으로 오신 거네요?

네.

3.1운동 이후 유우석의 독립운동

- 유우석 지사님께서서는 3.1운동 이후에 주로 아나키즘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독립운동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 또는 공산주의, 그 다음에는 아나키즘. 그렇게 세 계열인데 우리 시아버님이 원래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 나왔잖아요. 공주 영명학교도, 또 배재학당. 그것도 기독교 학교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 시아버님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날 시아버님이 (그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무시를 하고 그러는 거에 반발하셔가지고, 예수를 안 믿기로 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 다 찢어버리고, 유학 보내준다는 거 거부했어요.



소산 조화벽

그리고 아나키즘으로 돌아선 것은, 가까운 친구 분들이 아나키스트였던가 봐요. 이강훈 선생. 이강훈 선생님하고 굉장히 가까우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그 분한테 우리 시아버님이 보내셨어요. 제가 95년경인가 이강훈 선생님 찾아봤어요. 댁으로 찾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어, 유우석의 며느리가 너냐고 그러면서 내가 여러 장 편지를 받았지만 이거 하나를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강훈 선생님도 무정부주

의자였다고요. 아나키스트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에요.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다 제가 뭐 외우지도 못하고…….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받으시고, 평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보면 쉬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조금 괜찮은가 하면 우리 시어머니 말씀이, 어느 날 안 돌아온대요. 며칠이 지나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제, 어떻게 됐나 하면 어느날 경찰서에서 편지가 온대요. 면회를 오라고. 그러면 밤을 새워서 바지저고리를, 솜바지저고리를 만들어서 면회를 가고 하셨대요. 그런 일이 계속 되니까 우리 시어머님은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해방 이후 유우석의 활동

- 해방 이후에 시아버님은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전국활동이라든지 유도회(儒道會) 활동이라든지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독립노동당도 하셨죠. 독립노동당은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내신 유림(柳林) 선생하고 같이 독립노동당 하셔서 감찰위원장 같은 것도 하시고, 집행위원도 하시고 그랬죠.

- 유림 선생님은 같은 집안 분이신가요?

집안은 아니지만, 유림 선생도 아나키스트예요. 김창숙 선생님하고도 가까웠던 것 같아요.

- 댁에 손님들이 많았나요?

국수를 많이 만들어놓고, 손님이 오시면 국수를 대접을 했어요.

- 조화벽 지사님께서요?

네, 근데 얼마 있다 일하는 아이를 뒀죠.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닐 때에는, 국수는 그러니까 멸치 국물 내가지고 또 고명이라고 해야 양파나 파, 감자볶음 그런 거 조금 얹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고기를 사서 대접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겨우겨우 살았었죠. 근데 참 우리 시아버님은 5·16 군사혁명 나가지고 붙들려 어디로 떠나셨어요. 또 남편은 경찰이 와서 붙들어 갔어요. 왜 붙들어 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붙들어 가더라고요.

- 4.19 이후에도 그렇게,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계속 하신 거네요?

4.19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에, 제 방에 모두 딱지가,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 붉은 딱지라는 거는 차압한 거죠, 차압. 이게 뭔가 나는 잘 몰랐는데, 근데 우리 시아버님이 아마 유도회 하실 때,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돈을 써서, 활동비로 주셨나 봐요. 근데 그걸 갚지 못해가지고 차압이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얼마 후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마 갚으셨나 봐요.

유우석 지사의 평소 모습

- 시아버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집에서 계실 때 어떤 모습으로 계셨나요?

저희 시아버님께서서는 책을 많이 읽으셨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시로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앉아계실 때는 이렇게 시조를 읊으셨어요.

조화벽의 기독교 신앙

-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화벽 지사님에 대해서 한 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조화벽 지사님은, 이제 그 아버님께서 본처 전도사 겸 장로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서는 전도 부인이셨고, 그때 계시던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새로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가본 일이 없어요. 거기에 조화벽 기념 기도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 아까 시어머님 집안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셨는데, 유관순 열사의 집안과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우리 시어머니께서 자란 분위기는 완전히 기독교지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성장해서도 결국은 루시라든가 호수돈도 다 기독교 계통이거든요. 유관순 열사의 집안보다 더 기독교적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 유우석 선생님이 나중에 기독교를 버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화벽 지사,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이제 그렇게 신앙을 지키셨나요?
끝까지, 아주 끝까지. 하하.

- 그러면 두 분이 혹시 종교갈등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아니, 종교 갈등이라기보다는, 성격이 모두 두 분이 강하기 때문에 가끔 부딪히죠. 우리 시어머니는 초지일관 주일이면 교회에 다니고, 저도 데리고 갈 때도 있는데, 저는 가끔 못 가는 게 뭐냐면 시아버님 친구들이 일요일이면 오세요. 그러면, 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뭐 국수라도 삶아 내고,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그런 게 있

어서 저는 이제 제가 직장 다니고 그럴 때에는 교회에 많이 못 갔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창립할 때까지, 창립 때부터 저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다녔죠.

- 그러면 교회는 정릉 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네. 정릉에서 미아동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아동 교회에서 길음 교회로 이동하시고, 길음동교회, 지금은 미아중앙교회인데, 저는 지금 그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 교회가 처음에는 길음교회였어요.

조화벽의 교육·사회·기독교 운동

- 조화벽 지사님께서 이제 양양에서 정명학원을 세우시고 거기 선생님께서 계셨다고 했는데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책에 나오더라고요.



양양 정명학원 제2회 졸업기념 사진(1939년)

네. 성격이 원래 강하시지만, 호랑이 선생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적령기를 넘는 아이들, 그러니까 정규 학교를 못가는 아이들. 개네들이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러니까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래야 이제 무서워가지고, 개네들 뭐, 정규 학교 안 다니던 아이들이 제대로 시간을 지키겠어요, 뭐, 저희 멋대로죠. 그러니까 호랑이 선생님이 되는 거죠.

- 그러면 정명학원이라는 곳이 선생님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규모였습니까?

아, 선생님은, 처음에는 저희, 그 조영순 할아버지가 아마 교장 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는 저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을 조금 더 뽑으셨나 봐요. 근데 해방 전, 1944년까지 탄압이 심해지니까 폐교했지요.

- 거의 집안의 재산을 털어서 만든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교회를 학원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 교회는 조영순 선생이 세우신 거구요. 교회에다가 학원을 만드는 거니까 돈이 크게 들었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 그 때 정명학원 제자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잠깐, 몇 번 찾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언젠가 제가 한 번 보니까 찹쌀이 한 가마 있고, 또 이만한 통에 과자가 가득 들었어요. 이것이 어디서 생겼느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옛날에 정명학원 다닐 때에, 가르치던 그 제자가, 과자공장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찹쌀을 잘 먹었지요. 하하하.

- 하하하.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양양에서 서울로 오셨잖아요. 그때 굳이 또 정릉으로 오신 이유가 있는지요?

8.15 해방이 되니까, 그 양양면은 북쪽에 속했어요. 양양이 두 군데로 갈라졌

는데, 한 쪽은 북쪽에 한쪽은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이, 양양면이 그렇게 북쪽으로 속했는데, 인민재판이 열렸대요. 근데 그 면장(面長) 하던 분이, 나는 그 분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면장 하던 분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웁소!’ 한 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에 아마 그 면장이 그래도 인심을 많이 잃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짊 나열하고 찬성하면 죽이는데, 그때 우리 시어머님이 단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저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단을 해야겠지만 면장을 했다 해서 다 나쁜 짓 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합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연설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쪽 둘러서 있던 면민들이 ‘웁소’ 그랬대요. 우리 시어머니 말씀이 옳다 그러면서 ‘웁소’, 모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처단을 안 받았어요.

- 다행이었네요.

네. 근데 그 분이요, 내가 얼마 전인가 서울에 내가 무슨 학술대회 하느라고 백범기념관에 갔는데 그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나는 그 분을 모르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분이 그 때에 면장을 하던 분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은) 양양에서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죠. 소련의 탄압이 자꾸 가해지니까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달도 없는 밤에 그냥 이렇게, 월남을 하셨는데 그 때에 월남, 금방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군대에서 돌아오길 기다린 거죠. 해방 이후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해방 되고도 8개월인가 몇 개월 지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주 거지 행세를 하고 돌아왔대요.

- 만주에 계시다가 돌아오신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탈출은 했지만, 잡힐까봐 이렇게 이 집, 저 집 이렇게, 동냥

을 하면서 집에까지 오는 데 몇 개월이 걸렸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그러면 보면 시어머니께서 그런, 이렇게 연설할 수 있는, 재능이랑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대중 앞에서 말씀 잘 하셨나 봐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께서는요, 연설을 잘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연설하는 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러세요. 아들이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단상에 올라가서 아들을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활발한 성격이시죠.

- 거기다가, 그렇게 했을 때 옳은 말도 하셨겠지만, 약간 그 양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 존경을 하시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선생님 노릇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디 보니까, 원산 부두 노동자들의 모임에서 무슨 부회장인가 하셨더라고요.

- 네? 모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내가 처음 알았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일도 하셨구나.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사업.

- 해원상보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사회 운동도 하셨다는 얘기에요. 기독교 절제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3.1여성 동지회 나가면 독립운동 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조화벽 며느리라고, ‘아, 김 회장이 조화벽 며느리야?’ 그러면서, ‘어, 알지. 잘 알지.’ 그

러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활동, 교육활동, 또 그런 구제활동, 노동자들 돕고 그런 일도 하셨다고요.

- 해방 이후에도 그런 활동들을 좀 이어나가셨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월남하셨잖아요. 아마 그렇게 활동을 활발히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잖아요. 고향에서 막내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둘째아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고, 첫째아들이 함께 모시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첫째아들도 어머니보다 먼저 갔잖아요. 이런 불행을 겪으셨죠.

근데 시어머니는 생전에 독립유공자 대우를 못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 분은 독립운동가 이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때) 관에다가 제가 집에 커다란 태극기가 있는데 그게 아주 넓고 바란 태극기예요. 독립노동당이 쓰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덮어드리고 그 위에 십자가, 관보를 덮고 그랬지요.

소산 조화벽

- 조화벽 지사님이 소산(小山)이라는 호를 쓰셨나요?

네. 작을 소(小)자에 피 산(山)자. 작은 산이라는 뜻인데 항상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님) 양양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시고 그랬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요. 그런 이야기가 밝혀지고 나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돌아와 가지고 ‘어머니는 왜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너희 집이 어떤 집안이나.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세운동 하시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너희 시고모님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시고, 너희 시아버님은 평생, 독립운동을 하셨지 않느냐. 내가 한 것이 뭐 대단하다고 내가 한 일을

이, 얘기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치 않게, 작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같이 가깝게 예전에 지내시던 분들만 알고 계시는, 그런 사실이었네요.

네. 참, 우리 시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너무, 한 여성으로서, 너무 너무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지요.

백노 유우석

- 시아버님의 호가 ‘백노(白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나요?

네. 흰 백(白)자에, 노예 할 때 노(奴)자. 근데, 저는 ‘백노(白奴)’라 하면, 그 새, 새 이름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백노(白奴)’라고 했느냐. 배달민족의 노예가 되겠다, 배달민족을 받드는 노예가 되겠다는 그러한 호였다고 그래요.

- 우리 민족의 노예가 되겠다, 기꺼이, 뭐 이런? 굉장한 의미를 가진 호네요.

네.

기억과 계승

- 이제 마지막으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님은 평생을 독립운동 하시고 고난의 세월을 많이 겪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 그것은 정말 너



인터뷰 후 기념사진. 왼쪽부터 박수진 운영과장, 김정애 여사, 유정우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

무 숭고한 거죠. 저희 시아버님이 몸이 약하셨던 이유가 하도 얻어맞으시고 고문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 시어머님은 너무나 가난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두 분들은 정말 평생을 나라를 위하여 사셨고, 또 유씨 일문을 위해서 그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의 정신을 우리 후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물려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네. 저희 성북구에서도 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좀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

_김의한 · 정정화의 아들 김자동을 만나다

7 독립운동가

정정화(鄭靖和) · 김의한(金毅漢)

출생 : 1900. 8. 3, 서울

출생 : 1900. 1. 8, 서울

사망 : 1991. 11. 2, 서울

사망 : 1964. 10. 9, 평양

정정화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이다. 1910년 당시로서도 어린 나이에 김의한과 결혼했다. 1919년 남편 김의한이 시아버지 김가진을 모시고 상해로 망명하자 곧이어 상해로 망명했다.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한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1930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중국과 조선을 오가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였으며 이동녕, 이시영, 김구의 가족 등 임정요인과 그 가족들을 돌보았다. 남편 김의한과 함께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켰으며, 한국독립당 광복군 창립에도 참여했다. 또한 한국혁명여성동지회 조직, 대한애국부인회 재건대회에서 훈련부장에 선출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해방 이후 귀국한 후에는 건강 등의 문제로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1987년 『녹두꽃』(훗날 『장강일기』로 재발간)이라는 저서를 남겨 임시정부의 상황을 생생히 남겼다. 아들 김자동의 증언에 의하면, 윤보선 前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했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198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김의한은 동농(東農) 김가진의 아들이다. 1919년 10월 대동단(大同團) 활동을 하다가 아버지인 김가진과 함께 상해로 망명했다. 1928년 6월 상해에 있던 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中國本部韓人靑年同盟)의 상해지부 조직에 참가하여 재정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에도 임시정부와 함께 활동을 이어갔는데 선전위원회 선전위원, 비서처의 비서 등을 역임했다. 1940년 5월 창립한 한국독립당에서는 감찰위원회 위원과 상무위원으로 활동했다. 1940년 9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중국 국민당정부로부터 광복군 활동을 정식으로 인정받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독립군 활동을 이어갔는데 1943년 8월에는 광복군 조직 훈련과장, 1945년 6월에는 정훈처 선전과장으로 광복군에서 활동했다. 해방 이후에는 한독당 중앙상무위원으로 재선임되었으며, 1948년에는 김구와 함께 한독당 대표로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돈암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역시 돈암동에 거주하던 조소앙 선생 집에 감금되었다가 납북되었으며, 1964년 평양에서 별세한 것으로 전한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이번 인터뷰는 두 부부의 아들인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이하 김자동 회장)을 인터뷰한 것이다. 1928년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서 태어난 그는 이시영, 이동녕 선생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으며 김구 선생

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윤봉길 의사에게 초콜릿도 받은 그야말로 임시정부의 아들이다. 그 역시 해방 이후에 부모님과 함께 돈암동에 거주하였으며, 당시 이미 20세에 가까운 나이였으므로 돈암동 집의 주소지 등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임정시절의 기억은 물론, 해방 이후 돈암동 시절의 기억, 부모님에 대한 기억, 김구 선생 등 임정요원에 대한 기억 등 다양한 대화들이 오고 갔다. 이어지는 글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구술자: 김지동(정정화·김의한 선생의 아드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1929년생)

면담자: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구술일자: 2019. 11. 21.

구술장소: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실

구술시간: 160분

구술녹취: 한승우(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재학생)

구술정리: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귀국과 서울 살이_돈암동 시절을 중심으로

-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희는 성북문화원에서 왔습니다. 회장님의 양친이 돈암동에 거주했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비롯해서, 독립지사들의 해방 후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 회장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돈암동 시절을 비롯하여 귀국 후 서울 살이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귀국해서 맨 처음에 산 건 종로구 혜화동이었어요. 거기서 한 1, 2년 살았나. 사변(한국전쟁) 전에 돈암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의 동선동 성신여고 근처로. 산꼭대기 이렇게 있으면 돈암동 종점 가까이 있는 데 말고 반대쪽, 그러니



가족사진(왼쪽부터 김의한, 정정화, 김자동)



임시정부 요인의 피신을 도와 준 중국인들(가흥 저봉장의 집, 1933).
 어린이 왼쪽: 자동(김의한 아들)·기동(엄항섭 아들)·기선(엄항섭 딸)
 앞줄 왼쪽: 허수생(진동생 아내)·정정화(김의한 아내)·민영구 어머니·연미당(엄항섭 아내)·
 주가에(저봉장 아내) 뒷줄 왼쪽: 진동생·○·김의한·이동녕·박찬익·김구·엄항섭·저봉장

간 동선동 쪽에 그 밑에 한옥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얼마 전까지도 그 집이 그대로 있었나 봐. 지금까지는 전부 개축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동네 안 가본 지가 몇 십 년 됐으니까. 하여튼 그 집에서 오래 살았어요.

- 그럼 돈암동 전차 종점 맞은편 동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니깐 미아리로 올라가려면 전차 종점 바른쪽(=오른쪽, 북쪽을 향하였을 때의 동쪽과 같은 쪽), 그 조병옥 씨 집 알아요?

- 예, 성신여고 앞쪽에.

그 집 뒤쪽이에요.

- 그러면 혹시 정확한 주소지, 번지가 기억나십니까?

돈암동 178-1.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 아마 옛날 주소라서 주소지는 바뀌었을 거 같습니다.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죠.

- 그러면은, 그 앞쪽에 조병옥 선생님 집이고요.

그니깐 우리 집에서 전차 종점으로 가면, 조병옥 집이 있고 그 뒤에 안재홍 씨 집이 있어요. 안재홍 씨 부인이 우리 어머니하고 가까이 지내가지고 1.4후퇴 후에 서울이 텅텅 비었



해방 후 김의한·정정화 가족이 거주했던 돈암동 178-1번지 일대 약도. 김자동 회장이 직접 그려 주었다.

는데 안재홍 씨 부인은 남편 소식을 들을까 해서 피난 안 가고 집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 어머니가 걸음을 잘 걸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걷지 못하고, 또 우리 네 사촌 형이 형수가 약간 암체지. 자기들 피난 가면서 네 살, 다섯 살 된 딸을 하나 갖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애 좀 맡아주세요.'하고 가버렸어요. 그니까 어머니는 위로는 환갑, 그때 환갑은 요즘 같지 않아요. 간신히 걷는 할머니인 시어머니 모시고 또 밑으로 손주 하나 맡아 피난을 못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안재홍 씨 부인은 남편 소식을 들을까 해서 피난을 안 가서 텅텅 빈 서울에,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그렇게 해서 가까이 지낸 사이예요.

- 그러면은 돈암동에 계실 때 아버님을 주로 찾아오시던 손님이 계신가요? 손님들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가 사변 전에 돈암동 종점에 우리 살았어. 지금 생각이 나. 이사를 간 다음에 많이 찾아왔어요. 특히 한독당(한국독립당) 계통 사람들.

- 해방 이후에 해화동하고 돈암동에 사실 때 회고록을 보면, 백범 선생님이 만 원씩 주셔서 그걸로 생활을 했다고.

귀국해가지고 인제 아버지 취직도 못하고 어머니야 그때 여자 취직은 별로 없을 때니까. 그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백범 선생은 이제 뭐, 앞으로 한자리 할 것 같으니까 부자들이 기부 조금씩 하는 게 있어.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 쓰라고 해서 그때 돈으로 만 원이면 생활비만 억지로 되는 적은 돈이에요.

- 생활이 넉넉하진 않으셨겠네요.

그랬죠. 작은아버지가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살다가 집도 식구가 많고 불편해서 근처에 방 두 개 조그만 왜식(倭式) 집을 하나 얻어서 나왔어요.

그 집이 어디냐면 혜화동에서 보성중학교(서울), 동국대학교(당시 혜화전문)를 나오면 로터리가 나오는데, 보성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성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6년제예요.¹⁾ 중학교가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6년제인데 인제 3학년 중국서 댕겼으니까 여기 와서 4학년을 인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인제 어느 학교 가기가 좋은 지도 모르고, 어느 학교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때 여기 엄항섭 선생이 보성을 졸업을 했다고 했어요. 왜정 기미년 직전에 졸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성 졸업을 했고, 자기들이 성북동에 사니까 보성중학교도 가깝거든. 자기가 작은 아들 (사진을 가리키며) 요 녀석을 보성에다 2학년으로 편입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내가 학교 어딜 가야될지 모르겠다고 어느 학교가 좋으냐고 물었더니 여기 엄항섭 선생이 ‘보성이 최고지 뭐. 보성 가라.’고. 그래서 보성. 내가 4학년으로 편입하고 애네 (아들) 엄기동이는 2학년으로 편입해서 같이 댕겼다고.

- 선생님. 그러면 성북동 엄항섭 선생님 집은 가보셨습니까?

아, 노상 놀러갔죠. 나는 외아들이니까 집도 작고 놀러 나가기가 어려운데 엄항섭 선생은 성북동 좀 높은 데 좀 큼직한 집을 뒀거든. 그 애도 거기는 많아요. 애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국내 와서 또 낳았으니까 그때 거기서 넷이 있었어요.

1) 구제중학교(舊制中學校): 메이지 유신 이후 2차대전 패전 이전까지 일본 제국의 본토와 각 식민지에 설치되어 있던 5년제 중등교육기관을 말한다. 2차대전 패전 후 6년제로 유지되다가 1951년 폐지되어 중학교(3)+고등학교(3)으로 재편됐다.

- 그러면 엄항섭 선생 가족은 6.25전쟁 이후에 북으로 가셨습니까? 어떻게 되셨나요?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애 죽고, 애는 의용군 끌려가가지고 소식이 없어요. 이 아주머니 돌아갔고. 이 밑에 동생들, 다 서울에 있어요. 서울 근처에 살아요. 요 밑에 동생은 우리 어머니가 받았어요. 이 동네 살 적에 태어났어. 그래서 어머니가 받아서 어머니가 아주 꼭 친딸같이 귀여워하고, 그래서 개도 꼭 나보고 오빠라고 부르고.

- 그리고 백범 선생께서 보성중학교 졸업식 때 오셔서 말씀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기억나시는지요?

그때 내가 6년제 졸업을 할 적에. 우리 보성 교장이 까다로워요. 제자들한테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그날 나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면서 ‘애야. 내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단 말이야.’ 교장이 학생한테 부탁한다니까, 엄청 엄격한 교장이니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저한테 ‘너희 졸업식 때 백범 선생이 와서 축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내가 ‘네, 아버지한테 여쭙보겠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또 가만 그 얘기를 듣더니 ‘좋지.’ 하시더니 뭐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경교장으로 백범 선생 찾아가서, 아무날 우리 아들 졸업식인데, 아버지가 백범 선생더러 형님이라 그래. 형님이 가서 축하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이름이) 후동이었던거든. ‘후동이 졸업식이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와서 졸업식에 축하를 했어요.

- 그때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은 안 나요.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우리 오늘 졸업생 중에 내 친자식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그 말은 기억

나고 다른 이야기는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그때 임시정부 동료분들 여러 분이 왔는데 동창들이 모두 나 때문에 특별히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우쭐했지.

- 혹시 돈암동 집 구조를 기억 하세요?

간단해요. 그때 돈암동이 우리가 살 적에는, 똑같은 한옥들이 몇 십 채가 있어요. 우리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네 채씩 있고 인제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그림을 그리며 설명) 우리 어머니가 아마 이 집에 있었을 거야. 178-1에.

- 전차역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돈암역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그때?

이리 가면 조병옥이 집이 있어요. 산 위에는 여기가 성신여고. 산언덕 위에 있어, 쪽. 여기 계단을 올라가고.

- 그러면 삼선교에서 미아리고개 넘어가는 길이 이쪽에 있었습니까?

돈암동 전차 동쪽.

- 이쪽이 전차종점이지요? 전차역 가는 길에 조병옥 집이 있었습니까?

여기가 평지예요. 집들이 많아요.

- 이 집이 무척 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조병옥 집이 이쯤 있어, 그래. 조병옥이 그때 그 근처에서 최고의 집인데 군정청 경무부장으로 있을 때 불하받은 거지.

- 안재홍 집은 어디에 있었나요?

안재홍 씨 집은 이쪽에 있어, 이쪽에.

- 전차 가는 길 이쪽 말이죠?

멀지 않아요. 한 200미터. 안재홍 씨 부인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안재홍 씨랑 우리 아버지랑은 다 같은 한독당 위원으로 있으니까 친했고. 부인도 잘 알게 돼서 부인이 우리집에 잘 놀러 왔어요.

- 전차역, 돈암역에서 멀지 않은 거죠?

안재홍 씨 택은 종점에서 가까워요. 우린 조금 멀고. 이리 쪽 내려가면 성북경찰서가 나와요. 성북경찰서가 이쪽에.

- 시장이 이쪽에 있는 거죠? 개울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시설도 넓은 길이 있고. 성북경찰서에 길가에 있고. 요 가운데 개울이 하나 있어요.

- 돈암교가 그럼 이쯤 어디 있겠네요, 돈암교. 돈암 다리.

돈암 다리는 이쪽이죠. 돈암교. 그리고 이래 다음에 삼선교. 근데 돈암교에는 그때 이미 개울이 안 흘렀어요. 다 포장이 돼 있고 뒤에 파출소가 있고, 돈암교파출소가 있고.

- 선생님. 그때 기록에 보면 백범 선생님이 경교장에 계시다가 겨울에 너무 추워서 46년 겨울부터 봄 사이에, (김자동) 선생님이 묵었던 혜화동 근처에 어떤 지인 집에서 살았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혹시?

우리집에 머물지는 않았어요. 우리집이 넓지가 않아서. 우리집에 들르기는 더러 들르셨을 거예요.

- 혜화동에 사실 때 엄항섭 선생님 말고 놀러갔거나 가깝게 지냈던 분들, 독립운동가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혜화동 살 적이 사변 직전이거든. 그래 중경서 온 분들 이집, 저집에 찾아 댕겼어요. 그래서 경교장에 백범 선생한테 가고, 그러고 성북동에 인제 엄항섭 선생 집, 성북동 초입에 조소앙 선생 형제 분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 가깝게 지내고 노상 놀러 댕겼지.

- 어머님께서 돈암동에서 언제까지 사셨습니까?

돈암동 있다가 다른 곳으로도 갔다가 또 이리 갔다가, 하여튼 그 집에서 꽤 오래 살았어요. 살다가 우리 동서가 화곡동. 화곡동으로 이사를 갔어. 이사 가면서 언니로 우리 동네로 와서 같이 살자고. 집값도 싸고. 어차피 우리집은 집 없이 사는 거였는데, 화곡동은 집값도 싸다고 하니까, 화곡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화곡동 살다



1948년 남북협상 당시 한국독립당 대표들과 함께한 김의한 선생(맨 왼쪽). 그 옆은 조소앙 선생이다.

가 신정동이라고 있어요. 신정동에 그 연립주택에 방 하나 산 거야. 그래서 신정동에 살다가. 그러면서 인제 내가 직장도 갖고 뭐 인제 이래가지고 계속 그 쪽에서 오래 살았어요. 신정동, 화곡동 하여튼 그쪽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문래동으로 이사 왔어요. 문래동에 우리 집이 있어요. 지금은 작은딸하고 같이 살아. 둘째딸하고 같이 살아요.

- 50년대 성북동에 대동단 계셨던 최익환 선생께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잘 알아요.

- 그럼 그 댁이 어디신지 기억나시나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북동이에요.

- 최익환 선생님은 그때 어떠셨습니까, 퇴실 때 건강은 괜찮으셨나요?

내가 뭘 적엔 괜찮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부지런해요. 어머니가 최익환 선생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보태주고 이런 관계에 있다 하니깐 일부러 그냥 찾아가서 만나고 그래서 나도 인사 한 번 드려야 해서 가서 뵈었는데, 최익환 선생 아들은 또 보성 나왔어요. 아들은 나보다 1, 2년 후배예요.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 조소앙 선생의 형제 분들도 그쪽에 사셨습니까? 조시원 선생님도 조소앙 선생님 옆집에 살았죠?

6.25 때 연행됐죠.

- 그럼 저 6.25 때 얘기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어머니 정정화 선생님께서 6.25 때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나중에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적어놓으셨는데, 그때 그래서 충격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일화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에 아버님이 어떻게 연행됐는지도 내가 몰라요. 왜냐면 6.25 때 인민군이 와서 의용군 막 끌려가. 그래가지고 7월 한 달 동안 이리저리 피하다가 8월 달에 끌려갔어요.

- 어머니인 정정화 여사님이 부역죄로 나중에 잡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1.4 후퇴 때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남아있었던 게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할머니하고, 내 사촌 형과 형수가 피난가면서 ‘어머니, 애 좀 맡아 주시오.’하고 얘기를 맡겨놓고 가버렸어. 어머니는 걷지 못하는 할머니하고 갓난 애기 둘을 맡았으니까 피난을 못 가셨죠.

- 책을 보면, 어머니께서 쓰신 한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 쓰신 거예요?

우리가 돈암동 살 때인데, 안재홍 씨가 민정장관 할 적에 좀 좋은 집을 불하 받았어요. 안에 한옥이 있고 옆은 2층 양옥인데, 한옥에 가서 살고 2층 양옥은 좀 높아서 돈암동에서 말하자면 일류 주택이야. 조병옥 집 바로 뒤쪽이에요. 그 2층 집이 좀 좋으니까 민청(대한민주청년동맹)에서 그걸 썼는데, 그 민청 간부가 아



1951년 서울 돈암동,
한국전쟁 당시 정정화 선생



정정화 선생 가족 사진. 왼쪽부터 며느리 김숙정, 첫째 손녀 김진현, 아들 김자동, 정정화 선생, 막내 손녀 김미현, 셋째 손자 김준현, 둘째 손녀 김선현.

는 사람이 하나 이북에서 내려왔어. 그 사람이 조소앙 선생 비서를 하던 김홍곤이
 예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공산당하고 접촉이 됐던 모양이야. 민청에 와있으면서
 간부 됐는데 안재홍 씨 부인하고 만났는데 서로 다 아니까 우리집이 있다는 이야기
 를 듣고 김홍곤이가 먹을 거 좀 사가지고 우리집에 와서 어머니께 하나 드리고 그
 러면서 내왕을 했거든. 그런데 그때 그 민청 사무실에 아주 일없이 노는 여자가 하
 나 있었대. 말하자면 대남공작원으로 대기 중이야. 근데 그 여자도 할 일이 없는데,
 우리집에 어머니 혼자 노인 한 분 데리고 갓난아기 하나 데리고 있으니까 먹을 거
 도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서울에 잠복을 와서 있는데 하루는 우리집을 들른 거
 라. 우리 어머니한테. 나는 아무래도 미행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아무래도

자기는 잡힐 것 같으니까, ‘내가 잡혀가서 나는 죽더라도 공화국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진짜 미행을 당해가지고 그 여자가 간 다음에 어머니가 연행을 당한 거라. ‘어떻게 아는 여자냐?’ 물어보는데, 어머니도 좀처럼 필요 없는 거짓말도 못하고, 꾸밈 줄도 모르니까 이러이러해서 알게 된 여자라고, 그 여자가 잡혀서 붙었는데 말이 일치가 되니깐 거짓말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근데 세상이 좁아요. 이제 성북경찰서에 담당형사가 하나 있었어. 어머님 조사하는 형사가 하나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깐 거짓말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아주머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형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조소앙 선생, 임시정부 이런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머니 일에 대해서도 잘 포장하고, 내가 그때 미군부대 있으면서 징집해 다니거든. 그 형사가 징집회장이нде 요새 징집 나온다, 우리집에 있으면 여기 집에서 너 부대에 가서 있으면, 우리 부대에 가서 있으면 잡아가지 못하니까 부대에 가 있으라고. 오히려 그 형사가 계속 우리집 일을 도와줬다고.

- 그러면은 어머님께서 성북경찰서에 간혀 계셨던 거예요?

그때 난 미군 부대 일선에 있는데, 어머니가 종로경찰서에 잡혀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일선에 있는데 우리 일가 아저씨빨인데 나이가 비슷한데 그분들이 또 유명한 집안 손자예요. 누구냐면, 김완규라고 알아요? 33인의 김완규 씨의 손자예요. 근데 김완규 씨가 내 증조부 빨이 되거든. 그 손자인데 한자 돌림을 보니까 내 아저씨빨이 돼요. 근데 내가 미군 부대에 있는데, 그 아저씨가 나보다 대여섯 살 위예요.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내가 불길한 걸 느꼈어. 이게 여까지 날 왜 찾아왔다. 어머니가 잡혀갔다 이거야. 하지만 종로경찰서에서도 비교적 동정적이고 하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도 말했어요.

어쨌든 아들이 와서 보증을 서야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래 내가 종로경찰서에 찾아갔더니, 미군부대에 있으면서 군복 입고 휴가중 때가지고 왔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적당히 잘 해가지고, 어머니가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종로경찰서에 갔더니 형사가 ‘아이고 진작 오시지 그랬냐고’하더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벌써 검찰로 넘어갔다 그래서 검찰 이름을 대주고 찾아가보라고 하더라고. 당시 검찰이 지금 검찰청 있는 서소문 근처에 어디 있었어요.²⁾ 검찰을 찾아가다가 ‘검찰 그냥 만나는 것보다는 변호사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검찰청 바로 옆에 보니깐, 이종인이라고 알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인권변호사로 나중에 유명해졌어요. 바로 그 이종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모르는 사람이지. 그냥 가서 이리이리해서 우리 어머니가 잡혀갔다. 그러니까 내 집안을 물어봐. 그래 얘기했더니 이종인 변호사가 나이가 좀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고, 경상북도 사람이고 우리 집안에 대해서 대강 알거든. 아이고, 아무개 어른 손자구나 그래. 그래서 이종인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 잘 할 테니까 하고 변호를 맡았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데, 재밌어요. 8~9명 이렇게 전혀 연관도 없는 사람들 있는데 기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찌고 뭐 그랬는데 어머니에 대해선 따로 변호사를 댔기 때문에 따로 몇 마디 하고, 그 어머니의 사상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변호사가 피고의 사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 아들이 미군 군속으로 있는데 물어보자고 하니깐 판사가 ‘안 물어도 됩니까’라고 하더라고. 그리곤 판사가 되려 ‘피고의 사상 문제는 판사한테 일임하면 어떠냐’라고 물으니깐. 변호사는 ‘알았습니까’ 하고는 변호를 한 마디도 안 해. 근데 그때 잡혔다는 사람이 3년 구형이면 2년, 뭐 이렇게 전부 조금 내려서 다 때렸는데 어머니는 집행유예를 해서 나왔어요.

2) 서울지방검찰청이 1948년에 처음 개청할 때,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舊 대법원청사를 사용했다.

어머니가 나온 지 몇 달 후에, 그게 비상사태 하에 특별조치령이라는 거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그 특별조치령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나왔어. 왜냐하면 국회에서 특별조치령이 위헌이다 그러니깐 그걸로 들어간 사람은 다 내줘야 된다, 그러니깐 어머니는 이미 미리 나와 있었지만 다 풀렸지.

임시정부의 아들

- 대동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조부님 얘기를 좀 여쭙보고 싶은데, 동농 선생님.

대동단에 총재로 계셨지.

- 그래서 혹시, 조부님 동농 선생님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지요?

사실은 (대동단) 만든 거는 후배들이 만들어서 모셨지. 전협, 최익환 이런 분들이 주로 만들어가지고, 총재를 누굴 모실까 하니까 그래서 할아버님을 총재로 모셨지.

- 할아버님은 어떤 분이라고 들으셨어요? 들으신 얘기가 있으세요?

할아버님은 구한말에 대신을 지냈으니까 대동단을 만들 적에 좀 명망 있는 사람을 뽑자 하니까, 할아버님은 한말의 대신이었으니까 말할 거 없지. 그런데 대동단에서 할아버님을 모시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대동단에 재정, 돈을 낸 분이 있어요. 우리 외가가 부자였는데 외숙부



동농 김가진 선생

가 대동단에, 지하조직 할 적에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댔어요. 우리 외숙부는 이름이 정두화. 언론계 사람은 정연권이라고 알아요?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있고 런던 주재원으로 동아일보에 있던 정연권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 아버지거든. 근데 이분이 우리 외숙부니까 연권이냐 내 사촌동생. 동생이라야 생일로 따지면 한 6개월 차밖에 안 되요. 덩치가 크고 경기(중·고) 땡겼는데 운동도 잘하고, 문리대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그니까 나보다 한 살 밑이지. 한 살 밑이지만 따지고 보면 6개월 정도 차밖에 안 되고, 문리대 법대 가깝잖아요. 그니까 둘은 아주 친구 겸 형제 뭐 이래가지고 아주 친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해외도 자주 가서 런던 연구원인가, 동아일보 런던 주재원으로 있을 적에 런던 가서 그 집에 가서 묵기도 하고.

- 회장님은 임시정부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쪽 자라셨잖아요. 보면 저희는 책으로 본 분들이지만,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동녕 선생이라든가 이시영 선생이라든가 다 직접 뵈고 생활하셨잖아요. 당시의 기억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장사에서 광동으로 이사가면서 임시정부 식구들하고 같이 땡겼거든. 그럼 거기 식구 중에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세 분이 있었어요. 이동녕 선생, 이시영 선생, 한 분은 함자는 모르는데, 조소앙 선생의 아버님이었지. 아주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아저씨라고 부르셨나요?

그 할머니를 할머니라 그러고, 나머지 할머니라 그러는 사람 또 한 분이 있어요. 민필호 선생 어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 그러고 아마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 없을 거여.

- 그러면 김구 선생님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저씨지. 근데 나이로 보면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가 아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할아버지라 그래요. 백범 할아버지. 근데 나는 백범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형님이라 불렀거든. 아버지가 백범 선생하고 나이차가 제법 있어서, 40년 이상, 한 50년 차가 있으니까 형님이라고 감히 먼저는 못 불렀을 거야.³⁾ 그러니까 내 생각에 백범 선생이 ‘자네 나를 형님이라고 해라.’ 그래서 형이라고 불렀을 거야.

- 선생님. 중국에서 돌아오실 때, 46년 봄에 오실 때 김원봉이 가족들이랑 같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내랑 자식들하고 같은 배 타고 들어오셨다고 그러셨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어,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가족이 없을까, 어떻게 된 게. 아! 같이 왔어요. 박차정 여사 말고 그 다음 부인하고, 그 다음 부인이 최우강 선생 딸이야. 그 때 약산 부인은 서울에 떨어 두고 나머지 (최우강 선생) 식구들은 그냥 평양으로 가 버렸어요.

- 그러면 서울에서는 김원봉 선생이랑 그 가족들과 전혀 연락은 안 했습니까?

서울에 와선, 약산하고 접촉이 별로 없으니까, 가족들이. 그분은 좌익, 민전 (민주주의민족전선)계통이고, 그때 좌우가, 다른 거 대립은 문제가 크지 않아요. 첫째, 한독(한국독립당)계열에서는 신탁통치가 뭐냐 말이야, 우리가 독립은 자기가 이뤄야지 신탁통치냐. 안 된다. 근데 좌익에서는 신탁통치란 말을 안 쓰고 후견이

3) 백범 김구는 1876년생, 성엄 김의한은 1900년생이다.

란 말을 굳이 쓰면서, 소련에서 지지하니깐 좌익에서 다 지지한거야. 근데 사실은 알타 회의 때 기록은 내가 그 후에 뉴욕타임즈에서 난 걸 보니까 알타 때에 스탈린하고 루즈벨트하고 처칠하고 만났을 적에 스탈린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걸 모르고, 후견이라고 해서 좌익이 스탈린을 나중에 지지해, 스탈린은 그때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한국은 신탁통치. 그걸 갖다가 좌익에선 굳이 후견이란 말을 쓰는데, 그 신탁통치를 하기로 인제 모스크바에서 하니깐, 결정을 하니깐 좌익에서 무조건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백범 선생이 보수진영에서 ‘아니다. 신탁통치가 뭐냐. 즉시 독립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좌우대립해서 한독당하고 조선혁명당, 인제 민족혁명당하고도 완전히 국내와서 이렇게 됐는데. 남이 돼버렸지.

- 선생님 자서전에도 임시정부 소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회장님이 임시정부를 경험한 마지막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아마도 가장 원로야.

- 그래서 회장님한테 임시정부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나야 그냥 임시정부의 품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상해 프랑스 조계에 애민리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 집이 한 10여 년 전까지도 내가 갓을 때 있었어, 내가 태어난 동네 이름이 애민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름이 애민리로 고쳤어. 애민리. 왜, 인(仁) 자는 어질 인자지만 이게 유교 냄새가 나는 이름이야. 그러니깐 중국에서 유교를 배척하면서 애민리(愛民里), 이게 공산당 듣기에 좋지 않을까? 근데 애민리가 없어졌어요. 전부 헐렸어. 거기 우리나라 사람이 여러 집이 살았는데 다 헐려가지고 그게, 거기서 중국에선 근린공원이라 그래요. 근린공원. 뭐냐면, 주택가 안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이라. 근린공원. 공원으로 변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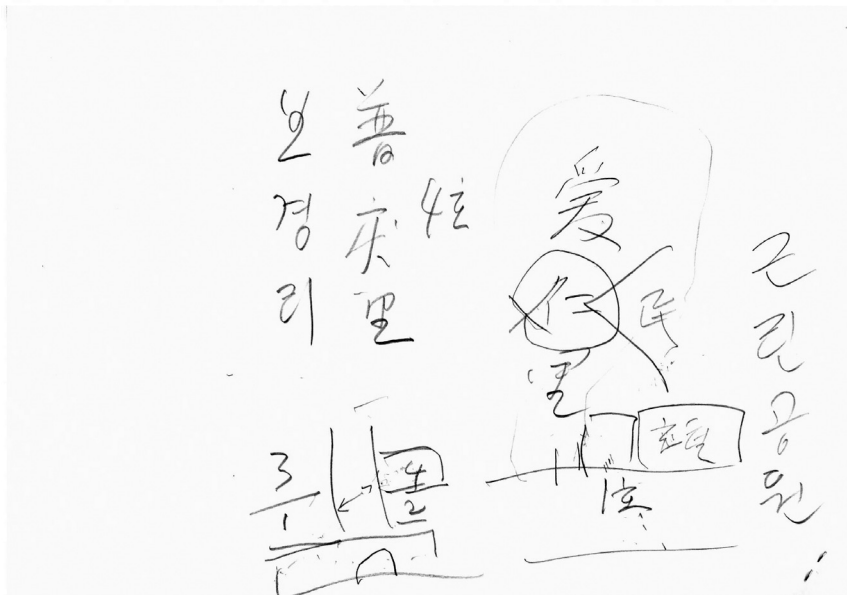
전체가. 근데 우리집이 1호였어요. 1호는 이렇게 큰 길 있으면, 여기 호텔이에요. 이제 골목이 이렇게 돼있거든. 고거에 첫째 1호. 1호는 그거 하나만 남아있는 거야. 다 헐렸어요.

- 1호는 남아 있고요?

1호는 남아 있어. 첫째. 여기 큰길가에 붙어 있는 집인데 아마 그 옛날 집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거 하나는 남겨 놓은 모양이에요. 1호.

- 그 집이 이 집입니까?(뒤에 있는 모형을 가리키며)

이거 다 엉터리야. 누가 만들었는지도 나 기억 안 나. 그래 내가 1호에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1호에만 사는 모양이라. 여기서 불과 한 1킬로 떨어진 데 보경리라고 있어요. 보경리(普慶里). 한문으로는 이렇게 써요. 이 4호가 임시정부 청사로 지금 보존돼있어. 그러면 이렇게 골목에 들어가면 2, 4, 둘째 집이야. 여긴 1, 3이에요. 여기 2, 4. 여기 큰길이고 여기 연안 무슨 빌딩인가 있어요. 요 밑에는 이렇게 차가 댕길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여기 살다가 애인리로 살다가 보경리로 이사를 갔어. 임시정부하고 대각선이지. 여기서 윤봉길 의사가 거사했어. 그때 여기, 임시정부 어른들은 여기 드문드문 살고, 김구 선생만이 여기서 청년회 7-8명 데리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윤봉길 의사예요. 근데 윤봉길 의사가 고향이 예산이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 고향이 예산 아니예요. 원래는 사실 서울서 태어났는데 이사가가지고 예산에서 살면서 어머니가 예산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고 지냈거든. 외가가 예산에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있으면서 윤봉길 의사가 우리 어머니한테 고향 아주머니라고 윤 의사가 우리 어머니보다 한 7살인가 밑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동갑이고. 그래 윤 의사는 만리타지 상해에서 고향 사람 만나 놓으니까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는데, 그때 나한테 그 초콜렛도 사다 주고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던 시절 상해 애민리와 보경리 약도. 김자동 회장이 직접 그려 주었다.

내 예산에 가면 너하고 동갑인 아들이 있다고 말이야.

나중에 (내가) 국내 와가지고, 49년일 거야. 예산서 윤 의사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는데, 김구 선생이 그 비문 글씨를 썼어요. 내용은 정인보 씨가 썼어. 그 예산 놓고 앞에 비석이 지금도 있어. 근데 그때 우리가 졸업반이야. 49년에 내가 학교 좀 늦어가지고 49년에 졸업반인데, 졸업식 직전에 우이동 놀러가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예산에 가서 제막식 있는데 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많은 생각했는데 끝까지 우이동 놀러 가는 걸, 그전에도 몇 번 갔으니까 나도 예산 따라가겠다고 예산 갔거든. 예산서 비석 제막식을 하고, 그때 예산엔 여관이 제대로 된 게 없었어. 그러가지고 온양온천에서 잤어. 그래 온양온천에서 자는데 아버지가 '너 여기 윤 의사 미망인이 저쪽 방에 있으니까,' 같은 호텔에. '가서 인사 드려라.' 그리고 날 데려가서, 근데 아버지는 윤 의사 부인도 알고 지내고 그 윤종이, 윤봉길 의사 아들도 그 전에 본

일이 있어.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아버지가 윤중이하고 나하고 ‘너희들은 동갑이고 하니까 친하게 지내라.’ 그래서 서울 와서도 친하게 지냈어. 근데 그 친구가 일찍 죽었어요.

어머니 정정화 지사

- 마무리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1982년에 전국공로훈장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소감을 어떻게 밝히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애족장을 받았어요. 근데 주변 누구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독립운동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독립장은 제대로 받았다고 봐요. 근데 어머니는 애족장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애족장이 뭐냐고 말이야.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애족장이면 뭐고, 하여튼 나라에서 준 건데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받겠다 하니까 그냥 받아서 애족장을 받았는데, 사실 독립운동 관계 사람들은 어머니 애족장을 잘못됐다고 봐요. 내가 해위 윤보선 전 대통령을 중국 있을 때 가까이 지냈는데, 근데 국내 와서 내가 전혀. 근데 그 결혼식같은 데 보면 가까이 앉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인사한 일이 없으니까 인사 안 하고 그냥 ‘저분이 있구나.’ 근데 한 번은 민씨 집이, 알아요? 민필호 씨?



상해 옛 프랑스조계지 내에 남아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민필호 씨 집에 결혼식이 있어. 거기 갔는데, 해위가 전직 대통령이지, 바로 내 앞에 줄이지, 가까이 앉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부르더니, 해위하고 민 씨 집안하고 사돈 간이에요.

민필호 선생 부인이 신명호 씨고, 아버님이 신규식 선생이고, 근데 해위 사위가 신준호 씨예요. 그래서 사돈 간이 된다고. 그래서 그 민 씨 집에 무슨 결혼식이 있는데, 해위가 앞에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데 해위가 그 사람을 알아요. 나도 아는 사람인데, 부르더니 ‘여기에 아무개 며느님이 와 있지?’ 그러는 거야.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들린단 말이야. ‘저기 앉아 있는데, 한 번 모셔 올까요?’ 하니까, ‘아니, 내가 가야지.’하고 가서는 어머니하고, 그때는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는데 여자 쪽에 앉은 데 가서 어머니 옆에 앉아서 끝날 때까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아, 상해 있을 때부터 친했다고 알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꽤 가까운 사이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죠.

해위 전 대통령은 당시 안국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쪽 사돈은 엄 씨예요. 엄항섭 선생하고도 가까운 집안이야. 내가 국내 와서 알게 된 분이지만, 그때 그 무슨 다방인가, 화신(백화점) 뒤쪽에 거기 그 노인들, 옛날 독립운동 하던 노인들 많이 오고, 그 다방에 나도 가끔 인사하러 들르고 그랬는데, 엄 씨도 거기 나오는데, 다방 근처에 안국동 쪽으로 쪽 올라가서 길거리에서 만났어. 그 사람이 ‘너 뭐하나.’ 그랬는데 ‘다방에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해위를 만나러 가는데 너 해위에게 인사(한 적이)있냐?’ 그래서 ‘나 인사(한 적이)없다.’ 그러니까 ‘같이 가서 만나면 어떠냐?’ 그래. 근데 그때 내가 해위를 좋게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박정희가 한참 고약하게 굴 적에 박정희를 공개적으로 노상 규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랬다간 다 잡혀가지. 근데 해위는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감히 못 붙들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해위가 가끔 기자들 만나서 박정희 욕하고 그러니깐 내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좋게 봤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소개를 ‘아무개 손자’라고 했어요. 내가 중국에 있어도 한문 실력이 신통치가 않아. 손자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영포(令抱)’라 그래.

그래 나는 영포, 무슨 소린가 하고 그냥 나
중에 집에 와서 영포가 무슨 소리냐니까,
안을 포자야.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아준
다 해서 아무개 선생 손자면 아무개 선생
영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서 얘기
해. 해위한테 날 소개하면서 아무개 선생
영포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한 몇 분 지났을 거야. 아버지 얘기 하면
서, 보통 아버지 얘기를 하면 호를 얘기하
거든, 옛날사람들은 근데 호를 안 하고 이
름으로 하면서, 나한테 어른이니까 존대
하다가 아무개 영포란 얘기를 듣더니 이
렇게 가만히 생각하는 것 같더니 ‘그럼 아



수당 정정화 선생

무개 아들이군.’ 그러니까 아버지 호를 하지 않고 이름을 대는 거야. 그러니깐 내 친
구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말을 반말을 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해위가 얘기 몇
마디 하더니 ‘독립운동이야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하셨지.’ 그래.

- 해방 이후 어머니가 서울에 와서는 주부로서만 생활을 하셨나요?

서울 와서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셨지. 감투도 안 쓰고 그냥 가정부인으
로, 할머니가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회고록(『장강일기』)을 내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렇게 출판하시게 된 건가요?**

이 책을요, 내 아는 사람이 출판사를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머



인터뷰 후 김자동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기념촬영

니 보고 책을 하나 쓰라 그래서 어머니가 써서 『늑두꽃』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출판이 됐어요. 근데 어머니 기억도 조금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또 『늑두꽃』이라는 게 촌스럽다고 말이야. 이 ‘장강일기’ 좋지 않냐고, 양자강을 따라서. 그래서 『장강일기』라고 고치고 여기 어머니 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가 고증을 많이 해가지고 좀 잘못된 거는 손질해가지고 책이 나온 거야.

- 회장님.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촬영하실까요?

그래도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

- 하하.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와서 이야기 들을게요.

도덕적인 기반이 없는 놈이 테러를 하면
그건 깡패지 뭐야

_이회영 · 이은숙의 손자, 이규창의 아들 이종철을 만나다

8 독립운동가

이회영 · 이은숙 · 이규창

출생 : 1867. 4. 21, 서울

사망 : 1932. 11. 17, 중국 대련

출생 : 1889. 8. 8, 충남 공주

사망 : 1979. 12. 11, 서울

우당 이회영은 1910년 조선이 주권을 잃는 이른바 경술국치가 일어나자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형제들 및 가족 60여명과 함께 서간도로 이주했다. 이후 경학사(耕學社),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 등을 설립하여 독립운동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였다.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참여하였다. 임시정부를 나간 이후에는 무정부주의자로 활동했다. 1924년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설립에 관여했으며, 1931년에는 항일구국연맹을 결성했는데, 이때 행동대로 만든 흑색공포단은 아모리에 있는 일본 영사관 폭파, 천진의 일본 기선 폭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했다. 1932년 만주로 이동 중, 밀정들의 밀고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11월 17일 옥사했다.

이은숙은 1889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이회영이 부인인 달성 서씨와 사별하자, 1908년 그와 재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의 주례로 치러졌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결혼식 가운데 하나였다. 1910년 이회영 일가가 만주로 떠날 때 함께 하였으며, 이후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이회영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출생 : 1913. 3. 28, 만주 통화

사망 : 2005. 8. 2, 서울

이규창은 이회영과 이은숙의 장남으로 1913년 만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이회영의 독립운동을 도왔으며, 남화한인청년동맹, 흑색공포단 등에서 활약하였다. 1935년 아버지 이회영의 이동로를 밀고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이용로를 엄순봉 열사와 함께 암살하였으며, 이때 체포되어 1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해방을 맞이하여 출소했다. 해방 후에는 주로 공직에서 활동하였으며, 은퇴 후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독립운동사 기술에 도움을 주었다. 1961년 정릉에 정착하여 2005년 서거할 때까지 어머니 이은숙을 모시고 살았다.

인터뷰를 해준 이종철 씨는 이규창의 장남이다. 이종철 씨는 할머니 이은숙과 아버지 이규창을 돌아가실 때까지 정릉에서 모시고 살았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구술자: 이종철(이회영·이은숙의 손자이자 이규창의 아드님, 사업가, 1954년생)

면담자: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구술일자: 2013. 9. 12.

구술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이종철 자택

구술시간: 60분

구술녹취: 이승호(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팀장)

구술정리: 민문기(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원)

독립운동가 이규창 선생에 대해서

- (이규창 선생님은) 계속 공직에 계셨던 것입니까?

체신부에서는 마지막으로 퇴직하신 게 철도우체국장이 마지막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철도우체국장. 체신부에 있으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광화문우체국장도 했고, 서대문우체국장도 했고, 철도우체국장도 했고, 자재과장도 했고. 아버지 스타일이기 때문에, 성격이, 본인이 청렴하게 지내니까 크게 돈 버는 건 없어도 생활은 남들 보다는 어렵지 않게 지냈어.



우당 이회영(1931년)

- 아드님 입장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청렴하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성격이나 성품이 어 떤지.

성격은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지. 그런 데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지.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다들 어려울 때니까. 다른 사람이 부정을 저질러도 크게 탓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 혹시 이규창 선생님께 독립운동을 하실 때나 옥에서의 얘기,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건 매일 들었지.

- 어떻게 그르셨어요?

책에도 다 있는데, 아버님이 자서전을 썼지. 이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시 출간한 거고. 전에는 보령각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 책은 한정판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문이 많아서 사람들이 읽기가 힘든데, 여기 이제 한문에 한글 토씨를 달았어. 읽기 편하게 만들려고.

이은숙 여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기억

- 이은숙 여사님이, 정릉에 정착하시고는 그래도 평온히 사신 것 같은데, 만주로 가셨을 때는 마적한테 총도 맞으시고.

그거는 그때 당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냐. 지금 와서 보니까 대단한 거지. 그 당시에 만주 독립군들의 생활상이란 거는 다 똑같은 거지.

- 혹시 이은숙 여사님 사셨을 때 당시 집 사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 사진은 이사를 왔다갔다 하다가 (사라졌어요). 이 근처 원래 이런 집이 아니었어. AID 차관으로 이렇게 단층으로 이렇게 지은 1층짜리 집. 대개 한 13평짜리. 기와였어. 이게 AID 차관집의 기본이야. 방이 있고, 가운데 거실이 있고, 이렇게 된 집. 주변은 전부 울창한 나무였어. 저 바로 밑에 산 속에 연못도 두 개씩 있었고. 그리고 집 앞으로는 개울이 흘렀어.

- 그러면 이은숙 여사님의 성품은 어떠셨나요?

할머니 성격도 평범한 성격은 아니야.

- 이 책(『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을 보니까 신채호 선생을 찾아가서 먹살을 잡으셨다는 얘기도 있고. 여사님이 보통은 아니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보통 성격과는 좀 다르지. 그런 거 따라다닌 여자가 별로 없거든. (그리고) 장인들이 딸을 그리로 보내려고 그래? 그런데 할머니(처럼) 할아버지 (독립군동을) 쫓아다니고, 끝까지 (했으니) 보통은 아니야.



우당 이회영의 가족. 1920년 중국 길림성(吉林省) 유하현(柳河縣)에서 찍은 사진이다.

- 그럼 손주분이 보시기에 할머니가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늘 하
던 말씀 같은 게 있나요?

기억나는 거가 뭐 있나, 그냥 똑같지. 일반 할머니랑 같지. 집에서의 생활은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별 특이한 게 있을 수가 없어.

- 그래도 자주 하시던 말씀이라던가, 아니면 혹시 이회영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게 있으세요?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존중이야.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부부 이상으
로 존경의 대상이야. 뜻이나 이런 걸 잘 따르는. 그게 아니면 어렸을 때에 과부가 됐
는데 할아버지만 바라보겠어? 할아버지하고 나이 차이도 엄청 났지만, 할머니는 할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었어. 그리고 우리집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어땠었는
지 몰라도 할아버지가 주도해서 할아버지 형제들, 육형제가 결정을 해서 둘째 할아
버지 재산을 전부 처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형보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재
산을 처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지금은 전부 다 돈 때문에 명예고 체면이
고 관계가 없잖아. 그 당시에 부모도 아니고 동생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둘째 할아
버지가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해서 동생한테 (독립운동을 위해) 쓰라고 모든 걸 내놓
은 거는 드문 거 같아.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친척들이 사돈에 팔촌까지 할아버지
대열에 같이 동참해서 만주로 갔잖아? 그때 할아버지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따라오
지 않으면 마는 거지 뭐. 그때 무슨 권력이 있어? 권력으로 따르라고 말할 수도 없
는 거 아냐.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부인들도 대단했던 것 같아. 그때 다 따라갔거든.
고생한다는 걸 알면서도 따라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런데 할머니가 아쉬워
하는 거는, 해방 되고 와서 할머니가 그 옛날 살던 집, 그거 찾아야한다고. 그 얘기
는 하셨어.

- 옛날 저쪽 명동 쪽에 (있었죠?)

명동 쪽. 지금 YWCA 회관이 저거예요. 보니까 그때 할머니 말씀으로는 거기
가 우리 뒤뜰이었던대. 거기 느티나무가 있고 해서.

- 이은숙 여사님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근처에 절 같은 데나 이런데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절은 저기 다녔지. 법륜사, 경복궁 바로
옆에. 왜 법륜사를 다니게 됐냐면, 거기가 태고
종인데. 거기 원래 있던 스님하고,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 분하고 친분이 있어,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거기와 깊은 인연이 있어
서 그 절에 다니고, 그 다음에 태고종에 조실 스



상동교회의 옛 모습

님인 덕암 스님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거기 절을 (다니셨고) 나도 거
기 다녔어요, 할머니 따라서. 어머니도 가고. 덕암 스님이 할아버지와 항일 독립운
동에 많이 동참을 했던 분이야. 그래서 거기하고 친분이 있었지. 그리고 특이한 것
은 할머니는 처음에 결혼식을 현대식으로 했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결혼이었
어. 요새 결혼식대로 했어.

- 주례는 그럼?

전덕기 목사. 새로나 백화점 맨 위에 있는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 주례로
(했어요). 그 당시 전덕기 목사는 할아버지하고 신민회 창립 멤버였지.



이은숙 여사

- 그럼 이은숙 여사님께서서는 외부에 나가시는 게, 절에 가실 때 말고는 특별히 (없었나요)?

아니지 작은 집, 작은 집이 안양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건강하니까 안양에 가서 한 두 달 있다 여기에 왔다 맘대로 왔다 갔다 하셨어.

- 그럼 엄청 정정하셨나 봐요?

그럼 엄청 정정했지. 거의 아흔살이 되기 직전, 사실 여든살 후반에도 그냥 다 걸었다녔어.

- 여기서 경복궁까지, 또 부천까지 다니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노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게 정정하셨네요.

건강했어. 원래가 건강한 체질이서.

- 그러면 여기서는 가족들이 사실 때 몇 분이나, 그러니까 이은숙 여사님 밑으로 다 모여 사신 거예요?

아니 여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집 식구들이 살았고, 안양에는 작은 아버지가 거기 살았고.

- 이규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직하다가 퇴임하시고 그냥 말년 보내시며 여기서 계속 사셨고요?

그렇죠. 여기서 살았죠.

해방 후 독립운동가들과 이승만

- 혹시 정릉에 동지 분들은 계시지 않았나요?

여기선 잘 못 봤어. 아버지 동지들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

-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이은숙 여사님께서) 명동 땅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이나 이럴 때 보면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처우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었잖아요. 국가에서 특별히 따로 해준 것은 없었나요?

그렇죠. 할머니하고 어머니 말씀으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진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 것도 없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더 회한한 사람이었죠. 그러면 이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제 친일파들과 결탁한 거를,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다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역사에도 나오더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권력 잡을 때 기반이 한민당하고, 김성수 쪽하고 결탁을 하지. 그렇게 대통령 되고 나서 아버지 말마따나 귀찮으니까 내쳐버리고, 자기 자리 잡아서 한 거라고. 그래서 한민당이 야당이 된 거 아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 운동가들과고는 결렬이 되어가지고 안 좋았대. 왜냐하면 아버지 말씀으로는 상해에 있을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일어났잖아. 그게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일본에서 독립을 주장한 것 아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자치를 요구했다는 거야. 미국의 저게, 식민지처럼 되어도 좋은데 자치를 달라, 미국에. 그러니까 상해 임정에서 대통령이 그러고 돌아다니니 이승만에 대해 탄핵을 하고, 그랬을 때에 또 의열단이나 남아연맹 같은 경우는 이승만을 죽여 버리려고까지 했다고. 암살해버릴라고. 그래서 이승만이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상해로 돌아가지 못한 거야. 미국에 있다가 이제 아

버지 얘기로는, 이제 미군정을 등에 업고, 미군정의 힘에 의해서 이승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니까 독립 운동가들하고는, 당시 임정은 미국이 인정을 안 했잖아. 그래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했잖아. 그리고 나서 임정은 정치활동을 못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안 좋은 사이니까, 이승만이 좋게 할 리가 없지. 그러면서 자기하고 이제 자기 권력기반에 저거 했던 친일 세력들하고 결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미 군정도 독립운동가들은 깔끄럽잖아. 애들은 지들 말을 잘 안 듣겠거든. 그러니까 친일세력하고 결탁을 하지. 그들이 우리나라 권력의 기반이, 근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냐. 그때 할머니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분노를 느끼는 거지, 그분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못 잡은 것을. 우리 집은 그래도 조금 생활이 어렵지 않은 집안이니까 (다행이지만). 그런데 다른 독립운동가 집안은 진짜 비참하더라고. 거지지 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존경을 받으려면 모양새가 거지면 존경을 못 받는다고. 정신은 무슨 얼어 죽을. 요새 누가 바쁜 세상에 남 정신을 알아주는 게 어디 있어. 굉장히 천대를 받으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못 잡은 거에 대해서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 동지들이나 할머니들은 그것을 통탄해 하는 거지.

- 그러면은 박정희 정권 때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서는 표, 저기 훈장도 수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호대상자(지금의 국가유공자)로 그때부터 하더라고.

- 계속 권력을 못 잡은 것에 대해서는 다들 원통해 하셨네요.

당연하죠. 어머니 얘기로는 외할아버지(독립운동가 정이형)는 항상 그 얘기를 했대.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가장 통탄하게 여겼

던 것. 외할아버지도 항일 독립운동을 했잖아?
 외할아버지는 옥살이를 제일 오래한 분인데, 해방 되고 제헌국회의원이 되면서 반민 특위법 위원장으로 그걸 제정했거든.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해방되고 나서 정부 수립 직전까지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 오광선 장군이 총사령관이었어. 그랬을 때에 친일파들을 전부 체포해서, 그런 일을 했어.



정이형

- 외할아버님 성함이?

이자, 형자, 정이형.

1960-70년대 정릉동 풍경

-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정릉)에서 계속 살아오셨잖아요. 풍경이나 동네가 변하는 것도 다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정릉 지역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요, 여기서 사시면서 언제 변화가 많이 시작되었나요? 집도 원래 이런 형태의 집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 정릉, 여기는 산이었어 전부. 그리고 내가 태어난 데는 저 밑에. 길은 시장 앞 쪽에. 정릉1동 거기 집이 있었거든. 거기 집들도 아마 AID 차관으로 여기 지어놓은 집들하고 비슷할 거야 전부. 그때 거기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외할아버지 집이 장교동이었는데 2년인가 가서 살다가 여기 집을 만들어내서 이쪽으로 이사 왔죠.

- 정확히 여기는 몇 년도에 (오셨나요)?

여기 60년도일거야 아마.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 되고 나서니까 61, 2년. 4.19가 나고 나서인가 아마. 5.16 그 후죠. 집만 여기 근처에 50가구 있었어.

- 한 마을처럼 이렇게.

응. 저 앞에 보이는 건 동방주택이라고 그래요. 저쪽. 2층 슬라브 집들 쪽 있는 거. 그게 동방주택이지. 그거는 삼성에서 개발한 거. 그래서 동방주택은 그 당시에 부촌이었어, 상당히 여기 정릉에서. 그때도 동방주택은 굉장히 부촌이라고 그랬어.

- 그래서 다 다시 또 개발되면서?

지금 뭐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 거기는 집들이. 처음부터 2층 슬라브 집들이었어. 대지가 거의 2~300평씩 되는 그런 큰 저택들이 개발된 집들이야.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여기 산을 깎는 거를 여기서 다 보고 있었지. 그 당시 여기 산을 깎는 걸 보면 볼도저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산에서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평탄작업을 하면서 흙을 이렇게 미는데 볼도저 하나 가지고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여기서 보면 동방주택 올라오는 길 있잖아. 그 길로 해서 저 쪽은 삼양동에 거기는 저거야, 달동네거든 그 당시에. 산동네, 그 때는 달동네를 산동네라고 그랬어. 판자촌들이 있었거든, 무허가. 그 사람들은 거지들이 많았지. 인부들이 거기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 저 철도를 이렇게 뚫가지고 흙을 쪽 밀고 오면 저 밑에 가서 붓고, 그리고 이리로 밀고서 올라가고. 그리고 여자들은 보니까 바구니에다가 돌맹이 이렇게 쪼은 거 그거 들고서 갖다 붓고 하는 거. 그 다음엔 저 쪽 한쪽에서는 징으로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는 구멍을 뚫는 걸, 그때 착암기가 없잖아. 그 당시에는 그거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거지 뭐. 그거 우리 어렸을 때 우리나라 실상이야. 지금 아프리카보다 더했지 뭐.

- 다 여기서 보고 사셨던 거네요?

난 어렸을 때부터 쪽 봤지. 구경했지.

- 초등학교도 그럼 이쪽에서?

응, 여기 송덕국민학교.

- 그때 정릉이 막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 게 공사하기 그때쯤인가요?

그렇죠. 정릉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명륜동 쪽이 딱 부촌이었잖아. 그리고 정릉이 개발됐잖아. 근데 정릉이 이렇게 계곡 밑으로 해서 딱 교통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긴 안 발전한 거야. 그리고 나서 수유리 쪽으로, 우이동 쪽으로 발전했는데 거기도 이제 요새는 교통이 안 좋으니까 형편없어지고 이제 강남으로 간 거지. 여기는 오래된 동네인데 발전은 없어.

- 그래도 살기는 좋죠.

그렇죠.

- 그러면 중, 고등학교도 다 여기에서?

아니요. 나는 중학교는 서울에 들어왔으니까 서대문으로. 그래서 학교는 거기 왔다 갔다가 했지. 여기서.

- 통학하신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통학했지.

아나키스트로서의 삶과 이상

- 혹시 집안에 가훈 같은 게 있나요?

가훈 같은 거 없어. 가훈은 무슨, 부모님이 하는 거 보면서 자라는 거지. 쓸데 없는 가훈 지은 집안치고 제대로 된 집 못 봤어. 그리고 우리 집은 형식을 싫어하는 집안이야. 할아버지 자체가 진취적이잖아. 진보적이라 형식이고 이런 거 싫어하고. 아버지도 그런 스타일이고. 전부 자유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젊은이들하고 잘 어울려, 밖에 나가면 아버님이 그때 퇴직하고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셨어. 거기 근무를 했어, 연구위원으로. 거기 젊은이들, 교수들 전부 아버지가 중국어 특별강의, 다 가르키고.

- 이회영 선생남도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랬어. 외할아버지도 그랬고. 왜냐하면 그분들, 할아버지들이 사고가 뭐냐면 나이 드는 사람이 싸우질 않는다는 거지. 아버지도 그 말씀하더라고. 그때 거사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 말씀이야. 옥관빈이를 암살하러 갔는데 그때 아버지 윗분들이 나이가 이제 한 40대가 된 분들. 이분들이 만주에서는 혁혁했대. 근데 가가지고는 위층에서 총을 겨누고는 몸이 떨려가지고 못 쏜 거야,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러 갈 사람은 젊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국가의 재산이라는 거지. 그래서 잘 해야 된다는 거야, 존중을.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아버지 말씀에 그때 나이들은 사람이 젊은이보고 너 가서 죽으라고 해서 누가 가냐 이 거야. 우리나라 군대도 아니고, 무슨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라는 거야 전부. 자유의지에 의해서 갈 때, 거사를 하러 갈 때. 죽으러 가는 거 아냐? 그때도 서로 간다고 해서 재미를 뽀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든 일을 하는 중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젊은이들이하고

잘 어울리고, 편하게 대화도 하고. 그래서 격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아버지 말씀은, 옛날에는 그런 격이 없었대. 선배, 후배 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아버지가 보면 왜놈 잔재라는 거야.

- 열 살 터울 친구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우리들은 다 잘 어울렸는데 일본 애들이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걸 되게 싫어했어. 그리고 재밌었던 게 독립운동한 분들이 굉장히 인자해.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 조선 특유의 그런?

그렇죠. 그 다음에 엄격하지를 았아. 아버지 동지들, 이 분들도 굉장히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굉장히 자유롭다고. 그 다음에 소탈하지, 전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의협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거지. 건달 애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하겠어. 왜냐하면 개네들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강한 자한테는 금방 굴복한다고. 그런데 이런 항일 독립운동한 분들은 약한 자들을 굉장히 감싸고, 권위주의적이지 았아. 내가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강한 자에 의한 권위주의에 도전하잖아.

- 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별이 았어. 그래서 우리 집에는 여성 차별이 았어.

- 아까 젊은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시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데 이규창 선생님이 약주도 좋아하셨습니까?

술을 못해 우리 집안은.



이규창

- 아, 술을 못하세요?

유전적으로 술들을 못해. 친할아버지는 기껏 마실 수 있는 게 포도주 한 잔. 얼굴이 빨개져버려. 그래서 우리 집에 차례지내거나 제사 지낼 때 항상 포도주를 (준비해).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좋아해.

- 좀 어울리고 하셨다니가 약주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관 선생. 우관 이종규. 성대 총장했던 분. 그 아저씨가 그 때 나보고도 그 얘기를 했어.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야. 같이 담배도. 그분은 직접 할아버지를 같이 모셨으니까.

-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네요.

그니까 모든 게 자유롭게, 엄청난 토론을 했다는 거야. 저기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론적인 배경들이 다 있었다라고. 무슨 별안간에 총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상적인 논쟁도 엄청 했고,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 밤새도록 젊은이들 하고 그 당시의 사상 논쟁을 해서. 나도 전부 아버지한테 들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그 맑스 레닌주의에서부터 아나키스트니 사회주의 이론이니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서 정통이야 전부.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적극적인 투쟁하는 방법, 그것도 아나키스트들이 굉장히 맹렬해.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맑스 레닌주의의 맹점을 정확하게 공격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가지고는 공산주의 이론에 못 당한다니까. 근데 아버지 진영의 아나키스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해요.

- 그럼 중국이나 한국에 그런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나요?

지금 여기 ана키스트들이 모인 단체들이 있죠, 국민문화연구소라고. 아직도 굉장하죠. 근데 이제 ана키스트들의 하나 약점은 뭐냐, 권력 지향적이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질 못하니까 뜬구름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위기시에는 항일 독립운동에서 엄청난 테러활동을 했던 데가 ана키스트들이거든요. 근데 다 이론적인 배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무대포로 가서 살해하고 그러는 게 아냐. 그래서 아버지 그분들 얘기는, 아무나 죽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도리어 일본인들, 민간인 일본인들도 옆에서 잘못 다치면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는 거야. 미안해하고, 그게 도덕적인 기본이 있었던 사람들. 도덕적인 기반이 없는 놈이 테러를 하면 그건 깡패지 뭐야.

평범과 비범 사이,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 그럼 혹시 이은숙 여사님이나 이규창 선생님 유품이나 친필 원고 같은 거는 소장하고 계신가요?

그건 있어요. 우당 기념관에 다 있어. 할아버지 유품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에. 우리 집에는 없지 뭐 그냥. 그리고 유품, 할아버지 유품이 없어요, 원래.

- 이회영 선생님은 이제 만주에서 돌아가시고 큰 따님이 이제 시신을 찾으러 갔더니 그냥 바로 화장시켰다고 그래서, 고문 흔적 없애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신 것 같다고. 오긴 모셔 와서 여기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때 사진 같은 것도 얼마 안 남아있죠?

그때 사진 없죠. 사진을 못 찍게 했어요.



이규창(왼쪽에서 세번째), 1954년 남원 광한루에서 찍은 사진이다.

- 정말 엄혹한 시절이었네요. 이규창 선생님은 해방 동시에 광주에 계시다가 바로 나오신 거죠?

그렇죠. 나와서는 아버님 동지들하고 같이 움직였죠.

- 이은숙 여사님께서도 이규창 선생님 나온 것을 너무 기뻐했는데, 그때 막내 따님 돌아가시고. 동시에 이렇게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작은 고모. 작은 고모는 아버지 말씀에, 거기 오다가. 이 집 여기 개발한 고모부가 막내 고모 남편이죠.

-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은숙 여사님이 원망을 많이 하셨다고.

원망은……. 원망은 그냥 별것도 아니야. 어느 집이나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는 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독립운동한 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

화적으로 얘기해서 접근을 차단시켜. 다 거짓말이야. 다 이웃집 아저씨랑 똑같은 거야. 근데 사고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지. 그런데 독립운동한 분들 중에서도 그때 보면 성격적으로 아주 안 좋은 사람들 많아. 외려 친일파도 성격 좋은 사람 많고. 그거랑은 다른 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웃기는 얘기지 뭐. 무슨 항일 테러했던 분들 이름 나오면 미화시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 있는 사실대로 해야지. (그래야) 젊은 애들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신화처럼 해놓으면 그런 사람을 누가 따라. 관계가 없지.



일조각

이은숙 회고록『서간도 시종기』
1975년 1월 정음사에서 처음 발간한
책으로 그해 제1회 월봉문학상을
받았다. 2017년 7월 일조각에서
재출간되었다.

- 요새는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이제 글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
고요.

정확히 써줘야 되거든.

- 이봉창 열사 같은 분들도 보면 원래는 그렇게 일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김구 주석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아버님은 그 때 상해에 있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정은 그런 활동을 하질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작은 할아버지는 임정에서 재무 담당을 했지만, 임정이 상징적인 건 했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의열단이고 그분들처럼 강력한 활동은 결국 못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 거기 자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이종철 님

버지 말씀에 가장 힘든 게 돈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 나중에는 저, 먹지를 못하니까 권총도 갖다가 전당포에 맡겨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겨울옷까지도 다 갖다 전당포에 맡겨서 밥을 먹고, 그래서 천진이고 상해고 있을 때 얘기가 일본 경찰 애들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버려 둔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 전당포가 털렸다던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초비상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 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총을 사고 폭탄을 제조하니까 그 때부터 이제 긴장을 하는 거지.

먹고살기 힘든데 그 조그만 방에서 동지들이라고 열 명씩 거기서 전부 앉아 있는 거지. 돈이 없는데 만날 끼니걱정하면서.

- 그래서 이은숙 여사님께서도 돈이 생길 때마다 붙여주셨더라고요, 이회영 선생님께. 그 생활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송금도 안 온다는 거지. 왜냐하면 초기에는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아버지 말씀에 국내에서 자금도 조금 조달되고 그랬는데. 근데 인간이란 건 그렇잖아요? 나중에 시간도 오래가고 지치니까 ‘에이 무슨 독립은 무슨 얼어 죽을 독립, 그냥 결탁해서 사는 게 낫다.’ 그때서부터는 모든 자금도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임정 자금도 맨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으로는 할아버지의 자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임정 초기에. 그런데 그 돈이 고종 황제가 준 돈이라는 거지. 그때 그 돈은 누가 조달해줬냐면 민영달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옛날에 육사 교장했던 민병돈 장군 할아버지야.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이나 젊은이들이 와

서 그 거사를 한다고 할 때에, (앞서) 키워서 훈련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의협심에 의해서 와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유자명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당 쪽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인맥에 의해서 폭탄을 제조해서 조달하고, 자발적인 거지. 아버지 말씀에 지도는 무슨 지도냐고.

- 보니까 이봉창 의사, 열사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받은 분이 아니라 폭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첫 번째 것이 안 터지니까 당황해서 못 던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던지고 바로 잡혔다고. 훈련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의협심이 있고. 근데 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의협심이 있는 건 아니었어.

- 일정이 있으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통해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고, 책에서는 못 듣는 이야기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또 찾아 뵙겠습니다.



후손들의 입으로 생생히 전해 듣는 성북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서울의 동북쪽, 숲과 시내, 들판이 펼쳐져 있던 우리 성북 지역은 식민지 권력에 억눌린 한국인들의 숨통을 그나마 터 준 소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지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성북 지역은 청산리대첩의 영웅 나중소 장군이 군사기술을 익힌 곳이었으며, 항공독립운동가 최용덕 장군이 나라를 찾기 위한 지혜와 힘을 키웠던 곳입니다. 이육사 시인은 이곳에서 ‘청포도’와 ‘절정’을 써서 민족의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조소앙, 안재홍, 김의한, 정정화 지사는 해방 이후 돈암동으로 이주해 오면서 새로이 건설될 통일된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다시 헌신하였습니다. 유우석과 조화벽 지사는 비록 가난하지만 3.1운동 때 돌아가신 부모님과 동생 유관순 열사의 뜻을 계승하며 지사로서의 올곧은 삶의 자세를 꾸준히 지켜 나갔습니다. 이은숙 지사는 지난날 자신이 뛰어들어 직접 보고 들었던 항일투쟁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성북문화원은 우리의 독립지사들이 못 다한 말들을 그 후손들의 입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